

제320회 국회 (정기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 7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3년12월5일(목)

장 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4년도 예산안
 - 가. 교육부 소관
 -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다. 문화재청 소관
-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교육부 소관
 -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다. 문화재청 소관
- 3. 201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가. 교육부 소관

심사된 안건

- 1. 2014년도 예산안 2
 - 가. 교육부 소관
 -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다. 문화재청 소관
-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 가. 교육부 소관
 -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다. 문화재청 소관
- 3. 201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
 - 가. 교육부 소관

(10시24분 개의)

○**위원장 신학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7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국가 예산안은 국내 경제성장률 3.9% 정도 예측 아래 총지출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조 7000억 원, 약 4.6%가 증가한 357조 7000억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 중 교육부 총지출은 54조 4000억 원, 문화체육관광부는 4조 3000억 원, 문화재청은 6000억 원을 각각 차지하

고 있습니다.

최근 국세수입 부진 현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 현상 등을 고려할 때 강도 높은 예산절감 노력과 동시에 효과적인 국가예산 편성이 요청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살피시고 잘 심사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회의에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출석하지 못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나승일 차관, 문체부 조현재 제1차관이 지금 예결위 회의에 참석 중이시고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2차관은 업무 관계로 해외출장 중에 있음

알려 드립니다.

1. 2014년도 예산안

가. 교육부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다. 문화재청 소관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교육부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다. 문화재청 소관

3. 201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가. 교육부 소관

(10시27분)

○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교육부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재청 소관의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교육부 소관의 201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서남수 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金世淵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제안설명 하기 전에 하시려고요?

○金世淵 委員 예, 긴급한 사항이라서요.

○위원장 신학용 조금 이따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金世淵 委員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상임위에서 반드시 한번 긴급하게 짚어 봐야 될 사안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지난 10월 28일에 전북교육청에서 열린 독일 혁신특강에 앞서 진행된 국민의례 순서에서 전북교육청 소속 장학사 박모 씨가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풀사나워 생략한다고 말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 등을 하지 않았음이 밝혀져서 과문이 인 바 있습니다. 해당 행사에는 초·중등 교원 500여 명과 외국인 다수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문제가 되자 해당 장학사는 스스로 대기발령을 요청하여 12월 4일에 대기발령, 5일인 오늘 파견근무 발령이 난 상태입니다.

문제가 되니까 뒤에 해명하기를 ‘국민의례를 무시한 것은 아니며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 묵념 등 국내용 의례가 풀사납게 비칠까

그랬다는 해명도 2차대전을 겪은 독일인의 눈에 전체주의의 잔재로 오해될 수 있고 생소할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이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공무원은 임용될 때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할 것을 선서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2항 별표 1의 선서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하는 선서문을 낭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여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013년부터 장학사와 연구사 이상의 교육행정직은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즉 해당 장학사는 현재 지방공무원에 해당이 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조항입니다.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징계사유) 조항입니다. 1항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호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렇게 보면 당시 발언의 경위와 목적 등에 대해서 교육부 차원의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도 해당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모든 것을 목격했으면서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던 교육감 그리고 해당 장학사를 불러서 당사자를 통한 명확한 사실관계와 정황 파악이 필요하므로 긴급 현안질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가 스스로 대기발령을 요청해서 12월 4일에 대기발령, 오늘 파견근무 발령을 하는 셀프 파견으로 그쳐서는 안 될 국기를 문란하게 할 소지가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학용 장관께서 사실 관계를 반드시 오늘 내로 파악해서 가지고 일단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긴급현안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여야 간사님께서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기홍 위원님!

○**유기홍 위원** 제안설명 듣고 의사진행발언을 할 생각이었습니다만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님께서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여야 간사들 간에 협의하겠습니다.

사실은 헌법정신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만 사실은 오늘 예산안 상정을 앞두고 정말 교육부 예산을 지금 심사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11월 29일 교육부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7종에 대한 수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학사를 제외한 6개 출판사 집필진 12명이 교육부 수정명령 취소 소송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교과서 문제를 이렇게 법정으로까지 가져가게 된 기본 원인을 바로 교육부가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정말 교육부에 그동안 엄중하게 여러 차례 저희 위원들 요구에 따라서 경고도 하고 자료제출 요구도 했습니다만 요즘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도 정보위에는 정보를 공개하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선 검정 단계에서부터 채점표 회의록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는데 오늘 이 시점까지도 제대로 된 채점표 회의록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도대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는 전문가협의회, 그 사람들이 전문가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들이 언제 어떻게 모여서 수정작업을 했는지, 그래서 수정권고를 했는지, 그것도 그렇게 명단 공개와 자료제출도 요구했는데 전혀 제출하지 않고 수정권고 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장관은 몇 차례나 말을 바꿨습니다. 전문가협의회도 명단 주겠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수정심의위원회 15명, 뭐라고 했습니까? 그 수정명령권 발동한 다음에 명단 주겠다고 했는데 명단 오늘까지 오지 않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정이 이루어지고,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과서 발간 취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분들이 도대체 어떤 분들인지, 정말 엄청나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기자회견도 여러 번 했고 상임위에서도…… 요지부동입니다. 교육부가 국정원보다 훨씬 더 높은 보안 수준을 가진 그런 기관입니까? 교육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지금 제 의사진행발언이 끝난 다음에 위원장께서는 장관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알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번 수정명령권 발동했던 내용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없습니다. 지난 수정권고 사항에도 이런 항목이 있었어요. ‘이승만 독재와 4·19혁명’ 이 제목이 너무 부정적이니까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전문가협의회 작품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런 어처구니없는 수정권고를 했던 전문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아니, 이승만 독재와 4·19혁명이 부정적인 제목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 답변해 보시고.

그리고 이번 수정명령권도 마찬가지로요.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이거 바꾸라고 요구했어요. 서울대생 박종철 군이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 끝에 사망했을 때 모든 신문이 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당시 치안본부에서. 그런데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제목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게 수정명령권입니까? 어떻게 바꾸라는 얘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리고 최근 중복몰이 분위기에 편승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북한의 토지개혁이 무상몰수 무상분배였다고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고치라는 거예요. 무상몰수 무상분배는 역사적 용어이고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가에 대한 평가는, 아니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꼭 좋은 겁니까? 그래서 너무 좋은 걸로 오해할 우려가 있으니까 바꾸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까지 바꾸라는 겁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수정명령을 내려놓고 과정, 그리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터무니없는 수정명령을 했는지를 지금까지도 전혀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제주 4·3문제, 우리 여기서 다뤘어요. 제주 4·3문제는 4·3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통령이 제주도민들에게, 당시 피해 유족들에게

사과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교학사 역사교과서에는 공비 토벌하는 후속과정에서 일부 양민이 어찌다가 학살당한 사건으로, 사살당한 사건으로 이렇게 기술해 왔는데 그것은 수정명령 대상에서 빼냈어요.

얼마 전에, 지난 월요일 날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을 비롯한 원로 사학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개탄을 하십니다. 도대체 국가가 이렇게 되면 이게 준 국정교과서에 다름 아닌…… 저는 오늘 이 시점까지도……

지금 우리 야당 위원들하고 기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부는요 모든 발표를 다 금요일 날 합니다. 토요일 날 언론이 없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또 금요일 날 기자회견을 할 겁니까? 또 금요일 날 발표할 겁니까? 이런 일들이 벌써 몇 달째 반복되고 있는데……

위원장님, 저는 정말 이런 국회를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는지, 자료조차 받지 못하는…… 장관께 자료 빨리 제출하라고 요구해 주시고요.

장관, 계속 이럴 거면 장관 그만두세요. 헌법정신 지킬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교학사 교과서 봐 주기로 일관하고 나머지 역사 교과서도 속죄양으로 삼아서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것도 고쳐라’ ‘이승만 독재와 4·19 혁명이 너무 부정적이니까 바꿔라’ 이게 지금 교육부장관이 할 일입니까?

○위원장 신학용 유기홍 위원님 알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지금 교과서 문제 때문에 소송 상태에 드디어 이르렀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몇 번 이야기했지요. 출판사가 틀림없이 움직일 것이다, 아마 그런 안이한 생각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소송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정명령 취소소송, 효력정지 가처분소송 또 심지어 정보공개청구도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재판과정에서 내야 될 위와 같은 자료들 모두를 빠른 시간 내에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제 이게 소송 들어가고 법정에서 제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왔는데 그때 낼 건데 지금 빨리 내서 가지고 이 과정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인지를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내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 장관한테 답변 좀 하라고 그러세

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지금 자료제출……

○위원장 신학용 제가 말씀드린 채점표 회의록, 그다음에 전문가협의회 명단, 수정심의위원회 명단, 다 주십시오. 이것 어차피 나올 건데.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것을 저희가 끝까지 비공개로 할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고요. 다만 이것이 그동안에 수정과정이나 교과서 채택과정이나 이런 데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전부 종료된 뒤에는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이게 어떻게 잘 마무리될지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유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짚어보고 더 커지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 찾는 것도 좋기 때문에 있는 자료를 다 주십시오.

○유기홍 위원 장관님 말이 안 돼요. 이런 엉터리 검정 수정을 거친 것이 채택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인데 채택작업 다 끝난 다음에, 정말 우리가 보기에 터무니없는 사람들이 수정작업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때 가서 채택작업 다시 할 겁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제가 지금 명단을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 학계의 신망이 있는 그런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유기홍 위원 학계의 신망 있는 사람인데 왜 못 밝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것이 지난번에도 검정 결과가 발표된 직후에 그 검정 위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이랬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굉장히 난항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더 모셨으면 싶었던 분들도 논란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고사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로 위원회 구성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려면 이 교과서 프로세스가 전부 끝난 뒤에 그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고 또 그 위원님들께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진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다시 한 번 장관께 이야기합니다.

출판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모든 문제가 이것이 나오고, 그것이 채택되고, 거부되고, 허가하고 안 하고, 이런 과정에 국회와 같이 더불어 논의해서 결정하면 그 과정은 좀 적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위원장으로서 제출을 명령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에 국회에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는 여야 위원님과 합의할 예정이지만 위원장으로서 명령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오늘 내이라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위원님!

○유은혜 위원 장관님, 교과서 채택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지금 이런 자료를 못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지금 우원식 위원님 잠깐 자리를 비우셨는데 불법 홍보물 관련해서 그 당일 날에도 몇 부가 어떻게 회수됐고 그 이후에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거야말로 교과서 채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배포된 불법 홍보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똑같은 논리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정명령 오류를 일부 교육부에서 시인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아주 졸속적으로 밀실에서 심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명령한 내용조차도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거 아시지요, 장관님께서도?

그리고 그렇게 되면 수정승인 최종결정 시기가 원래의 12월 6일에서 더 늦춰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돼서 학교 현장에서 겪어야 하는 혼란과 또 교사들이 수업 준비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정말 없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이런 교과서를 가지고, 이런 정도의 준비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도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월 7일 날 과거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서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결과 나온 것 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유은혜 위원 지금 똑같은 소송이 반복되고, 이게 지금 5년이 걸려서 이런 법원 결정이 났는데 제가 오늘 꼭 한 가지 지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5년 법정 다툼 끝에서 지금 본인들 또 원고 측 부담까지 수천만 원 소송비용 물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누구 하나 잘못했다든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제가 보니까 2008년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명령 관련해서 그것을 주도했고 지금 최일선에서 이런 지시 하고 법원 판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지금 저기 계신 국장님, 실장님, 교육정책실장님 또 이것 똑같이 주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정부가 국민 앞에서 이런 법적인 결정들을 존중하고 그런 공신력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신뢰를 갖기 위해서라면,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인물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그냥 방치하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반드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지난 5년간 법원을 오가면서 고통 받았던 집필진들이 지금 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문제들이 5년 동안 계속돼서 지금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려고 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장관님께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만 자료와 관련해서 더 말씀드리면, 상지대 사태 관련해서 저희가 상지학원 법인에 이사회 감사보고서, 종전 이사 측 이사장 해임요구사유 그것에 대한 법인 해명자료 이런 자료를 전체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제출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요. 교육부에서도 국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하지 않으시니까 이런 대학에서도 필요한 자료 요청해도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교과부가 이런 식으로 비리로 퇴출됐던 구 재단 감사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장

관님께서 말씀하셔서 오늘 점심시간 전까지 자료 제출 반드시 좀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학용 예, 현영희 위원님!

○현영희 위원 현영희 위원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예산심의 과정인데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그런데 지금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아마 또 수정권고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역사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너무나 중요한 자료입니다. 어떤 학부모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유치원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 미국 놈은 나쁜 놈이야?’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설명을 여러 가지로 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이런 가치관을 심어 줘서 되겠습니까?

지금 수정권고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수정명령을 통해서 교육부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피로 얼룩진 5·18민주화운동’ ‘궁지에 몰린 전두환 정부’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다니’ 이러한 것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인 정체성보다도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역사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어서 수정하는 명령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교육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저 자신도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아마 자료제출을 하거나 회의록을 제출한다면 이것 자체 가지고도 또 오랫동안 시시비비를 우리가 국회에서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정부를 믿고 또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이번에 교육부에서 정말 우리 역사에 남는 역사책을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알려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책 읽는 모임에서도 박시백 화백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사초에 대한 것도 그 이야기한 내용에서 그냥 그 자체 말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를 빼라고 하는 그 말까지도 그대로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절대군주국가인 왕조시대에도 이렇게 하는데 지

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조금 억지를 부리고 내 주장을 주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신다면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이거를 관습으로 비판한다기보다도 규정과 절차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 받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위원장 신학용 현영희 위원님!

○현영희 위원 잠깐만, 하나 더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 교육부 대변인이세요?

○현영희 위원 그리고 아까 김세연 위원 말씀하신 국민의례에 대해서 11월 28일 이야기한 ……

○유기홍 위원 아니, 무슨 교육부 대변인이세요?

○현영희 위원 꼴사납다는 표현을 한 장학사를, 이거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공무원입니다. 국가 기강을 앞장서서 가르쳐야 될 공무원이, 특히 교육계에 있는 장학사가 태극기에 대한 존엄성이나……

다른 나라와 같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가도, 애국가도 부르고 우리나라 국기에 대해서도 경례를 하고 또 독일에 대해서도 경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신학용 자, 현영희 위원님!

○현영희 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신학용 그만 좀 마무리해 주시지요.

○현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 신학용 현영희 위원님!

○현영희 위원 교육청에서 대기발령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신학용 그건 이미 이야기한 겁니다.

○현영희 위원 교육감대행을 문책도 하고……

○위원장 신학용 현 위원님!

○현영희 위원 대기발령 아니라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여야를 초월해서 우리 국회가 나서서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존경하는 현영희 위원님, 우리 국회의 품위를 위해서도……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해 놓고 본인은 또 그 이야기 하고 그게 뭐니까, 도대체?

○현영희 위원 아니, 제가 뭐……

○**위원장 신학용** 다른 위원님들 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된 게 잘못이다, 유감이다 해 놓고 본인은 또 그 유감을 하는 그런 국회를 꼭 만드셔야 되겠습니까?

○**현영희 위원** 아니,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유감……

○**위원장 신학용** 아니, 유감이라고 했으면 자기는 하지 말아야지요.

○**현영희 위원**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학용** 다음에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님!

국회 회화적으로 됩니다, 그러면.

○**김희정 위원** 저는 앞서 의사진행발언과 관련된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혔으면 합니다.

먼저 전북교육청 관련해서는 국민의례를 끝사납다고 얘기한 장학사의 셀프 대기발령과 관련해서 현안질의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교육부의 조사 결과나 이런 것을 밝혀 주십사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추가로 좀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이런 식으로 태극기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는 애국가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애국선열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장학사로 일해 오면서, 그러면 이런 식의 일들이 전북교육청에서 처음 일어난 일인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날 행사장에는 김승환 교육감도 함께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속된, 자기 지휘하에 있는 장학사가 이렇게 국가에 대한 사랑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당 교육청의 수장으로서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입장이나 그 당시의 상황이 전혀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현장에서 김승환 교육감은 적절한 조치를 했었는지 지금 입장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지고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국회에서의 현안질의가 함께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사실 고교 한국사 교과서 관련해서 지금 이 사태까지 오는 데는 전적으로 교육부의 책임이 굉장히 큼니다. 진작에 이 검정심사를 할 때 국회에서 지적됐던 이런 모든

문제들이 사전에 검정 과정에서 다 걸러졌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빛을 보이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국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시민단체가 관심을 가지는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여러 가지 감수예산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적절한 검정체제에 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늦었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한 수정명령은 필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교육부가 수정명령을 내린 부분, 특히 북한과 관련된 잘못 기술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 주변국가와의 관계에서 잘못 기술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고쳐질 수 있도록 교육부가 어떻게 최선을 다할 것인지에 대한 단기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거는 혼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 혼이 있는 민족이 되는 데는 역사교과서가 기반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같이 이렇게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황이고 주변국가의 역사적인 도발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남북 간에 관한 기술이나 주변국가 간에 관련된 기술은 무엇보다도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김희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걸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그에 대한 조사 내용을 빠른 시간 내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위원** 이 부분은 상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예, 김태년 위원님!

○**김태년 위원** 김태년 위원입니다.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관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지요. 이게 제대로 검정이 이루어졌으면 이런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전적으로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관께서 책임을 통감하고 어떤 입장을 취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누차에 걸쳐서 자료 문제와 관련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국회가 자의적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제 근절할 때가 됐다, 철폐를 내릴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헌법에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데 국회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관계입니다. 자료제출 거부를 아주 그냥 임의대로 합니다. 무시로 해요.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대면서 자료제출 거부를 하는데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법령에 근거해서 행정행위를 하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자료제출 요구가 아주 멋대로, 행정부 마음대로, 정부 마음대로 이유를 대 가지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와 행정부 간의 문제예요, 이게.

합당한 법령에 근거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행위 이걸 앞으로 좀 위원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근절하는 대책을 위원들하고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추가하겠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올해 일자리, 민생 이런 거 하면서.....

김희정 위원님, 제가 발언하는 데 방해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희정 위원 예산심사와 관련해서는 예산.....

○김태년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민생해결 운운하면서 추경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각 부처마다 불용할당액을 내려 가지고 불용을 지시하고 있어요. 이것 완전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 유감을 표시 아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세입 추계를 잘못된 것도 모자라 가지고 헌법 제54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 예산심의권 이것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위헌행위를 하고 있어요.

국회가 심의하고 확정된 예산을 정부가 마음대로, 임의대로 지출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것 완전히 국회 예산심의권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국회가 예산심의 하면 뭐 하겠어요? 교육부 8500억, 문체부 2375억, 지금 두 부처만 확인된 불용요구액이 1조 1000억에 달해요. 무능한 정부가 내년 가서 국회 싹 무시하고 예산 제멋대로 가감해서 집행해 버리면 국회 예산심의가 무

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다 요식행위가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자료를 좀 달라 했더니 문체부 아직도 제출 안 하고 있어요. 국회가 심의하고 의결한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쓰이지 않았다면 어떤 부분이 어떤 이유로 쓰이지 않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 헌법에서 부여한 국회의 당연한 권한이고 권리지요, 의무이고.

그런데 지난 11월에 문체부가 기재부에 세입·세출 절감안을 제출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2375억 원 불용을 기재부가 요구했는데 문체부가 940억 불용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어떤 사업을 얼마만큼 불용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안 줘요. 이걸 봐야 뭘 좀 심의를 해 볼 것 아닙니까?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언론에도 나고.

○위원장 신학용 김 위원님, 올해 예산 얘기하는 거지요?

○김태년 위원 그렇지요, 올해 예산. 이것 문화재청도 마찬가지예요. 불용예산액 얼마인지 자료 제출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임의대로 하실 겁니까?

○위원장 신학용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문화재청도 기재부에 제출한 하반기 국고자금운용 세부추진계획안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학용 그것은 제출할 수 있겠지요?

○김태년 위원 문체부도 빨리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위원님, 저희는 오늘 아침에 드렸습니다. 아직 위원님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태년 위원 아니, 이게 열흘 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건데 이걸 왜 안 줘요. 왜 여기 상임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하게 만드느냐는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학용 알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박홍근 위원님.

○박홍근 위원 우선 위원장님과 두 간사 위원께

요청드립니다.

저는 교과서 문제가, 이번 주에 교육부에서 최종적인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다음 주 초반 중으로 이 교과서 문제 관련된 현안질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내용적인 부분은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양당 간사께서는 교과서 문제 관련된 긴급현안질의를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꼭 일정을 잡아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두 번째,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과 관련하여 야당 교문위원들이 국회법에 따라서 지난 국정감사장에서의 허위 증언을 가지고 위증죄 고발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떤 조치도 있지 않습니다.

첫 자리에서부터 말 바꾸기, 거짓말로 일관했고 또 과란을 일으키는 문제성 발언도 했고 그리고 자질 면에서도 우리 국사편찬을 총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책임질 분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그동안 누누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과 간사 위원들께서 유영익 위원장의 위증죄 고발 문제가 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이 부분은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예산담당 서기관이 저희 의원실에 와 가지고 정말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장관께 이 세세한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마는 중복물이에 대해서 마치 중복이 칭찬이고 과거에 학생운동이나 또 진보 입장에서 보면 그게 칭찬이다 이런 얼토당토않은 발언,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내가 중복이어서 그렇다’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발언을 해서 제가 이걸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려다가 오늘 일단은 장관이 있는 자리에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 예산심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원실에 찾아와 가지고 이런 황당무계한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교육부 공무원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과 간사님들을 통해서 이후에 엄중하게 이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그 경위를 조금 소상하게 적어

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유은혜 위원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불법 홍보물 관련해서 지난번에 요청한 자료인데 그것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지금 된 게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 신학용 진짜 그 문제는 조사를 다 해서 주기로 했는데……

○교육부장관 서남수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신학용 예.

○교육부장관 서남수 지금까지 회수된 것은 전부 166건이 회수가 됐는데요,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그보다 더 많은 걸로 예상이 되는데 왜 회수나 이게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했더니 그게 ‘학교장 앞’이나 ‘위원장 앞’ 이렇게 해 가지고 유인물로 배달이 됐는데, 많은 학교에서는 그런 것이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오면 그냥 행정실에서 이게 별로 적합한 게 아니다 그러면 그대로 폐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왔는지조차도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그냥 자체적으로 그렇게 폐기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보관하고 있거나 폐기조치 했다고 명시적으로 보고한 기관은 166개 기관이라는 말씀을……

○유은혜 위원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한 불법성 여부나 그리고 그것을 만든 단체에 대한 조사나…… 그 단체가 정부 예산을 받고 있는 단체인데요, 지난번 우원식 위원께서 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이후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까지를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장관님, 지금 그것만으로는 안 되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런데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지금 그런 것을 배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지침으로 내려 보냈을 때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학교 관계자들이 그렇게 교과서 채택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내부지침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침……

○유은혜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그런 것 만들어서 학교에 다 뿌려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 차원에서는 학교에서는 그런 것이 교과서 채택에 영향을 안 미치도록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긴급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유 위원님 또 질의시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계속하기로 하고, 이게 저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도 했지만 여기에 의원 몇 분이 그 안에 포함되면서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했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해서 예산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지까지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박혜자 위원님, 간단히……

○**박혜자 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물론 교과서 수정작업을 놓고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첫째는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수정지시를 내린 안이 있지요? 그런데 그 수정지시를 벗어나서 또 다시 수정지시를 내리는 것은 절차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미래엔 교과서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자유민주주의 실현과 발전’ 이게 제목이 상당히 부정적이다라고 해서 인식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로 고쳤느냐 하면 미래엔이 가령 ‘이승만 독재와 4·19혁명’을 ‘4·19혁명’으로 고쳤어요. 그렇지요? 이승만 독재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입니까? 저는 굉장히 당연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고치라라고 하는 예시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운동’ 이게 사실관계하고 다릅니까? 5·18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우리가 확인된 것만 해도 198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피로 얼룩이 안 졌습니까?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부정적인 겁니까? 사실관계 왜곡입니까? 다시 재 수정지시를 내리면서 이것 고치라고 한 의도가 뭐예요? 5·18 때 사람 안 죽었어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 부분에서……

○**박혜자 위원** 사실관계 왜곡이에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요, 사실관계 왜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자 위원** 그런데 왜 고쳐야 되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런 표현이 학교 교과서에서 쓰이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박혜자 위원** 5·18 민주화운동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반성해야 될 가장 큰 것은 정부가 국민을 향해서 총을 쏘았다고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 정말 정권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처절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그 반성을 담고 있어야 된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교과서의 그게 사실관계 왜곡도 아닌데 이것까지 고치라고 재수정지시를 또 내려야 되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절차상으로도? 내용으로도 맞지 않고 절차상으로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요.

○**박혜자 위원**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장관님께서 앞으로 국정교과서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검정제도를 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현실적으로?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검정교과서라고 하는 것의 취지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과 해석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런데 이 ‘피로 얼룩진 5·18’에 대한 것도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검정교과서의 취지에 과연 맞는 것이냐?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박혜자 위원** 이게 처음부터 수정지시를 내린 사항도 아니라는 얘지요.

그런데 재수정지시에서 또 다시 이것까지 문제로 삼아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장관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학용** 박 위원님,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시간을……

○**박혜자 위원** 그러니까 교과서에 대해서는 수정하실 수 있어요, 수정 요구할 수 있는데 또 다시 재수정까지 해서 사실관계 왜곡 사항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장관의 마인드 또 교육행정을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육부 서남수 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존경하는 신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교육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민자사업한도액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2014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경감,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구축 등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국가 재정여건하에서 정부가 애써 마련한 교육 분야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부문별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과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키워 주는 창의교육 지원, 장애학생 교육여건 확충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고등교육 부문은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등 대학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충하고 지방대학 특성화 분야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대입전형 간소화 등을 실천하여 공교육 정상화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고등직

업교육 중심 기관으로 전문대학 육성, 100세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등에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신학용 위원장, 김희정 간사와 사회교대)

예산안 개요 12쪽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은 금년보다 2273억 원 감액된 32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서울대 농생대 목장 이전에 따른 토지 매각 등으로 2279억 원 감액한 3225억 원을, 특별회계 세입은 6억 원 증액된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2014년도 세출은 총지출을 기준으로 금년보다 5397억 원을 증액한 54조 366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5172억 원 증액한 50조 3114억 원, 기금은 225억 원 증액한 4조 5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부문별 주요 사업 예산 및 기금 편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금년보다 2304억 원 증액한 41조 45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지원 등에 88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해 법정 의무지출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금년보다 2313억 원 증액한 41조 293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해 창의인성 교육 확산 및 교육기부 활성화 지원, 융합형 창의 인재 양성 등에 2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고등교육 부문은 금년보다 8908억 원 증액한 8조 45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고등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BK21 플러스 사업,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등에 금년보다 496억 원을 증액한 1조 558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술연구 역량강화를 위해 인문사회 기초연구, 인문학 진흥방안, 한국학 진흥방안, 사회과학 연구지원 등의 인문사회 분야와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구축, 일반연구자 지원 등의 이공학 분야 연구력 향상에 66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누구나 공평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국가장학 제도 기반조성은 금년보다 5561억 원 증액한 3조 71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특성화고 장학금 2010억 원의 지방비 이양 등에 따라 금년보다 2126억 원을 감액한 53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직업체제 구축을 위해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세계로 프로젝트, 선취업 후진학 시스템 구축 등에 395억 원을 편성하고 국제교육 협력 증진을 위해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 등에 8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립국제교육원 지원을 위해 국제교육 교류협력 활성화, 재외동포 한민족 정체성 확립 사업 등에 835억 원을 편성하고,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가 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육성, 학교기업 지원 등에 31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본부 및 소속기관 인건비, 교육정보보호 사업 등의 예산으로 금년보다 76억 원 증액한 100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부 소관 2개 기금의 2014년도 운용 규모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0조 4955억 원과 사학진흥기금 4355억 원입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과 정부지급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BTL 한도액은 786억 원으로 금년 대비 172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2014년도 BTL 정부 지급금 규모는 금년 수준인 413억 원으로 국립대 기숙사 건립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201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교육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교육부가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재원입니다. 아무쪼록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보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정 교육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장관님 나오셔서

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존경하는 신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체육관광부의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기초 및 주요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는 행복한 국민, 신뢰받는 정부라는 정부 예산편성 방향에 따라 문화융성 구현을 위한 분야별 핵심 과제에 중점 투자하는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장 및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생애주기별·수요자 맞춤형 문화복지 사업을 확충하였습니다. 기존의 문화·여행·스포츠관광 3개 이용권을 단일화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과 학교·사회·지역대상 문화예술교육과 토요문화학교 사업, 장애인들과 이주민들을 위한 함께누리 지원사업 등에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의 생활 속 문화참여가 일상화되고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문화 향유기반 조성사업을 중점 강화하였습니다.

지역 유희시설을 활용한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산업단지·폐산업시설의 문화재생 사업과 함께 영화상영관이 없는 기초자치단체 대상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 등을 새롭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핵심 과제로서 창의력과 상상력의 토대를 마련할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박물관·도서관 등을 활용한 길위의 인문학 사업, 다양한 지식정보 제공 및 선진국 수준의 도서관 장서 확보를 위한 우수도서 선정 및 보급 사업은 물론 국민 독서문화 증진 등에도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인 창작안전망 및 예술창작 지원 확대입니다.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를 위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사업은 그 지원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하였으며, 공연예술단체 대상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및 연습공간 임대 지원사업 등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고부가가치 창조경제를 선도할 콘

텐츠·관광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콘텐츠 부문은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창작으로, 창작이 창업으로 연결되는 콘텐츠코리아랩을 본격 운영하고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펀드 조성을 통한 투자 활성화와 더불어 음악산업, 게임산업, R&D 투자 등을 증액 편성하여 한국형 창조경제 육성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관광 부문에 있어서는 국내외 관광수요 및 관광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광두레,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를 새롭게 추진하고, 고부가 융복합 차원의 의료관광 및 크루즈관광 사업의 확대와 관광산업 융자 예산 증액을 통해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육 부문에 있어서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참여시스템 구축과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스포츠·체력인증제 도입·종합형 스포츠클럽 육성·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사업 등을 확대 편성하고 동계스포츠 육성 및 국가대표와 후보선수의 체계적인 육성 사업에도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부는 지역경제발전 및 국민관광수요 충족을 위한 광역 관광자원 개발, 국제경기대회 성공적 개최 지원, 국가브랜드 제고 및 한국문화 확산 도모에도 지속적인 사업실행과 재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예산안은 2321억 9100만 원으로 금년도 1896억 4400만 원보다 425억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의 356억 1700만 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기금 수입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6개 기금수입 합계 총 3조 1411억 9600만 원으로 금년도 2조 6298억 9400만 원보다 5113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합한 지출재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출금 등 내부거래와 기금 여유자금을 제외한 실제 지출규모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재정규모는 4조 3383억 8000만 원으로 2013년 4조 1048억 2400만 원 대비 2335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4434억 3100만 원, 광역지

역발전특별회계 6613억 5800만 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788억 7800만 원 합계 2조 2836억 6700만 원으로 2013년 2조 2201억 4100만 원보다 635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규모는 2조 547억 1300만 원으로 2013년 1조 8846억 8300만 원보다 1700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총지출규모는 1875억 6400만 원으로 2013년 1223억 3600만 원 대비 652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화발전기금입니다. 총지출규모는 1015억 2800만 원으로 2013년 1088억 7600만 원 대비 73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신문발전기금입니다. 총지출규모는 108억 3100만 원으로 2013년 113억 7000만 원 대비 5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진흥기금입니다. 총지출규모는 227억 5500만 원으로 2013년 239억 3200만 원 대비 11억 7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총지출규모는 8738억 8000만 원으로 2013년 6916억 5100만 원 대비 1822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총지출규모는 8581억 5500만 원으로 2013년 9265억 1800만 원 대비 683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지출재정안의 소관별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무 지원에 종교문화기반 구축, 종교문화시설 건립 등 528억 6400만 원, 문화콘텐츠 진흥에는 대중문화콘텐츠산업과 게임산업,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 등에 3453억 1200만 원, 저작권 지원에는 저작권 보호활동, 저작물 이용 유통환경 조성 등에 53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디어산업 진흥에는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출판산업 육성, 신문산업 진흥 등에 1154억 5800만 원을, 문화여가 진흥에는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확대, 지역·민족문화 진흥 등에 2370억 7800만 원, 예술진흥 지원에는 예술창작 역량강화, 문화예술교육 등에 4061억 4200만 원, 관광 진흥에는 기금 융자, 외래관광객 유치, 관광산업 육성 등에 1조 2397억 9000만 원, 체육 진흥에는 생활체육 육성, 전문체육 육성, 스포츠산업 육성 및 국제교

류 등에 9814억 5800만 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문화중심도시 조성 등에 1788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4개 소속기관 지원에 3857억 3200만 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에 27억 9500만 원, 기타 인건비, 기본경비, 기관운영에 266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문화융성 구현을 위한 핵심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재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가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정책사업과 당면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청은 청장직무대행을 맡고 계신 박영대 차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직무대행 박영대 존경하는 신학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숭례문 복구 등 문화재 관리 문제로 국민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소중한 문화유산이 제대로 관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의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문화재돌봄사업 등 예방적 관리 확대, 사유지 매입, 발굴 지원 확대 등 문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 완화, 국립무형유산원 등 무형문화재 전승 기

반 강화, 궁능원과 문화재의 활용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과 문화재보호기금을 합한 총계 재정에서 전출금 등 내부 거래와 여유자금을 제외한 실제 지출 재정 규모는 6030억 5900만 원으로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 6148억 1600만 원보다 1.9%, 117억 57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국립무형유산원 건립 완료, 광특사업 지자체 신청 미달, 건설 사업과 지자체 보조사업의 집행 상황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중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908억 3300만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98억 2800만 원을 합한 5006억 6100만 원으로 올해 5083억 원보다 1.5%, 76억 3900만 원이 줄었으며, 문화재보호기금은 1023억 9800만 원으로 올해 1065억 1600만 원보다 3.9%, 41억 1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주요 부문별 사업 내역은 문화재 정책 기반 구축 및 교육 연구 245억 4900만 원, 총액계상사업인 문화재 보수·정비 2238억 원, 무형문화재 등 문화재 보존 관리 514억 7400만 원, 궁능원 보존·관리 496억 9500만 원, 국제 교류 및 문화재 활용 703억 7200만 원 등이고, 광특회계는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98억 2900만 원이며, 문화재보호기금의 주요 부문별 사업 내역은 예방적 관리 등 문화재 보호 718억 7900만 원, 문화재 조사·연구 231억 6300만 원, 문화유산 보존 및 민간 보존 역량 강화 등에 73억 56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완료 사업은 황새마을 조성, 오대산 사고전시관 건립, 국립무형유산원 건립 등 3개 사업 183억 2000만 원이고, 2014년도 신규 사업은 직제 개정에 따른 인건비 및 기본경비를 분리한 것과 궁궐 활용 프로그램 개발, 살아 숨 쉬는 서원·향교 만들기, 구 대한제국 공사관 복원, 사직단 복원 정비, 세종대왕 역사전시관 건립 등 5개 사업, 159억 7000만 원을 내역 사업으로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93억 1200만 원으로 올해 269억 8100만 원보다 8.6%, 23억 31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궁능 관람료 수입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문화재청은 위원님들의 문화재 행정에 대한 정책 제언과 고견을 정책 수립 및 재정 운용 과정

에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이 온전히 보존·전승되고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청이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는 준비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정** 문화재청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교육부 소관의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해서는 임진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수석전문위원 임진대입니다.

2014년도 교육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주요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세입예산안은 전년도와 동일한 12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에 1만 5000명이 응시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나 금년의 사례에서 보듯 국가영어능력시험 응시 인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2014년 세입예산안에 편성한 12억 원은 과다 계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외동포 교육운영지원사업은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등 재외동포 교육기관을 지원하고 해외에 한국어를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 예산안은 63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국학교에 시설비를 지원할 경우 자체 대응 투자와 국비 지원 비율이 학교별로 상이하여 학교 간 형평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국학교 국비 지원의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사업은 새 교육 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는 디지털 교과서 개발비 11억 5000만 원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보급사업은 2014년에 국정도서는 초등 5·6학년의 각 2개 과목을 개발하고, 기 개발된 디지털 교과서는 초등 3·4학년

등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나 선행되는 서책 교과서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2013년도 예산으로 개발 중인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여 향후 수정·보완 작업이 수반될 수 있고, 2014년 상반기에 교육부가 2015년 이후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적용 방안을 발표할 예정임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신중한 추진이 요구됩니다.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 동안 진행될 BK21 플러스사업은 총 2974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BK21플러스사업 중 미래기반 창의인재 양성사업은 2013년 9월 1일부터 사업이 시작되어 2013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 2277억 원 중 상당액이 내년도로 이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14년 예산안에 금년과 동일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출연사업은 학자금 대출에 따른 ICL 채권이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2014년 예산안은 19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CL 채권이자 지원 예산에서 ICL 군복무 이자면제 지원 예산만큼은 중복되므로 ICL 채권이자 산정 시 ICL 군복무 이자면제 지원 예산 전액을 차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중 셋째 아이 이상 장학금 명목으로 1225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소득분위 기초부터 8분위에 속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1유형과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중복 분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1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안은 41조 2932억 원으로 교육부 일반회계 예산안의 8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1조 4728억 원은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특별교부금은 국회의 구체적인 심의 과정 없이 책정되는 총액 예산과 비슷하게 운영되므로 우리나라 교육의 기본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초·중등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생교육 관련통계 조사사업인 평생학습 개인실태 조사사업은 2~3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충분한 표본 크기를 확보하지

못하여 시·도 단위 등의 다양한 분류 지표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지 못하고 전국 단위 통계만 생산하고 있어 통계의 유용성과 활용성 측면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격년제로 실시하되 시·도 단위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총조사에 포함하여 5년에 한 번은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용한 통계 생산을 위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입니다.

회관운영사업은 2014년도에는 공단이 보유 중인 5개 회관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28억 4000만 원 지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관운영사업의 수익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고 일부 회관은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회관 운영 및 이용자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어 있지 않아 교직원의 복지 향상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기도 곤란한 실정이므로 회관운영사업이 기금 증식이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으면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민간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학진흥기금입니다.

사립대학회계시스템 구축사업은 사립대학에 표준화된 정보 시스템을 구축·보급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에는 이미 개발된 예산회계 시스템과 연구행정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구축할 예정이나 실제 대학들의 호응도는 낮은 편이므로 합리적인 사용료 책정 및 지속적인 시스템 질 관리를 통해 대학들이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김희정 임진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겠습니다.

박명수 전문위원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수 전문위원 박명수입니다.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14년도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은 대부분 지방비 확보 지연, 계획 변경 등의 이유로 예산 집행이 부진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사업비 규모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사업에 2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100억 원 수준의 출자 규모가 바람직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콘텐츠 업계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콘텐츠공제조합 사업비가 2014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펀드 출자금 200억 원 중 100억 원은 콘텐츠공제조합 사업비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저작권교육 및 홍보사업은 국민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교과서 집필진이나 교원 대상의 연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현행 사업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예술인창작안전망 구축사업에는 예술인 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창작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161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2013년 11월 기준 실 집행률이 44%에 불과하고, 동사업이 2013년에 신규 추진되어 지원 방식에 대한 사후 평가가 수행된 바 없다는 점에서 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째, 생략하겠습니다.

일곱째, 체육국 일반회계 사업들이 연례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이관되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체육국 일반회계 사업에서 총 679억 3100만 원의 5개 사업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이 중 전국체전시설 건립, 국가대표선수 양성, 국제대회 참가사업 등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금 이관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4년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으로 1381억 9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부지 확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이 신규 내역 사업으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부진으로 인한 예산의 이월 또는 불용이 우려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 기반조성사업의 2014년 예산안은 1036억 8500만 원으로 2013년 대비 60억 1500만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연례적 집행 실적 부진에 대한 국회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전 행정 절차 이행 지연 등 집행 부진 가능성이 남아 있는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 감독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입니다.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예산안은 44억 7900만 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시아문화창작공간 내 게스트하우스 조성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미반영됨에 따라 당초 계획된 스튜디오 공간을 줄이고 게스트 룸을 증설할 계획이나 핵심 기능인 스튜디오 공간은 종전대로 유지하고, 민간단체 입주 사무 공간을 축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개 기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2014년에는 민간 예술단체 지원 사업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일원화하기로 함에 따라 사업 예산이 2014년 1875억 원으로 2013년 대비 약 53%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기금의 수입계획안을 보면 증액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체수입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수입 대비 적정 사업 규모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영화발전기금입니다.

영화제작지원사업은 2014년 편성된 제작지원비의 67.8%인 25억 2000만 원을 상업영화에 주로 지원하는 한국영화 적립식 지원 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영화발전기금이 국민의 법정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공적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업영화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예술영화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작지원비 편성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

면, 조사연구 연수교육 사업에 따른 언론진흥재단 디플로마 해외연수과정은 지역언론인의 전문성 제고라는 당초 계획과 달리 지역신문사 간부 등의 기관 방문 및 견학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사업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언론진흥기금입니다.

NIE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NIE 활성화를 통한 읽기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학교 NIE 교육을 위하여 NIE 교육용 신문 구독료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성이 인정됩니다만 지역신문발전기금에서도 학교 NIE 교육용 지역신문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과다한 지원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 지원사업은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및 인바운드 여행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나 해외 공연로드쇼 사업의 공연 상품화 실적 등 성과가 미흡한바 사업 추진 방식 개선 및 예산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2014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수입계획안은 22.7% 증가하나 사업비 지출계획안은 7.8% 감소하여 수입 증가에 의해 확보된 재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등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공자기금 예탁금 증가는 체육 분야 사업비를 축소한다는 의미인바 증액 및 신규사업의 규모에 따라 공자기금 예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청 및 소속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임금을 검토한 결과 직종별로 동일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되는바 임금 책정기준을 수립·시행하여 임금 등의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연례적으로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비의

시급성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보수·정비 사업 대상을 선정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셋째,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 사업과 관련하여 카이네틱댐에 대한 협약서는 기술평가 결과 항구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암각화 보존과 대체수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원점에서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시적으로 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바 동 사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김희정 박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 아시다시피 오후에는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차 질의 시간은 추가 시간 없이 7분으로 하고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서면질의로 하시는 것도 본질의 하시는 것과 동일한 효력으로 소위에서 심사를 할 예정이니 시간을 꼭 지키시고, 다 못 하신 질의는 서면으로 구체적인 액수를 적시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면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재정 위원 자료제출 요구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정 예, 배재정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십니까.

○배재정 위원 교육부장관님께……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제출 요구를 하셨을 텐데, 교과서수정심의회 위원을 추천한 단체 명단 및 해당 단체가 보낸 회신 공문 사본, 해당 단체가 추천한 단체별 위원 수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정심의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수정심의회 위원 선정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도 교육청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수요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수요조사의 질문지 사본 및 수요조사 현황 제출해 주

시고요.

그다음에 문화부장관님, 예총 결산보고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정 자료제출 건에 관해서도 가급적 오늘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고, 만약에 부처로부터 협조가 없을 경우에는 양당 간사에게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민주당의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위원 인천 남동을 출신 윤관석 위원입니다.

먼저 유진룡 문화부장관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제적인 중요한 행사, GCF 사무국과 월드뱅크 한국사무소 개소식이 인천 송도에서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윤관석 위원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 송영길 인천시장 그리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윤병세 외교부장관 또 국제적인 인사들까지 총출동을 했던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인천과 수도권에 이런 GCF 사무국과 월드뱅크 유치 그다음에 아시안게임이 내년 9월부터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시너지로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와 미래가치 육성의 큰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경기대회 지원에 대한 문제가 예산으로는 그 의지가 반영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주경기장 건설에 800억을 신청했는데 현재 411억만 되어 있고, 제가 여러 차례 질의를 드렸습시다마는 추가 요청 389억이 기재부에서 삭감이 돼서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과거에 24% 반영, 30%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렇게 과거의 부대의견에 얽매여서 눈앞에 있는 좋은 기회에,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에 차질을 줄 이유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반영되고 있지 않은 389억이 반드시 30% 수준으로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 정말 의지를 담아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아시다시피 부대

의견에 지금 기속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도 국회에서 풀어 주신다면 저희는 뭐 적극적으로 그것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예,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장애인아시안게임이 바로 열립니다. 그런데 장애인아시안게임에 대한 예산도 현재 236억을 했는데, 이 부분도 처음에 예산 올린 것이 너무, 당시에 급하게 조직위가 구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상승 내용이라든지 대회 규모가 증가하고 각종 필수사업 예산이 다 빠진 상태에서 올라가서 증액요청을 했고, 그런데 그것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운영비만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현재 반영에서 빠져 있는 비용인 총 236억 중에서 기존 한 107억을 빼면 128억이 지금 필요하다고 얘기되고 있는데, 이것을 얘기해 보면 정부 측에서 어떤 분들은 ‘아시안게임 때도 장애인대회가 열립니까?’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그러나 우리가 런던올림픽이 있고 바로 패럴림픽이 있어서 감동을 줬었는데, 장애인들의 사회통합에 대한 어떤 유인 효과보다 이렇게 하나의 국제대회에서의 감동적인 연출을 통해서 또 대회를 통해서, 선수들의 모습을 통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의지를 갖고 계속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답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아시안게임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회에서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장애인아시안게임은 잘 알겠습니다만 사실상 경기종목이나 선수, 임원 규모는 본대회와 같은 수준이고 오히려 세부 경기종목은 일반 경기종목의 2배 이상 많고 또 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담당 부서에서, 장관께서 꼭 노력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승훈이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세례를 받은 조선인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천시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의 역사체험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청소년에게 한국 근대의 서막의 역사체험의 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돼야 되는데 현재 뭐 종교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반영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서로 판단을 달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반영 노력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판단해 주신 대로 따르고 결정되는 대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국회에서 판단하고 추진할 테니까 해당 부처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윤관석 위원** 우리 교육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계교육회의라고 아시나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2015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교육올림픽 이게 우리나라에 유치가 됐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렇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교육회의는 여기서 열리면, EFA 연례회의의 성과를 토대로 약 10년 주기로 종합평가 및 새로운 의제를 설정하는 대규모 교육올림픽이라고 불릴 정도로 교육계에서는 큰 국제회의인데, 이게 유치가 됐고 90년 태국·2000년 세네갈에 이어 세 번째로 유치되는 회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 어젠다 설정에 중요한 회의인데 현재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보니까. 13년도에 준비 과정에 2억 타고 나서 14년도의 예산안으로 현재 8억 5700을 올렸는데 전혀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실 생각이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래서 기재부가 이 국제 행사 유치 계획 심사를 했는데 그 승인이 좀 뒤늦게 났습니다. 11월 달에 났기 때문에 예산안에 포함시키지 못했는데 이것은 꼭 그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도와주시면……

○**윤관석 위원** 유네스코 세계교육회의 결정 자체가 늦어져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심사 반영이 안 돼서 안 됐다는데, 국회에서도 이것을 철저하게 쟁겨 볼 테니까 굉장히 중요한 교육대회이고 해서 해당 부처에서 적극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관석 위원** 박근혜정부에서 반값등록금 공약을 하고 또 셋째아이 등록금 지원사업에 대한 공약도 2개가 있었는데, 사실상 중요한 것은 반값등록금을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 쪽 얘기이긴 하지만 약 7조 정도 있으면 반값등록금 한다는 건데, 현재 정부의 장학금 지원은 한 3.5조 그다음에 대학에서의 올해 수준 유지를 전제로 한 게 한 3.1조 하면 6.6조 규모인데, 왜 또 이 셋째아이 지원을 하려고 1225억을 따로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의 출산 효과에 대해서 제가 국감 때도 얘기를 했었고 서면질의도 여러 차례 넣었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전혀 검증할 길이 없는 상태에서 한쪽에, 반값등록금의 재원으로 철저히 책정을 해서 진행하면 될 것을 그것도 부족한 상태에서 또 셋째아이 정부 장학금 지원으로 뻥 이유가 됩니까?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기본적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을 조사를 하면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비가 과중하다 하는 쪽에……

○**윤관석 위원**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맞지만, 대학까지 가려면 20년 걸리지 않습니까? 20년 후에 연간 450만 원의 등록금에서 장학금 좀 받으려고 자녀를 더 낳는다, 이게 20년 뒤에……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효과가 좀 없다고 보고, 반값등록금으로 단 일화시켜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국가가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관석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공약 이행의 건수 늘리기 위한 사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정** 윤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호영 위원** 3개 부처에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마는 제한된 시간에 제 의견을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대부분은 서면질의로 대신할 테니까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의견을 내 주시고요.

먼저 문화부에, 지금 문화재정 2%가 공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주호영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참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예산정책처에서도 지적을 해 놓았습니다. 증액이 되기 전에 구체적으로 정책이 제시돼서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국감에서도 요청을 했지만 문화재정 2%가 되면 지금 예산보다 수조가 늘어나는데 ‘어디, 어디에 이게 필요합니다’ 하는 마스터플랜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재정당국을 설득할 수가 있으니까 장관께서 역점을 두고 ‘이런 데, 이런 데 꼭 필요합니다’라고 그 수요를 미리 좀 잘 다듬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주호영 위원** 그다음에 정부가 법상 의무지출을 하게 되어 있는 비용이 매년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46%에서 2017년에 51.7%로 증가되기 때문에 문화예산처럼 법정지출이 아닌 임의지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매년 11.7% 가까이 증가돼야 되는데 실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이것을 빨리 좀 틀어야 되지 않을까, 현실적인 계획으로 좀 수정을 하고 그래야지 ‘이것 이행 가능합니다, 지키겠습니다’ 이러

다 보면 매년 체면이 말이 아닌 상황이 생기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좋은 지적이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이것 한번 정비해서 가지고 공약이지만 도저히 이행이 불가능하면…… 이것도 또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인 걸 전제로 했는데 그 조건들이 다 안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정비해 주시고, 세부적인 항목도 중요하지만 재정분배 회의에서 설득력 있게 이것을 좀 많이 타 내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지역축제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올해부터 축제예산에 대한 원가공개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강화하기로 한 건 아주 잘된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또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최소의 예산으로 지역축제에, 전부 정비하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야 할 텐데 이 예산도 어디에서 좀 반영을 해 봐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주호영 위원 국제체육경기대회 지원 예산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2015년에는 4600억 정도 되도록 되어 있고 체육진흥기금 전체 지출 중에서 대략 한 35%를 차지하는데 2015년에는 45%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도 사실은 1500억 이상을 세이브할 수 있는 것을 낭비한 요소도 있고 이러니까 이것도 좀 철저히 챙겨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주호영 위원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저는 이것은 출자예산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뜻은 상당히 좋은데, 지금 글로벌콘텐츠코리아펀드라는 걸 계획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전혀 진행이 안 돼요. 결국 국고만 내놓고, 민간 투자를 유치한다는데 전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거의 유사한 펀드가 진행이 안 되는데 새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예 ‘이 위풍당당코리아펀드 그냥 말은 이렇고 국비 내에서 하겠습니다’ 이러면 몰라도 ‘이것을 씨앗으로 해서 민자를 유치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동일한 사업이 안 되고 있는 마당에 다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도 좀 제대로 준비를 해서 차라리 안 되면 글로벌콘텐츠코리아펀드라도 좀 제대로 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은 총액이 나가겠습니까 마는 이것도 지금 2년째 대답은 하시는데, 무형문화재 그 자체로써 경제적 수입이 있고 잘되는 분은 조금 삭감을 하고 지원해 주지 않으면 전승이 끊기는 데 좀 차등화를 해 주십시오.

새로 받는 분은 좋아하겠지만 삭감되는 사람은 저항이 있을 테니까 정책 하기에 어려운 면이 없지 않을 텐데, 실제 무형문화재 중에는 아주 수입을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똑같은 지원은 필요 없으니까 저항이 있더라도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국가대표선수 수당이 하루에 4만 원인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5200원이어서 8시간 근무하면 4만 1000원인데 실제 선수층에 있으면 8시간 이상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보다도 적어요. 거기다가 이것도 1년 열두 달을 다 계산해 주지 않고 또 일곱 달인가만 계산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 좀 많이 올리십시오.

올리는데, 1만 원씩만 올려도 19억이 더 증가된다 해서 좀 부담은 있겠지만…… 아니, 국가대표로서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하드한 트레이닝을 하는데 최저임금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 좀 내년에 당장 고치도록 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주호영 위원 다음에 교육부, 최근에 주일대사관 옮기는 과정에서 관동대학살 자료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동대지진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의 연구가 참 미약해요.

동북아재단에서 올 12월에 연구서를 하나 내기는 하는데, 보면 새로운 자료에는 “쇠갈퀴로 개잡듯이 학살하고 죽창으로 복부를 찔러……” 뭐 이려고, 일본 헌병이 총살에 가담한 예도 있어서 일본정부 차원의 범죄로도 갈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물론 외교 관계상 결끄러운 점을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용서는 하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게 원칙 아닙니까? 잊지 않는다는 것은 진상을 찾고 그것을 교육시키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동북아역사재단에 예산을 좀 증액을 해

줘서 이런 것도 시의성이 있기 때문에 자료가 발굴됐을 때 제때 좀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도 됩니다. 꼭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구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유기홍 위원님이 많이 주장을 하셨습니다마는 고전번역에 관해서 지금 제도로 하면 승정원일기 같은 경우는 99년이 걸리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하는 번역요원들 보면 계약직 비율이 29%이고 외부 역자 비율이 57%인데, 이게 안정이 안 되고 계약직이고 외부에서 들쭉날쭉 해서 어떻게 품질 좋은 번역이 되겠습니까?

고전번역이라는 게 어찌 보면 동양학이라든지 한학에 대해서 정통한 대학자급이 해야 되는 건데 이분들이 다 이직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실제 월급이나 이런 것도 많이 올려 주고 인원도 좀 대폭 확대하세요. 이게 99년에, 어느 세월에 하겠어요?

하고, 지금 이 번역이라는 게 한문세대가 번역할 역량이 있을 때 번역을 해야지 지금 한문교육이 끊긴 지가 오래돼서 앞으로는 역자를 양성하는 데도 엄청난 노력이 듭니다, 10~20년 지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릴 때부터 본격적으로 한문 안 배운 사람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나머지는 모두 서면질의로 대체할 테니까 좀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희정** 주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당의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년 위원** 김태년 위원입니다.

2014년도 교육부 예산안 보면 참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예산으로 국회 심의를 하라는 건지 참담합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교육예산 증가율이 한 6% 정도 됐었지요? 그런데 내년도 교육예산 증가율이 1%입니다.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태년 위원** 또 이 1%도 겨우 증가했는데 이것도 고등교육에서 한 12% 정도 증가했기 때문이고 유·초등부 부분은 0.6% 증가하고 평생직업 부분은 28.6%가 오히려 감소를 했어요.

유·초등부 분야는 교사 인건비 상승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은행 추정 물가상승률이 2.5%이고 인건비 1.7% 인상, 이게 한국은행 발표인데 이것을 고려하면 지금 사실상 0.6%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예산 아닙니까? 사실상 마이너스 예산이잖아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태년 위원** 교육부 어떻게 이끄시려고 그래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이것이 저희가 지방교육재정.....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유·초등부는 아예 교육감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건가요, 지금?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요,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부금 증가액이 한 2300억에 불과한데 앞으로 취득세율 인하에 따라서 지방소비세 확대로 교부금 외에 한 4000억 정도.....

○**김태년 위원** 이따가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7%인데 지방소비세 늘어나봤자 8~25% 이것 논의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매칭되는 게 시도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지방세에서 넘어가는 것은 서울시 10%, 경기도 같은 경우는 5%밖에 되지 않아요. 그만큼 감소를 하고 있는 건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교육예산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늘었으니깐 근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인상하자, 법 바뀌어서” 하셨는데 장관님 이것 할 때마다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소위에서도 그렇고 예결위, 아주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렸고 지적을 했는데 “모자라는 것 전부 다 국고보조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내내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고보조가 되고 있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난해하고 금년도에 내국세 징수가……

○**김태년 위원** 국가재정이 어렵다 지금 이 말씀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태년 위원** 그런데 국가재정이 어려운데 가장 예산 따기 어렵다고 알려진 데가 원래 문체부 아닙니까? 그런데 문체부는 10.5% 증가했어요. 그리고 정부 전체예산 증가율이 4.6%잖아요. 교육예산만 1% 증가예요, 교육예산만.

박근혜정부는 교육에 관심이 없나요, 아니면 장관이 무능해서 그런 건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지방교육재정이 내국세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 제일 타격을 입는 게 저희 지방교육재정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요. 세수가 부족해서 세수가 줄어서 타격을 받았으면 다른 대책으로 보완을 해야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래서 지금 재정당국하고 계속 협의를……

○**김태년 위원** 협의해서 지금 올라온 게 이 예산안 아니에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런데 뭘 또 협의를 해요? 협의를 다해 가지고 올라온, 지금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이것 아닙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저희 구조상 경기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국내 경기가 좋아지면 저희 교부금 예산이 다른 부처 예산보다 더 많이 오르게 되어 있고요. 또 경기가 나빠지면 다른 부처보다 낮게끔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예산으로 시·도 교육청이 살림 할 수 있겠어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래서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것으로 한 4000억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재정 효율화라든지 내부적인 방안들을……

○**김태년 위원** 어느 자리에서나 똑같은 답변이신데 교육부가 기재부에 요청했다가 삭감당한 예산들 중에 국정과제만 놓고 보더라도 무려 32개 사업에서 4조 4300억 삭감당했어요. 국정과제 예산 누리과정 1조 6000억, 초등 돌봄교실 6900억, 고교 무상교육 5000억 이 3개 국정과제만 보더라도 한 2조 8000억 정도 이것 단 1원도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래 가지고 공약 지킬 수 있겠어요? 2017년도에 고교 무상교육 완성한다 이 계획 갖고 계셨지요? 그런데 이것 불가능해진 거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일단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것을……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완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불가능해진 것 아닙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당초에 계획 자체가 도서벽지부터 시작을 하면 재원이……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순서대로 해서 2017년도에 완성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게 공약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불가능하게 된 거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것을 좀 늦게 시작하더라도 당초에 목표로 했던 2017년도에……

○**김태년 위원** 완성한다는 얘기입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태년 위원** 느닷없이 내년도에 우리 재정 상황이 아주 좋아집니까?

이건 의지의 문제예요. 의지를 세우고 의지를 갖고 구조를 바꿔줘야 되는 문제인데 의지도 갖지 않고 똑같은 방식으로 재정계획을 세우면서 내년에 갑자기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2017년도에 완성한다? 어떤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요.

누리과정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전부 다 국고보조로 해결하겠다” 작년 예산 심의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1조 6000억 요청했다가 다 삭감당했는데 이것 장관이 직을 걸고 못 하겠다고 버티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누리과정을 못 하겠다’가 아니고 ‘이 교육부 재정으로는 못 하겠다’ 이렇게 버티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산당국에 계속 저희가 어려움을 설명을 하고……

○**김태년 위원** 이게 처음부터 계획 잘못 세워 가지고 시행령 바꿔 가지고 시행하는 바람에 지금 바로잡기가 아주 힘들게 되어 버렸어요. 처음에 예산 심의 때도 논란이 되었지 않습니까? 복지부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든가 아니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하자 우리 교문위에서도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아무 것도 실현이 안 되고 예산만 딱 깎여 가지고 왔다

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국고보조로 해결하겠다’ 올해 국고보조로 이게 해결되었습니까? 안 되었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이것 안 된다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로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장관 똑같은 대답 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대답이에요.

그리고 왜 법적 근거 없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냐고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교육예산과 관련된 법률 근거를 다른 부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한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해결하는 게 맞아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을 해야지요. 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가지고 엉뚱하게 법률적 근거를 만들려고 하세요? 다 이런 것 아니에요? 이것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까는 위원님께서 좀……

○**김태년 위원** 공약을 했으면 지키려고 노력을 하든가 못 지킬 것 같으면 누군가가 책임지고 사과를 하든가 양단간에 뭔가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약은 공약대로 안 지키고 의지는 의지대로 없고 예산은 다 잘려서 오고 대한민국 교육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의지를 갖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정** 김태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이에리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에리사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지난번에 국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체육재정이 자꾸 기금화가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금년에 와서는 현격히 더 많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문체육의 경우는 100% 다 기금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지적을

드렸는데 어떻게 대안이 있으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솔직히 특별한 대안은 없고 지금 재정당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리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장관님, 이 문제를 사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문체부 쪽에서의 국가대표라 하면 사실 국가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기금화가 된다면 과일로 얘기하면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을 때는 돈이 좀 괜찮고 안 열리면 어렵지 않습니까?

기금이라는 게 토토기금에서 오는 것인데 그게 사실은 인정된 도박입니다. 거기에서 국가대표선수들을 양성하는, 먹고 자는 수당하고 대회에 참가하고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100%의 예산을 앞으로 한다고 했을 때 국가는 이 국가대표선수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으로밖에 안 들리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총체적으로도 가치관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이것은 사실 꼭 해결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협의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산 세입에 대한 인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 관광기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재정당국에서 세입에 대해서 지금 저희랑 인식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당연히 기재부의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태릉선수촌 운영비, 국가대표선수들 먹고 자는 문제,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문제는 저는 일반회계에서 되어야 된다는 정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꼭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안 되면 이걸 체육인들의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알겠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우리 초등학교의 스포츠전담교사 문제가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문제입니다.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해서 사실은 100%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을 잡아서 강사비를 지급하다가 그다음에 5 대 5로 지급했고 7 대 3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 2014년도에 8 대 2로 했을 때 교육부가 안고 있는 부담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것을 저는 문체부가 그래도 교육부보다는 조금 나은 입장이니까 잘 검토를 해서 최소한 금년도 수준이라도 좀 유지해서 교육부의 무상교육이니 뭐니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그런 부담을 조금 덜어주면서 초등학교 전담교사도 사실 문제지만 스포츠강사가 원활하게, 그들이 지난번에 집회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수당 문제가 적절히 해결될 수 있도록 문체부가 교육부와 협조해서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1년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고요. 우선 그것부터 해결하고 예산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가는 그다음에 또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예리사 위원 이 부분이 지난번에 국감 때 유은혜 민주당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은 강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사들의 처우 문제랑 계약기간의 문제, 그 열 달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문제까지 좀 잘 살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또 국립체육박물관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려움은 있는데 문체부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이것을 이번에 많은 체육인들이 갈망하고 열망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번에 용역비 2억이 잘 반영되어서 정말 훼손되어 가고 있는 체육문화가 잘 보존되고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알겠습니다.

○이예리사 위원 문화재청에 제가 지난번 국감 때 말씀드렸는데 태릉선수촌이 내년이면 48년이 됩니다. 그래서 근대문화유산이라든가 우리의 가치가 남아 있는 게 태릉밖에 없기 때문에 등재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이 잘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잘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서 지혜롭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장직무대행 박영대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예리사 위원 장관님, 그리고 수어하고 농어

로 해 가지고 제가 수어기본법을 발의를 했는데 그것을 사실은 농아인들의 많은 요청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첫발을 떼려면 그것을 시작할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지금 제가 보니까 한 4억 5000 정도로 되어 있는데 원활하게 그들도 이제는 장애다, 복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의 사람으로 우리의 국민으로 인정받고 출발하고 함께 누릴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하는 데 그 예산을 잘 반영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예리사 위원 하다 보니까 교육부장관님, 지난번에 한 번 대통령께서 동북아역사교과서 공동작업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사실 예산이 동북아역사재단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보니까 독일하고 프랑스로든지 다른 동북아역사재단처럼 공동으로 역사교과서 작업을 하는 데는 몇십 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데 단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잘해서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잘 알겠습니다.

○이예리사 위원 지난번에 제가 연구재단에다가 체육사전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느냐 하면 항목이 토대기초연구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 2억 정도만 해 주시면 정말 체육사전이 역사적으로 잘 나올 것 같은데 첫발을 내딛을 수 있게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할 수 있도록 장관님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어쨌든 부처에서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 체육이 이제는 예전의 그냥 체육 하나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체육과 스포츠, 체육에서도 각 영역별로 전공별로 다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체육사전이 나오는 것도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관심을 갖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예리사 위원 그다음에 제가 국감 때 말씀드렸는데요. 예체능 계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우수장학금 신설을 좀 해 주십사 했습니다. 예체능 계열의 학생들이 제일 많이 대출받아서 등록금을 내고 있는데 사실은 졸업하고 다시 반납하는 거는 제일 늦습니다. 그래서 인문사회 계열이 0.3%인데 이걸 다시 인문사회 정도로 배정해 주시면, 사실 꿈과 끼를 살리는 우리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예체능 계열을 좀 배려를 해 주면 어떨까 싶은데 교육부에서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 주시지요.

나머지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정 이에리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기는 한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전에 우리 김상희 위원님하고 현영희 위원님까지만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당의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희 위원 질의하기 전에 간단한 자료 요청만 하고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우리 교육부장관께서는 수정명령 단계에서는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서 검정 절차상 교과용도서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상희 위원 그랬는데, 지금 수정심의회에서 그대로 수정명령까지 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교육부에서 법률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검토가 있었고 또 그 검토 결과 내용과 이것을 결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김태년 위원 지적도 있었지만 교육부 예산이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교육부 예산을 보면 마땅히 지켜져야 될 대통령 공약은 전혀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공약은 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또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 공약인 셋째 아이 대학

장학금 1225억 원의 예산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것이었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셋째 아이 이상 장학금 신청 학생 수를 보면 소득분위 기초부터 2분위까지는 국가장학금 1유형에서 겹쳐지는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상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또 문제가 되는데, 지금 최소 소득 9~10분위의 셋째 이상 대학생에 전액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대상자의 몇 %가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 신청 대상자의 21%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소득의 대학생들이 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히 10분위의 학생들을 보니까 지금 1만 6311명으로 해서 15%나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8분위 이하만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지금 그렇게 변경을 할 생각입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게 변경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셋째 아이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변경하려고 하시는 것처럼 이 장학금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히려 국가장학금 1유형에서 장학금의 액수를 높여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장학금 설계상으로도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소득층의 학생들에게 아주 유리한 장학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그런 식으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50대 이상 학부모들의 학생들에게 이게 지금 적용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지금 새롭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에요.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출산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말하자면 지금 새로 출산을 하는 그런 연령층의 부모들에게는 앞으로 20년 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

에 그것을 보고 출산을 결심하게 되는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장관님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히려 누리과정 지원하는 데에 이 예산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싶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장학금 1유형의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저는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그냥 공약이라 그래서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저는 이것은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게 장관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렇게 수정을 해서, 저출산 문제는 누리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대학생들의 그런 등록금 문제는 장학금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접근해서 예산을 다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런데 위원님……

○**김상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요 특성화 전문대학교 100개교 육성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기존의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고, 그 전에는 학교별 지원 예산 30% 이상을 자율 선정한 특정 학과에 사용하도록 했는데 특성화를 유도할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100개교를 지금 선정을 해서 전체를 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전체가 한 130여 개 대학이 있기 때문에……

○**김상희 위원** 130여 개인데 그중에 100개교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문대 링크사업과도 상당히 중복적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과 전문대 링크사업 부분은 나름대로의 어떤 차별성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육성사업은 더더욱 기존에 디자인됐던 것하고도,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사업의 특성화가 되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런데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 지금 정말로 구조개혁의 대상이 집중적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특성화해서 육성시키지 않으면 전문대학들이……

○**김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대학 100개

교 육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대를 육성을 하되 구조조정되는 데들은 제외하고 육성한다 이런 뜻입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도……

○**김상희 위원** 저는 이런 방식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러니까 대학 단위로도 구조조정이 될 거고 대학 내부에서도 자체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요. 전문대학 학생들 기준으로 보면 4년제 대학의 학생들에 비해서 일인당 국가 지원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보면요, 대학역량 전반을 평가하는 것하고 링크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산학협력 역량평가와 이게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평가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00개교 육성사업과 그리고 전문대 링크사업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 다르지가 않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는데요.

특히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공약사항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지켜야 될 공약사업인데 관련해서 전혀 처우 개선이 하나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서 2000억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을 냈으니까 심의 과정에서 같이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 회계직원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희정** 김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영희 위원** 현영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원 양성 기관인 교육대학교를 재정적으로 살펴보니 너무 열악하고 정말 우리 가장 중요한 초등교육이 이렇게 열악해서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열악한 중에서도 첨단교육실습 지원사업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안이 6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상임위원회에 미상정이 돼 있더라고요. 한 학교당 1억은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현영희 위원** 그거 5000만 원 주겠습니까? 지금 특히 실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해서서 6억을 증액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전체적으로 국립대학교 자원관리시스템 구축도 지금 사실은 교육대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느 대학보다도 소규모인데다가 교사들의 수가,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지금 이것도 40억 원을 상정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 또 미상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재정 부담률을, 그 대학 자체의 부담률 60%에서 한 20% 정도로 낮춰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주에 다 모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부산교육대학교를 알아보니까요 지금 전산시스템을 89년도에 설치해 놓고 아직 한 번도 그거를 손을 대지를 못했더라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이것 좀 심각한 수준이다. 지금 내구연한이 5년이지요? 그런데 이미 89년도에 설치해 놓고 아직 손을 안 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하고요. 좀 더 교육대학 쪽의 교육 여건이 개선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영희 위원** 제가 교육대학교에 관심 가지고 초등교육을 살펴보니 너무나 열악하고 총장님들은 교육부에다가 제대로 말씀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영희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부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술의전당을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술공연 기획사업 이런 걸 통해서 비고유사업 중심의 경영구조를 개선을 하는 그런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10억을 단계적으로 25년을 기준해서, 아주 쉽게 말해서 10억을 한 번만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예술지원사업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중요합니다.

○**현영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그대로,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살려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현영희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몇 번 태릉선수촌 스케이트장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김연아 선수도 소치올림픽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현영희 위원** 지금 사실 제가 이번 기회에 전국에 좀 잘 돼 있다는 스케이트장을 좀 보러 다녔었습니다. 한 여섯 군데 정도 봤는데 태릉선수촌이 제일 형편없어요.

국가 선수를, 지금 여기서 연습을 해야 되는 이런 선수촌에…… 오늘 뉴스도 잠깐 보면 김연아 선수가 좀 아 가지고 연습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하는 그런 뉴스를 제가 접했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난번에 예산을 좀 줬는데 제대로 공사를 못 했더라고요. 한번 이번에는 확실히 좀 밀어 주고 또 소치도 있지만 우리가 다음 동계올림픽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장 금메달을 기대하는 것은 빙상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현영희 위원** 스키도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스케이트나 스피드나 피겨, 지금 이것밖에 금메달을 기대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물이 위에서 떨어져서 구멍이 생기는 그런 일은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둘러보고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도 꼭 좀 살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 선수촌에서 요구하는 대로, 더 요구도 안 합니다. 10억도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반구대 암각화 있잖아요? 이번에 보면 81개 공룡 발자국이 추가로 더 많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현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에 카이네틱댐을 설치하는 예산이 68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공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 부분을 문화재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거 합니다마는 지금 카이네틱댐을 설치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용역을 준 사람이 또 이것을 설치를 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청장님?

○문화재청장직무대행 박영대 새로운 기술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현재 공룡 발자국도 발견이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기술평가위원회가 기술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영희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유네스코에 등재를 할 것이다’ 했거든요. 그때 국정감사 때 제가 포르투갈 예도 들었고 등제한 사실, 독일에서 실패한 예도 들었습니다. 이게 됐을 때 과연 등재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시설을 해 버리면 그다음에 다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을 보수를 하고 또다시 돈을 들여야 되고 또 새로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장직무대행 박영대 세계유산 등재는 대곡천 전반에 대한 등재이고요. 그중의 한 부분으로 반구대 암각화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술평가위원회하고 저희 문화재위원회에서 잘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영희 위원 아니, 이것은 내년에 돈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긴급보수비 7억 정도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댐 설치하는 예산은 좀 더 연구를 해서, 논의를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청장직무대행 박영대 그런 부분 충분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영희 위원 검토를 하십시오. 하고 예산 해 갖고 또 불용액 남기지 말고요.

○위원장대리 김희정 현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점심시간을 훌쩍 넘겨서까지 계속 참여해주고 계시는 민주당의 도종환 위원님, 그리고 배재정 위원님, 그리고 새누리당의 강은희 위원님, 이에리사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는 본회의 산회 후에 곧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회의가 끝나면 곧바로 이곳 저희 상임위원회장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학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은희 위원님 질의 시작……

○배재정 위원 자료제출 요구 있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자료제출 요구요?

○배재정 위원 예.

○위원장 신학용 예, 하세요.

○배재정 위원 교육부장관님, 지난번에 결산심의 때 제가 시간제교사 부분 질의를 좀 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좀 알려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시·도 교육청 상대로 시간제교사와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회의를 개최하시거나 토론회 하시거나 이렇게 하신 게 있으신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지금 시간제교사제도는, 전체 공무원에 시간제공무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학교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선생님들한테도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제가 여쭙어 본 것과 다른 대답을 하시는데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그런 토론회나 회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그 자료를 저희 방에 바로 좀 부탁드립니다.

○도종환 위원 저도 자료 요구……

○**위원장 신학용** 예, 도종환 위원님!
 ○**도종환 위원** 교육부장관님, 자료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까.
 금성출판사 집필진이 2008년 교육부를 상대로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를 해서 지난 11월 7일 최종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소송 비용 관련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까, 이 소송 관련 자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도종환 위원** 그다음에 수정명령을 했던 교육부 실무 관계자 명단, 이것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우원식 위원** (손을 들)
 ○**위원장 신학용** 자료제출입니까? 지금 질의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우원식 위원** 의사진행이요.
 ○**위원장 신학용** 예? 자료제출?
 ○**우원식 위원** 예, 자료제출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예.
 ○**우원식 위원** 아까 유은혜 위원께서, 제가 지난번에 ‘누구를 위한 역사전쟁인가’ 하는 유인물 배포 단체에 대해 조사한 걸 물어봤더니 자료제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유은혜 위원이 물어봤더니 답변을 제출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던데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보좌관에게 전달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원식 위원** 저도 받았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게 답변서인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저희가 일단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는 이게 답변 같지가 않아서 다시 답변을 요청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 매뉴얼은 일반 국민 대상이 아니므로 민간단체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동 매뉴얼은 뭐냐 하면 ‘교사 모임 등 인터넷이나 기타 수단을 통해서 출판사별 교과서 내용 분석표 등등 이렇게 해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답변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 매뉴얼이 일반 국민 대상이 아니므로 민간단체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출한, 그때 만든 유인

물에 대해서는 별 문제를 삼을 수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에다 문제 제기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답변이예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만든 지침 자체가 출판사라든지 학교 관계자라든지 교육 관계자들에게 교과서 채택과 관련해서 불공정행위를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지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만들 때부터 학교와 관계없는 일반 단체나 이런 데에서 그런 것을 할 것을 미리 상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든 매뉴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원식 위원** 그러면 정당이나 개인들이 교학사 교과서 채택하지 말라고 유인물 막 뿌리고 다녀도 괜찮아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원식 위원** 그것은 안 되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아무 매뉴얼이 없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소하지 못하고,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일반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그런 자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을 새로 방안을 만들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원식 위원** 이게 언제 문제가 되어서 조사도 정말 하지도 않고 답변도 엉터리로 한번 했다가 지난번에 제가 물어보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서를 저한테 만들어 주겠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검토가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여기 ‘교사 모임 등에서’ 이 ‘등’에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정당이나 이런 데서 교학사 교과서 쓰면 안 된다고 막 뿌리는 건 안 된다면서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교과서 채택과 관련해 가지고는 하여튼 외부의 영향을 받지 말고 학교에서 하라고 학교에 나간 그런 지침이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해서 어떤 기속력 있는 조치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웬 교수도 한번 그런 짓을 한 적이 있잖아요. 서울역에서 뿌리고, 그것도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하는데 엉뚱한 답변을 주고 지침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등’에 포함시키면 다 할 수 있는 일을……

○**교육부장관 서남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교과서 채택과 관련된 그런 게 왔을 때 전부 폐기하고 단속을 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교육부가 교육기관이나 출판사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어떤 지시나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제3자에 대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게 없어서 지금 저희는 교육기관에 대해서 그런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원식 위원** 제가 답변을 다시 요청합니다.

여기 답변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 매뉴얼은 출판사의 교원 및 학교운영위원 대상 금품수수 등 불공정행위와 교원의 특정 도서 간접홍보 예방 등을 위한 지침으로 일반 대상이 아니므로 민간단체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다는 건데 이 지침에는 ‘일부 교과별 교사 모임 등’ 등에 포함될 수 있고 ‘인터넷이나 기타 수단’ 기타 수단에 이 유인물 포함될 수 있고요. “을 통하여 출판사별 교과서 내용 분석 등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포함시킬 수 있는데 왜 포함이 안 된다고 답변하는지……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처벌할 거예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 문제 저희가 정말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거기서 설명드린 것은 지금 이미 그 지침이 시·도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나가 있는데 그 지침을 만들 때의 기본 취지는 출판사들이 교과서 채택과 관련해 가지고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데에, 그런 관점에서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라는 말씀……

○**우원식 위원** 보세요, 제가 요즘 을지로위원회 해서 공정거래법을 잘 아는데 공정거래법에 신고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이 되었던 관이 되었던 누가 됐든 다 법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이것이 공정거래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면 다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침에서도 ‘등’이라는 표현으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교과부가 너무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일부

어느 한 쪽만 너무 편을 들기 위해서 이렇게 협의로 해석하고 공정거래법도 너무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신학용** 우원식 위원님, 잘 알아들었을 겁니다.

○**우원식 위원** 답변 다시 해 주세요.

○**위원장 신학용** 여기에 대한 고심 지금 다시 한 번 생각……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 서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장관께서.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고민만 하면 안 되지요. 그 해결 방법을 빨리 만드셔서 가지고……

○**우원식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공정거래법이라는 법률은 그 대상이 누구든지 공정거래에 문제가 생기면 다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신학용** 예, 그것도 저도 또 알아보고요. 빠른 시간 내에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곧 아마 질의가 들어가고 그럴 겁니다, 다음번에도.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존경하는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입니다.

교육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방대학 육성사업에서 지방대학특성화사업에 3000억을 요구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1931억으로 감액 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역거점대학 육성사업은 전액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세계적 수준의 지방 명문대학 육성이라는 정책 수단을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봐서는 최소한 지역거점대학 육성사업만은 살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격차가 더 심각해지고, 다른 외국의 사례도 보면 일본이나 중국 등에도 지방대학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여러 가지 대응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점대학 사업이라도 최소한 100억 이상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은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 형편 때문에 반영이 못 된 것이어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을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어쨌든 지금 이렇게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격차가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깊이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과정을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도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하고 있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저희는 학습모듈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고용노동부에서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교육부나 고용노동부 양쪽에 예산을 떠나서 한 가지 부락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NCS 학습모듈도 그렇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직무 분야의 표준개발 목표가 현장에 있는 기업이나 현장 종사자들에 대해서 참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곁들 수 있다는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참여자들이 같이 투입이 되어야지 실제 기업에서 필요한 직무능력이 제대로 개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 좀 고려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학습모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지금 책정된 예산이 당초보다 많이 감액 조정되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 핵심 NCS는 개발되어 있는데 그 개발된 NCS를 양질이 아니라서 쓸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야당 지금 68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을 증액하지 않는다면 훌륭한 학습모듈이 개발되기 어려운 데 장관님께서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도 예산 단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확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부에서 내년도의 사업 부분이 좀 변형이 되어서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으로 바뀌고 있지요, 내년부터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런 셈입니다. 성격은 아주 다른 사업입니다마는 그렇게 바꾸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강은희 위원 성격도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전향적으로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사업비 자체가 당초 예정한 것보다 엄청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요구안이 1200억 정도 요청을 했는데 지금 410억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되었네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이렇게 되면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이 사업은 교육부가 만드는 입시제도의 틀 속에서 실질적으로는 대학이 입시요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고교교육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저희 생각에는 당초에 요청한 그런 규모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좀 더 실효성 있게 대학들을 고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은희 위원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출판인들의 사정이 사실 많이 좋지 않은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강은희 위원 지금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 달의 읽을 만한 책과 청소년 권장도서를 선정하고 발표해서 좋은 책 선정 사업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미미해서 1억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홍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증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온라인 서점에 대응해서 지역의 작은 서점들이 굉장히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책을 선정하고 홍보를 해 주고 하면 지역 서점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 반영해 주시면……

○강은희 위원 예, 그래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안 되더라도 실제 출판업계에 긍정적인 작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강은희 위원 그리고 문화재청장님!

○문화재청장직무대행 박영대 예.

○강은희 위원 아직 대행을 맡고 계시는데요.

지금 창의적이고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계속 하고는 있지요?

- 문화재청장직무대행 박영대 예, 그렇습니다.
- 강은희 위원 그런데 지금 3D 첨단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문화유산 콘텐츠 계속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콘텐츠를 새롭게 구성하고 있는데 질적인 면에서 조금 효과 있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산 문제보다도 실제로 이 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동시키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문화재청장직무대행 박영대 예.
- 강은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어린이 이용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왕 만들어지는 콘텐츠라면 같은 비용으로 전체가 공유할 수 있고 관람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청장직무대행 박영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학용 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존경하는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윤덕 위원 전주 완산갑 김윤덕 위원입니다. 문체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께서 창조경제를 말씀 많이 하셨는데 맞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 김윤덕 위원 얼마 전에 경북 안동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으로 안동을 발전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랬어요.
- 제가 문체부에 ‘창조경제와 관련된 문체부 예산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아니요, 몰랐습니다.
- 김윤덕 위원 문체부 재정담당관실에 제가 ‘문체부의 창조경제 관련 예산이 뭐냐?’ 질문을 해서 가져온 게 8개 사업입니다.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콘텐츠공제조합 설립 지원, 국내외 연계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온라인소통 활성화, 매체 활용 정책 홍보, 선진도서관 및 미래지향 서비스 환경 개선 이렇게 해서 8개 사업을 가져왔습니다.
- 그러니까 창조경제 관련한 신규 사업은 1개도 없는 것이고요. 기존 사업에서 8개를 가져왔고 그중에 하나는 예산이 없습니다. 7개 사업이고요,

예산 사업은. 그 7개 중에서 예산이 증가한 것은 총 3개입니다. 나머지는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소통 활성화, 매체활용 정책 홍보 이것처럼 제목만 보고 창조경제 사업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사업들이 증가가 되었고요.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이런 창조경제 사업이다 이렇게 딱 느낌이 오는 것은 감소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지금 저희들이 달라고 한 예산인데요, 이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김윤덕 위원 자료 그러면 이게 부실 보고가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죄송합니다.

○김윤덕 위원 문체부 차원에서 창조경제와 연동된 사업이 어떠한 것인지는 이런 것이 정리된 바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저희 내부적으로…… 창조경제와 직접 관련된 사업을 규정하는 것은 없었고요.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창조경제의 방향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님께 낸 사업 아이템들이 지나치게 좁은 범위에 있고 어떤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창조경제에 해당되지 않는데 잘못 낸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윤덕 위원 장관님, 창조경제가 우리 대통령께서 제안한 중요 사업지표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을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 이것도 맞는 얘기겠지만 보다 구체적인…… 그렇지요? 창조경제라고 하는 범주 내에서 어떻게 문체부에서 움직여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있고, 주요 사업 이렇게 마련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들은 주로 콘텐츠 쪽에 있는 사업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 많고요.

○김윤덕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사업을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김윤덕 위원 ‘전체적으로 문체부 예산을 창조

경제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두루뭉술한 답변 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그다음에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문화 관련 예산…… 저하고 장관님 이랑 문화재정 2% 문제 갖고 많이 싸웠는데요. 총 280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그런데 따져 보니까 관광산업 용자 예산이 2300억입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김윤덕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 중에 몇 % 될 것 같아요, 증액된 것 중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취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은 허수가 있습니다.

○김윤덕 위원 장관님, 현재 정부에서 문화재정이 2860억 원이나 증액돼 문화재정 2% 달성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언론에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2300억이 호텔 짓는 데 용자하는 데 된 겁니다. 그렇지요? 뭔가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 안 드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윤덕 위원 그러니까 새 정부에서 정말로 문화융성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지표로 삼고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 현재 문화 예산 관련해서 2800억이 증액됐는데 그중에 호텔 그게 그런 비중을 가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내가 보니까, 문체부에서 편성해서 기재부에 올릴 때 호텔 이 예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니다.

○김윤덕 위원 제가 보니까 3300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김윤덕 위원 그래서 5200억으로 증액됐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다 기재부에서 증액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김윤덕 위원 제가 볼 때 지금 문체부 예산이 말이 안 됩니다. 호텔 용자 예산,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너무나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호텔을 용자하는데, 지금 현재 메디텔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시행령에 그것 바꿔 넣었지요, 그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김윤덕 위원 그런 여러 가지 제반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전체 예산 큰 흐름 속에서 지금 문화예술기금 고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김윤덕 위원 그다음에 지역신문발전기금 지금 전혀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김윤덕 위원 호텔 용자 사업 2000억만 삭감하면 그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금액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윤덕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김윤덕 위원 제가 볼 때는 문체부에서 처음 편성해서 기재부에 올라갈 때는 없었던 예산입니다. 기재부에서 정말 신규사업 하나 올리기가 어렵고 예산 증액 하나 하기 어려운데 호텔 용자 사업만큼은 몇천억이, 문체부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기재부에서 증액된 겁니다. 그것 삭감만 하면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체부 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점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윤덕 위원 문화융성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현재 문화융성위원회 위원들이 전원 비상근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비상근입니다.

○김윤덕 위원 그런데 문체부에서 제안한 예산서를 보니까 위원회 사무실 임차비, 사무보조원·운전원 인건비, 사무실 비품 구입 해서 전체 11억 7000만 원 예산 중에서 9억 2000만 원이 다 그 예산입니다. 비상근 위원들이 사용할 방, 차, 기사, 비품 그리고 사업예산이라고 들어가고 있는 것은 문화융성 국민공감대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다 홍보성 예산이예요. 용도가 필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문화융성위원회 자체는 비상근이지만 그 융성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위원회 말고도 다른 국민대 통합위원회라든가 청년위원회 같은 경우는 훨씬 인원도 많고, 지원 인원도 많고 예산이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제가 볼 때는 문화융성위원회가 사실상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융성위원회를 설치한 이후에 아까 예산상 큰 흐름을 기대했지만 문체부 예산에 큰 변화가 없어요, 사실상. 호텔 짓는 데, 2800억 중 81%가 호텔 관련 증액 예산입니다.

현재 이런 추세로 볼 때 문화융성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활발히 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안 될 뿐더러 더군다나 비상근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공간에 11억 7000만 원 중에서 9억 2000만 원씩 지급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손해다, 더군다나 저희들이 듣기로는 문체부 직원 5명이 상근해서 지원 업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체부가 대전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렇다면 저는 대전에 설치하는 게 오히려 더 맞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학재 위원** 문체부장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강조하는 의미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국비 지원과 관련해서인데요. 국제경기대회에서 경기장 등 시설비 국비 보조율이 30%잖아요. 그런데 지난해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은 24%만 지원하기로 예결위에서 결정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안 짓는 걸로 했다가 나중에 짓기로 했고 그다음에 일부 사전 보조가 들어간 게 있기에 때문에 24%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재 위원**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천시에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왕 민자로 한다든지 개발이익으로 해

서 국비를 안 받고 하는 그 방법을 포기하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걸로 결정을 했으면, 만약에 국비 지원이 안 되면 결국은 인천시비로 나머지를 충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시장의 개인 월급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한테 건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인천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에서 정책 결정을 잘못된 걸 가지고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또 인천이 지금 재정 위기다 해 갖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30%로 타 지역과 형평성 있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인천 재정 사정도 그렇고 아시안게임이 1년도 안 남은 그런 상황을 볼 때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 점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적극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재 위원** 예, 그다음에 조직위원회 운영비와 관련되어 갖고 지금 정부에서는 총운영비를 3445억으로 산정하고 조직위에서는 5454억 원으로 산정을 해 갖고 차이가 많은데 뭐가 맞나요, 장관님 보시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서로 지금 인천시에서 산정하는 금액과 기재부에서 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학재 위원** 많이 나는데 실제로 정부 예산액 중에서 문체부 안 자체가 인천의 조직위원회에서 요청한 안하고 같은 걸 보면 지금 문체부에서도 인천의 안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기재부에서는 부족하면 일단 인천에서 선투입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자 이려고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게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이학재 위원** 그런데 우리 속담에 외상은 소도 잡아먹는다고 알아서 쓰고 나중에 갚아 줄게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도덕적 해이가 올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천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재정 상황이 어려운데 이것을 알아서 쓰고 나중에 갚아 줄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문체부에서도 그렇게 인천에서 산정한 안이 맞다고 하면 우선 거기에 짜임새 있게 예산을 내려 주고

인천에서 아껴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국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합의를 해 주시면 저희로서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학재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측면에서…… 이것은 좀 다른데,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 운영비와 관련해 갖고 지금 대회 조직위에서는 1027억이 필요하다고 했고 기재부에서는 599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문체부에서 실사한 결과는 그 중간쯤 되거든요. 877억 원이 적절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모자라다면 일단 빚내서 써라 이렇게 기재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체부에서 나름대로 아껴 쓸 수 있는 그런 적정 대회 운영비를 산정을 했으니 까 이 부분도 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테니까요 잘 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학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부장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해에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했잖아요. 그리고 올해에 시범운영도 했는데 예산액이 얼마가 필요한가요, 지금?

○교육부장관 서남수 저희가 119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국고 예산안에 반영이 못 됐습니다.

○이학재 위원 반영이 안 된 이유는 뭔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재정 형편상 어렵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국고보다는 지방비 쪽으로 하라는 그런……

○이학재 위원 그런데 교육국제화특구를 몇 개의 지자체, 이렇게 결정을 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 지역은 교육국제화특구에 맞는 그런 지역 발전을 하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정을 해 놓고 또 당초에는 국고를 반영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 냈다가 이제 와 갖고 이걸 지방비로 하라고 하면 이 사업 자체가 무색해질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국고 예산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국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학재 위원 상임위에서도 열심히 또 예결위에서도 노력을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재 위원 마지막으로 세계교육회의가 2015년도에 개최될 예정인데 예산이 없어도 이게 가능한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산이 필요합니다. 내년 에 한 9억 가까운 예산이 필요한데 개최 결정이 예산 편성 후에 이루어져서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은 반드시 편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학재 위원 이게 얼마 안 되고, 채 9억도 안 되고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도에 9억을 편성 하지 않으면 1년을 허비하게 되는 거니까 제가 생각해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학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학용 이학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후 위원 위원장님, 자료 관련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와 관련한 자료를 교육부에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11월 13일 날 열렸었던 이의심사실무위원회 참석자 명단과 회의록 이걸 요청했는데 주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 명단이나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이런 내용들을 삭제한 회의록이라도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불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위원장님,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와 관련한 이의 제기들이 계속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걸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더더욱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시겠어요?

(신학용 위원장, 김희정 간사와 사회교대)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평가원하고 바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후 위원 이게 특별히 평가원에서 제출하

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끝났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국회에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고 완전히 사그라든 것도 아닌데 자료제출을 하지 않겠다면 이것은 더더욱 큰 의혹을 증폭시키지 않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진후 위원** 자료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근 위원** 그 자료는 저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도 좀 달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다 돌려야……

○**위원장대리 김희정** 정진후 위원님 질의 마무리하셨습니다?

○**정진후 위원** 아니요, 자료제출 요구는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정** 그러면 이제 질의 시작……

○**정진후 위원** 예, 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지금 올해 교육부에서 기재부에 요구했던 교육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깎였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깎였다기보다는 전체 재정 규모를 추계하는 데 서로 이견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정진후 위원** 너무 오래 걸리시는데,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재정 추계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하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산안에 포함된 것 외에 내년에 지방세에서 약 4000억 정도가 추가로 확보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방재정에 대한 절감분이라든지 또 특교에서 지원하는……

○**정진후 위원** 그 문제는 지난번부터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해 오셔서 과학적인 근거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육부가 재정 추계를 해 보셨는지 제가 몹시 의심이 들었어요. 올해 결산 내역 중에서 특별교부금에서 집행되었던 내역들, 이런 내역들에 대한 재정 추계를 어떻게 했는지를 봤더니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집행되면 안 될 금액, 이게 보니까 한 7319억 원 정도 나왔어요, 제가 해 보니까요.

국가시책사업이나 위탁사업으로 집행된 금액이나 국정과제 이행사업, 교육부 예산에서 교육청

으로 이관한 사업비 이런 것들이 한 50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청사나 학교 이전사업, 체육관 그다음에 강당에 투입된 공사비용이 한 2248억 원 정도 됐습니다. 합치니까 7300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특별교부금을 지금 100분의 4에서 100분의 2로 낮추면 7400억 정도의 비용이 교부금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지금 100분의 3 해 가지고 입법예고하셨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정진후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재정추계를 하셔 가지고 지방교육재정의 숨통을 터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누리과정 예산도 전부 다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거지요, 사실상. 지방채 발행해서 교육부가 그것을 상환 책임을 지는 건데 국가채로 전환하면 안 됩니까? 왜 굳이 지방채로 발행을 하게 해서 상환에 대한 책임을 교육부가 지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기본적으로 기재부의 판단으로는 경기가 좀 회복이 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그것을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확보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진후 위원** 지금 제가 받아 보니까 올해 한 해 교육청에서 발행한 지방채 총액수가 9753억이예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정진후 위원** 그리고 교육부가 지방채 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159억 원 정도 되지요.

지금 일부 교육청에서는 인건비 열두 달 치를 확보하지를 못해 갖고 일정한 인건비를 제해 놓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든지 교부금을 조금이라도 늘려서 지방교육재정의 숨통을 터 주려고 하는 노력을 교육부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런데……

○**정진후 위원** 특히 교부금으로 계속해서 몇 년째 지적을 받아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되는데, 그냥 100분의 3으로 이렇게 해서 한 3400억이나 3500억 정도 이 정도만 지금 해 주는 거고 그리고 그것도 2015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런데 저희 지금 추계로는 일단 금년하고 내년도에 내국세 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가지고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일

단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충당을 하고 그 부분을 2015년도 이후에 갚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정진후 위원 내수가 향상되지 않으면 내년도에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런데……

○정진후 위원 내년 예산에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보육과 유아교육을 합치는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는데 그건 다음의 문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재정추계를 하셔서 특별교부금의 형태를 자꾸만 교육부에서 움켜쥐고 계시려고 하지 말고 지방교육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특교도 결국은 지방으로 전부 가서 사용되는 돈이기 때문이에요.

○정진후 위원 물론 마찬가지인데 지방교육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또 일반예산 편성을 보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를 않아요. 제가 특교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특교 외에도 교육부가 기재부에 예산 신청해 가지고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그게 국가재정의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교육부의 노력을 과연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교직원단체 파트너십 형성기반 조성,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게 사실상 교육삼락회지요, 퇴직교장선생님들 단체?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정진후 위원 이 부분을 통해서 하는 거나, 교과용도서 개발비나 보급사업 그리고 제주영어교육센터 지원……

제주영어교육센터 지원하는 거 한 8억 7700만원 정도 되는 거, 이거 대상이 누구입니까? 거기에 거주하시는 정주민이지요? 그 정주민은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 거지요? 애들 국제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와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지역주민도 아니고…… 그분들은 이미 상당한 생활력과 학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거 특혜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해외의 교육기관을 유치해서 운영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지도감독 권한이 지역 교육청에 있는 건지 도에 있는 건지 교육부에 있는 건지, MOU 협약 내용도 구체적으로 파악한 단위가 아무도 없었어요. 이렇게 해 놓고 이런 예산 계속해서 투

여하고 지도감독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나 보완사항은 마련하지 않고, 그런 것들 보면……

제가 창의적 인재육성 관련 서면으로 제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지금과 같은 교육재정의, 교육예산의 어려움 속에서 과연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들이 정도예요. 그러면서도 지방교육재정은 계속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교육부의 예산 편성이 너무 안일하고, 너무 어렵다고 하는 데 비해서 결과가 전연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좀더 효율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책 간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감안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후 위원 하여튼 서면질의를 통해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예산 심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희정 정진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새누리당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世淵 委員 문체부장관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국감 때 제가 지적을 했던 사안에 연계가 되는데요. 영화·음악·공연 등 문화산업의 인프라가 될 수 있는 통계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공유하는 것이 문화융성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2004년부터 운영 중인 KOBIS, 즉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구축을 통해서 상당히 투명하게 입장권 수입이 공개가 되고 또 더 적절한 수익분배와 그리고 과제기반까지도 갖추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라인 상영관들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데 디지털 온라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투명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만 온라인 상영관들이, 실제 콘텐츠를 저장하는 웹하드 업체들의 경우에 매출 누락 등 제대로 지금 통계가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습니다.

○金世淵 委員 이런 데 대해서 12억 6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현재는 반영액이 그에 상당히 못 미치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좀……

○金世淵 委員 그리고 음악 로그정보 시스템 구축에도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음악 사용료 정산분배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 로그정보인데 지금은 음저협에 있는 서버를 임대하다 보니까 연간 10억의 임대료가 나가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습니다.

○金世淵 委員 그런데 여기에 관리자모드로 정보 접근이 다 되지 않다 보니까 투명하게 수입이 정산배분되는지 세 단체, 직접 서버를 갖고 있지만 음저협이나 음반산업협회 또 실연자연협회에서는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년도 13억 중에 10억만 반영되어 있는데 추가로 3억 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위원님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世淵 委員 예, 노력하겠습니다.

공연예술 통합전산망도 현재 5억 원만 반영되어 있는데 추가로 5억 원 정도가 있어야 좀 더 종합적인 통합정보 제공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습니다.

○金世淵 委員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바는 정부에서 민간사업자가 해야 될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즉 표준화된 정보가 쉽게 유통될 수 있는 포맷을 갖추어서 유형을 표준화해서 혁신적인 신규사업자가 항상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것을 민간사업자를 죽이고 들어가면서 정부가 뭘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립적인 정보제공자, 정보표준화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金世淵 委員 선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종학당이 괴테 인스티튜트(Goethe Institut)나 알리앙스 프랑세스(Aliance française)나 또 공자학당들과 비교해서 지나치게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가 양적인 팽창, 건수 위주로 가다 보니까,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님께서 그때 실제 현장 답사도 하신 바를 국감 때 말씀해 주셨지만 거의 창고 속에 들어가 있는 듯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수를 줄이더라도 질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갈 수 있게끔 같은 도시의 다른 경쟁국의 문화사업의 거점을 비교하면서 가되 현재 55억 7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되어서 147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시설 개보수비 등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金世淵 委員 그리고 예술상상개발사업이 현재 내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대도시들에서 산업단지가 노후화되거나 이렇게 유휴공간들이 발생할 때 이 부분들을 재생을 시키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산업단지나 폐사업시설의 문화재정사업의 하위사업으로 예술상상개발사업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모사업의 취지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자체 소재 예술공간들이 좀더 빠르게 확산되고 이미 기존 공간들도 잘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역사업을 세부사업으로 상향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世淵 委員 그래서 이것은 예산 증감과는 무관하지만 항목 분리를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金世淵 委員 다음, 교육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고사 등 역사기초연구회에 지금 투입된 예산을 보면, 역사 관련한 4개 기관과 한국연구재단까지 합해서 보면 상고사 비중이 너무 적습니다.

지금 역사전쟁 상태에 있다는 건 아시지 않습

니까?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왜곡에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한국사 연구 지원사업에 10년간 500억이 돼서 연간 50억씩 지원되고 있는데 다른 시대별 구분을 해서 볼 때 턱없이 부족한 내용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주변국들과의 역사전쟁에서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50억 원 전액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대폭 삭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世淵 委員**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사업에서 63억 원 정도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NCS 합성모듈의 개발단가가 6800만 원으로 그 10분의 1인 고용부의 NCS 개발단가 5400만 원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국정교과서 개발단가 1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데 현재 6800만 원 수준인 모듈 단가를 최소 1억 원 정도로 인상하면 63억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님 견해 어떠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金世淵 委員**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이 지금 당초 교육부에서 요청한 것보다 상당히 감액이 되어 있는데, 410억 원으로 잡혀 있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金世淵 委員** 그래서 600억 원 정도 증액을 해서 1000억 원 정도는 되어야지 교육부에서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대학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정책 선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시면, 이 사업은 한 1000억 이상은 되어야만 좀 더 제대로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金世淵 委員** 그리고 문체부장관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산중합촬영소 조성사업 부지조성설계비 50억 원이 필요하고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직장 어린이집 예산에 1억 5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 사항들은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世淵 委員** 그렇게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감사합니다.

○**金世淵 委員**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정** 김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당 도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종환 위원** 도종환 위원입니다.

교육부장관님, 기재부와 협의한 신규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에 기재부와 협의한 신규사업 내역을 받아 봤더니 총 14건의 신규사업 중에 예산안이 미반영된 사업이 8건이더라고요. 그중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사업이라든가 또 누리과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5건의 미반영 사유가 ‘초·중등 사업으로 교부금으로 시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5건의 신규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이 5건만 보니까 2조 8120억 정도 돼요. 이걸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돌리면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는 기재부에 대해서 이 부분은 국고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쪽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기재부에서는 여러 가지 국고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에서 그것을 담당을 해주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 시행 연도를 조정을 해서 내년도 이후에 2015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하고……

○**도종환 위원** 이게 고교 무상교육이라든가 초 등 방과후 돌봄교실 이런 것 다 국정과제로 들어가 있는 것들 아닙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이것 시정연설에서도 이 사업 대폭 강화한다고 강조하고 그랬던 것들인데 이게 국고에서 단 하나도 지원을 안 하면 국민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될 거라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그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사업 5025억 이것을 지금 당·정·청 협의까지 끝내고 할 수 있다라고 국민들한테 발표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9월 달에?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도종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래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적어도 그 사업만큼은 국고 지원이 전제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을 조정해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종환 위원** 잠깐만요, 황홍규 국장님 뒤에 배석해 계신가요?

○**교육부학생복지안전관 황홍규** 예.

○**도종환 위원** 7월 31일 날 YTN하고 인터뷰하신 적 있네요?

○**교육부학생복지안전관 황홍규** 예.

○**도종환 위원** 거기에 ‘무상교육이 어떤 내용이냐?’고 앵커가 물으니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학교운영지원비 다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답변하셨네요?

○**교육부학생복지안전관 황홍규** 예.

○**도종환 위원** 그리고 ‘그게 얼마 정도 드느냐?’ 그랬더니 ‘한 185만 원 정도 든다’고 답변하셨고요?

○**교육부학생복지안전관 황홍규** 예.

○**도종환 위원** 그리고 앵커가 청취자 질문을 가지고서 이렇게 물었어요. ‘영유아 무상보육도 처음에는 굉장히 기대를 했다가 결국 지자체가 돈 없다고 무산된 일들이 있고 말들이 많은데 혹시 이번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질문을 청취자가, 시민이 하셨어요. 그때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나 하면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답변하셨네요. 사실이지요?

○**교육부학생복지안전관 황홍규** 예.

○**도종환 위원** 국민들한테 교육부, 정부를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지킬 수 없게 됐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학생복지안전관 황홍규** 14년부터 하게 된다는 부분은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도종환 위원** 14년부터 매년 25%씩, 그다음에는 50% 이렇게 한다고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고 또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니깐 국민들도 정부를 믿었다가 그러다가 지금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번복이 되면 너무 무책임하게 말한 것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부학생복지안전관 황홍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앉으세요.

장관님, 국장님이 나가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185만 원씩이나 무상으로 한 가정에 가는 것은 굉장히 큰돈입니다. ‘교과서도 무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상세한 설명들을 하고 ‘이것 못 지키면 어떡합니까?’ 할 때 ‘그런 일 없습니다’까지 답변을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냥 ‘2015년부터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 또 안 믿거든요. 2015년도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장관님,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기재부하고 상의를 할 때 내년도 재정상황이 지금 예산편성 한 수준처럼 그렇게 상당히 악화…… 그 정도보다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서 정부 내에서도 그것은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추진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죽 되어 왔습니다마는 예산편성 마지막 단계에서도저히 내년도 재정 형편으로는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도종환 위원** 2015년 이후부터는 확실히 지킨다는 보장 이런 건 있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정부의 의지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아니, 이 의지는 지금도…… 국민들한테 얘기했다 안 지켜진 게 ‘15년에는 된다. 그때는 재정 상황이 나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15년부터 하여튼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을 조정해 하되 박근혜정부 임기 내에 추진한다 하는, 그것을 구축한다 하는 쪽으로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다음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지난번 대정부질문 할 때 총리께서 질문지를 사전에 다 받지 못해서 답변을 못 했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하셨잖아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도종환 위원** 그리고 또 장관께서도 그다음 날 열린 상임위에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질문할 줄은 몰랐다. 총리를 잘 보필하지 못해서 송구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도종환 위원** 그런데 사전에 우리 당의 보좌진들이 교육부 실무자들로부터 예산 설명 같은 것을 듣는 자리에서 이러이러한 질문을 할 거니까 자료 좀 제출해 달라고 공문까지 보냈어요. 이러이러한 것 문젯다, 그리고 교육부 국회 담당자한테도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요구서가 질문지다, 그리고 수정 보완이 어디까지 됐는지……

그 뒤에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질문했던 것 하나 하나를,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관련된 것 또 의병 학살에 관한 것, 수출인지 수탈인지 이런 것을 최소한 그러면 O, X라도 표시해 달라고 그랬어요.

이것 알아야지 질문하니까, 수정 보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부 질문지 하나 하나 다 O, X, 동그라미만이라도 표시해 달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전화도 안 받고 제출 안 했어요. 알고 계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게 아마 실무적으로 그 내용으로 질의하실 거라는 생각까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종환 위원** 아니요, 이것을 질문할 거니까…… 오잖아요? 일요일도 오더라고요, 뭘 질문할 건지 알려 달라고. 계속 오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도종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질문할 거다, 이게 수정 보완 사항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좀 알려 달라, 자료를 달라, 자료를 안 주고 전화도 안 받아서 그러면 O, X라도 표시해 달라고 그랬어요. 이것 전부 물을 거다. 됐는지 안 됐는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지만이라도 표시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답변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 보고받으신 적 없으신 거지요, 장관님?

내가 이것을 물을 테니까 표시해 달라고 그랬

는데 제가 답을 못 얻었어요. 자료도 못 받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이런 사유를 잊분들한테 말씀드리지도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고발조치 해야 되겠다고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대로 알려 주지 않으니까 제대로 보좌를 못 한 게 된 거잖아요, 결국은. 장관님, 전혀 모르고 계셨던 사실인 거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 당시에 하여튼 질의 예정인 것으로 죽 이렇게 한 것에 위원님 질의 내용은 확보가 안 된 것으로 계속 보고가 되어 가지고……

○**도종환 위원** 확보가 안 된 게 아니라 자료를 달라고 계속 이것을 보냈더니깐요, 공문도 보내고. 그다음에 이것을 보여 주고 정 안 되겠으면 O, X라도 표시해 달라고 끝까지 했는데도 이게 그냥 담당자들 선에서 묵살되고 만 꼴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책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교과서 수정 보완과 관련해 가지고 그 해당 부서가 굉장히 과로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대로 챙겨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정** 도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님 질의 중에 당장 2014년도 예산편성은 아니지만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향후 의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장관님 답변 중에 보면 이게 단순하게 대통령 공약사항이거나 국정과제의 여부를 떠나서, 잘 아시지만 원래 법대로라면 정기국회인 9월에 국회에 예산이 제출이 되고, 분명히 7월 국회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두 달 사이에 이렇게 큰 예산이 엮어졌다라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선거 때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가지는 시차하고 사실 저희들 국회에 중간에 보고하고 그로부터 곧바로 국회에 예산안 오기까지의 그 시차를 감안한다면 정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를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 제기를 당연히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말로만 ‘2015년도에는 하겠습시다. 믿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내년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계한 규모를 마지막에 제시를 하면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대폭 줄어든 추계 수치를 내놓으면서 거기에 맞추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최종 예산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저희도 굉장히 아주 유감스럽고, 사실은 저희도 앞에서 그것은 당연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죽 해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저희도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챙겨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하여튼 반드시 지키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정** 세부적인 수식이나 예산관리의 세부 계산법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아니라 주무부처가 더 중심을 가지고 확실하게 논리를 잘 세우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정** 계속해서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김장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실 위원** 김장실입니다.

유진룡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 7월 3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인천에서 세계휠체어농구선수권대회가 개최됩니다.혹 보고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김장실 위원** 이 대회는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4년마다 개최되는 휠체어농구월드컵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인들 대회는 마라톤으로 올림픽 대회가 끝납니다마는 장애인대회 폐막식은 휠체어농구로 폐막이 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세계 91개국이 참가해서 각 대륙별 지역 예선을 통과한 16개국이 최종적으로 본선에 참여해서 내년에는 총 500명 규모로 대회가 열립니다. 물론 총회도 개최됩니다.

그동안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영국 등 복지 선진국에서 개최됐는데 이번에 일본에 이어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됨으로써 장애인 스포츠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약 33억 6000만 원인데 그중에 장애인 경기의 특성상 일반인 경기보다는

장비와 인력 면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정부예산안을 보니까 장애인 전문 체육사업 중 장애인 국제대회 개최 지원 사업으로 1억 만이 반영되어 있고 또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테스트 이벤트로 불과 5000만 원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데 우선 내년 예산에 한 9억 원을 반영해서 10억 원으로 증액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테스트 이벤트를 위해서도 10억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장실 위원** 그다음에 지금 정부가 국정지표로 내세운 게 문화융성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김장실 위원** 제 생각으로는 경제기적에 이어서 정치기적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대중문화 한류로 시작된 것으로 봐서 문화기적이 이루어질 시점에 있기 때문에 문화융성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정점, 꽃이라고 봅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맞습니다.

○**김장실 위원** 그러려면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김장실 위원** 준비를 잘 하기 위해서 꾸려진 게 됩니까, 문화융성위원회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습니다.

○**김장실 위원** 문화융성위원회가 준비가 잘 못 되면 다음 100년, 다음 1000년의 문화의 잣대를 놓는데 아주 큰 곤란을 겪게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김장실 위원** 아시다시피 교육은 백년대계이고 문화는 천년대계인데 그 틀을 잘 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예산이 11억 7000만 원인데 이게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지금 사업비가 좀 적습니다. 아까 김윤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김장실 위원** 제 생각으로는 우선 전문가들의 견도 많이 받아야 되고 선진국 사례도 조사해야 되고 아시다시피 경제 발전을 하고 난 이후에 문

화 발전까지 이룩한 선진국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국가들이 어떻게 해 왔는지를 조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회의를 보니까, 대통령 보고를 하려면 최소한 한 7, 8회는 사전회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회의비도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증액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감사합니다.

○김장실 위원 그다음에, 문화재청 차장님!

○문화재청장직무대행 박영대 예.

○김장실 위원 강원도 월정사, 부산 통도사 이런 데는 성보박물관을 건립해 가지고 소장 중인 국보 문화재 등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문화재청장직무대행 박영대 예.

○김장실 위원 각 사찰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국민에게 교육·문화적 가치도 매우 있고 또 관광객들의 관광명소로서도 참 좋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재청장직무대행 박영대 예.

○김장실 위원 충청권의 최대 사찰인 속리산 범주사는 신라 진흥왕 때 중건되어 역사가 벌써 1500년이 됩니다. 여기는 국보 3점, 보물 12점 등 문화재 369점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의 보고입니다. 연간 140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데 여기에 아직 성보박물관이 없습니다.

지난 11월 26일 날 문화재위원회에서 범주사를 포함한 일곱 곳의 전통사찰에 대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지요?

○문화재청장직무대행 박영대 예.

○김장실 위원 그래서 여기 범주사에도 성보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서 각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직무대행 박영대 충청도에서 지금 광역특별회계로 신청해야 되는 것을 일반 국고사업으로 신청해서 협의를 해서 조정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실 위원 한 5억 정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진룡 장관님, 추사 김정희 선생 잘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김장실 위원 금석학과 서예, 문인화의 대가이고 조선 최고의 실학자인데 이분의 명성은 청나라에서도 매우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이 많은 청나라 지식인들과 교류를 해 가지고 동아시아 문화 교류의 어찌 보면 선구자라고 할 수 있고 국보 제180호 세한도를 비롯해서 다수의 작품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동양예술의 거장입니다.

그래서 추사기념사업회하고 추사 김정희 선생이 출생한 예산, 귀양지 제주, 사망지인 과천 세곳의 지자체에서 동상 건립을 2008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그동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 사업 취지에 공감해 가지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했는데 아마 협의 과정에서 안 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장실 위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상 건립에 필요한 9억 원의 소요 예산이 꼭 예산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감사합니다.

○김장실 위원 교육부장관님!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장실 위원 한국교통대학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장실 위원 충주대학하고 한국철도대학교가 통합해 가지고 올 3월에 출범한 국립대학교이지요.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장실 위원 한국교통대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군 항공조종사를 양성하는 국립대학입니다.

그런데 보유 중인 비행기가 2대뿐이어서 가지고 학군사관후보생하고 조종사 지망생들이 비행시간을 채우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습 비행기 2대를 아마 구입해야 될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 구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재정 형편상 확보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실 위원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정 김장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은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희정 예, 유은혜 위원님!

○유은혜 위원 제가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와 관련하여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정 예, 발언하십시오.

○유은혜 위원 제가 오전에 상지대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 자료를 점심시간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는 그렇게 전화도 안 받던 분들이 오늘 저희 보좌관에게 전화를 해서 ‘교육부에서 검토 중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이런 답변을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어떤 건지 아시지요, 장관님? 제가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법인감사의 감사보고서, 그리고 종전 이사 측의 이사장 해임요구 사유에 대한 법인의 해명자료, 그리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제3항과 관련된 종전 이사 측의 주장, 이 세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이것은 교육부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 받은 자료를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국회가 행정부 검토 다 끝난 다음에 자료 받았습니까?

지금 이것은 국회에서 요구한, 계속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국정감사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자료 제출 안 하시는 게…… 지금 이 문제까지도 이렇게 자료를, 계속 반복해서 요청을 해도 제출 안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니까?

이것은 교육부가 빠거나 더할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상지대 쪽에서 법인이나 이사 측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건데요.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못 준다’ 이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점심시간 때까지 기다리다가 지금 몇 시간을 더 기다렸는데요. 더 이상 기다리기가, 시간이 점점 더 가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요.

위원장님께도 이렇게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 아까 신학용 위원장님께서도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되풀이 지적하지 않게 다시 한번 요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정 예,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습니다.

○유기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희정 예, 유기홍 위원님!

○유기홍 위원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지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서 장관께 그리고 교육부 관계자들에게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지대는 한때 김문기 전 설립자 비리사학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학이 민주화되어서 사실은 강원도가 자랑할 정도로 좋은 대학이 되어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 구 재단 측 이사들이 복귀하는 조치들이 사분위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그 사람들의 비협조로, 구 재단 측 이사들이 협조하지 않아서 총장 선임도 제대로 못 한 상태에서 파행 운영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상지대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소집되어서 총장 선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가 교육부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서 구 재단 측이 현 이사장을 몰아내고 사실은 옛날 구 재단이 이제 드디어 상지대를 다시 차지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교육부가 보여주는 태도는 정말 어처구니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민주화되었던 상지대가 이명박 정부 때 구 재단 이사들이 복귀했고 드디어 서남수 장관하에서, 박근혜정부하에서 김문기 구 재단 측으로 상지대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 서 장관님, 도대체 자료 문제를 가지고 국회가 만날 장관한테 자료제출 요구만 해야 됩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뿐만 아니고 지금 저한테는 학교법인 상지학원 감사와 임원취임 승인 취소 촉구 서명용지, 상지대학교 학생 일동의 서명용지가 있는데 이것을 교육부에 전달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나 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을 저한테 전달해 왔습니다.

이것 장관님한테 가서 전달해 주세요.

한번 좀 보십시오, 상지대학생 일동 명의의 서명에 얼마나 절절한 염원이 담겨져 있는지. 상지

대 문제 정말 이렇게 할 겁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유은혜 위원님 제출 요구하신 자료부터 먼저 제출하시고, 정말 상지대 구 재단 측으로 다시 돌아가는 역사적 퇴행이 있어서는 아마 그것은 박근혜정부 교육부, 서남수 장관 교육부가 역사에 오래 오명으로 남을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정** 두 분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상지대 관련되어서 교육부의 입장 정리를 하셔서 별도로 관심 있는 의원실에 충실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 관련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당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자 위원** 광주 서갑의 박혜자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법률 개정 없이 지침만으로 골프장의 체육진흥기금 폐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체부에 서면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장관님 보고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것 직접 질문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답변처럼 부가금 징수의 최종 승인 권한이 문체부장관에게 있고 부가금 폐지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서 취해진 조치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달 중에 아무튼 다시 입장을 정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입장이 아니라요, 장관님, 지금 현재 국민체육진흥법 20조 거기에 보면 1항에서 “기금은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 조 3호에서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조치 없이 이것을 장관 재량으로 면제할 수 있습니까? 답변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 부분은 아무튼 법적 검토를 다시 해서……

○**박혜자 위원** 법적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까?

저는 장관이 이렇게 심대하게 재량권을 발휘한다고 하면 입법권의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나와 있고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 이와 같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 자의적으로 이것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13년부터 15년까지 약 3년 동안 1350억 정도의 기금 손실이 예상됩니다. 연간 400억 정도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지금 어떻습니까? 국가적으로 조세 수입이 적어서 야단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공익상의 목적이 또 있습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될 부득이한 사유가 도대체 뭐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 문제는 제가 오기 전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안 걸고 있던 겁니다.

○**박혜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래서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다시 정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장관,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기금 폐지를 결정한 관계 공무원,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용환 차관이라든가 체육국장 노태강 국장, 또 전병극 체육정책과장, 또 체육진흥과장 강수상 씨 모두 다 고발하세요.

그리고 올해 2013년 예상 부가금이 한 450억 정도 됩니다. 이것 변상 조치시켜야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아무튼 법적인……

○**박혜자 위원** 장관, 한번 보세요. 장관 이름으로, 법률에 근거한 것을 여러분들이 법률을 무시하고 이렇게 면제를 해 주었어요. 공익적인 목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회원제 골프장의 부채 비율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2012년 말 기준으로 평균 2622% 되어 있어요. 자본 잠식이 이렇게 심각해요. 부채 비율이 나는 이렇게 높은지는 사실 상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업체당 평균 부채액이 1253억입니다.

그런데 회원제 골프장 이것이야말로 부자들에게 대한 부자 감세 아닙니까? 대중 골프장도 아니고 회원제 골프장인데요. 이 회원제 골프장 다니는 사람들에게 입장료 면제해 주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공익상의 목적이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검토가 아니라 제가 요구하는 것은 검토에 덧붙여서 이 책임자들 전부 다 문책하시고 변상 조치해 주세요.

장관, 꼭 답변해서 이것에 대해서 변상 조치 엄격하게 해 주세요. 제가 이 문제는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그리고 아시아문화전당이 언제 완공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완공은 내년 말 내지 2015년……

○박혜자 위원 내년 12월 완공 예정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혜자 위원 그런데 보통 콘텐츠 제작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콘텐츠는 계속 만들어야지요, 그전부터.

○박혜자 위원 그런데 한번 콘텐츠 예산이 확보되어서 어떤 콘텐츠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건 콘텐츠마다 차이가 있지만 1년~2년 정도는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박혜자 위원 통상적으로 제작 기간이 보통 예산이 확보되어도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장관? 아시아문화전당 계속 성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건물만 지어 놓고 콘텐츠 비워 두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래서 안 되겠지요.

○박혜자 위원 그런데 콘텐츠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개관을 한다고 하면 실내 인테리어도 해야 될 거고 관람객 휴게공간도 해야 될 거고 또 동선 유도를 하는 사인물도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전반적인 공간 구성이라든가 디자인 예산도 필요한데 장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 부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혜자 위원 그런데 공연사업이 110억 요청에 대해서 60억밖에 안 했고 연구사업은 35억에서 7억으로 깎아 버렸고 교육사업은 전액 다 깎아 버렸고 또 포털 구축 예산도 21억 요구했는데 1억 남겨 났어요. 1억이 어디에다 쓰는 건지 모르겠

어요. 그리고 공간 구성에 대해서도 80억 원 전액이 삭감되었어요. 그러면 건물만 지어 놓고 그렇게 마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 부분 위원님께서 국회에서 증액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장관님, 물론 저희 위원들도 노력해야 되지요. 그러나 일차적인 책임은 문체부장관한테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186억 전액 반영하세요.

그다음에 제가 또 묻겠습니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과 관련해서 사실은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어요. 기억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혜자 위원 됩니까? 아시아문화전당 옆길 사실 교통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그래서 조건부 통과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 조건부 통과인데 건물 다 지을 때쯤까지 해서도 왜 도로 문제 해결 안 하십니까? 법적 의무사항 아닙니까,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국회에서 논의해서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런데 장관, 국회에 미루지만 마시고, 장관님 아까 계속 답변 들으면 국회로 미루고 계세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국가 사업이고요. 또 국가사업에 따라서 실제 이것에 대해서 추진해야 될 책임은 장관한테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맞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맞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런데 건물 다 지어 놓고 조건 충족 못 해서 교통영향평가 조건부 충족을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준공 허가 안 나면?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것은 아마 해결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박혜자 위원 어떻게 해결이 돼요? 해결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나머지 콘텐츠에 대한……

○박혜자 위원 제가 좀 보겠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위원장대리 김희정 박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朴成浩 委員 이것은 사실 두 장관님 공히 같은 부분이라서 한번 여쭙 보겠는데요.

사실 요즘 최근에 보면 한류의 바람, 한국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서 한국은 수요가 그만큼 많아졌고,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님께서 먼저 세종학당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영상을 잠깐 한번 틀어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은 불가리아 소피아 18 공립학교의 초등학교 1학년…… 보통의 경우에는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지정한 나라가 많은데 불가리아는 제1외국어로 한국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1외국어가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6개 중에서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런데 영어 다음으로 많이 지원한 것이 한국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30명 들어오는데 170명이 지원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폭발적인 수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1학년입니다.

(동영상 상영)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한국어로 제1외국어를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예산 지원이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물론 이것은 처음 시작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교재도 구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지의 교사가 한국 동요나 혹은 동화 등을 가지고 워크북을 만들어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하면 이 사태가 보면 미래의 친한파 육성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세종학당도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교육부에서 처음으로, 예산에 보면 재외동포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 32억 배정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27억 정도가 한 61만 권의 교재를 생산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배부해 주는 것이지요.

혹시 장관님, 교재를 각 나라별로 배분하는 데 수송비가 얼마쯤 되는가 대충 아십니까? 거리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해 본 경험이 있어서…… 교재를 만드는 비용만큼 수송비용이 많이 듭니다. 배로 보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61만 권이 해외로 빠져 나간다고 판단이 된다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인터넷 교재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출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종학당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학교에서는 판권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선생님이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혹여 만약에 부서 간에 있어서 벽을 허물 수만 있으면 문체부와 교육부 같이 공히 해서…… 세종학당 같으면 또 나중에 하겠지만 터키 앙카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100명이 지원해도 40명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건물, 교실이 없습니다. 일본 친구들은 자기 독자적 건물을 지어 놓고 강의를 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일본 교육만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정말 대한민국 위상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 가라는 우려가 되기도 하고 같이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재도, 제가 경험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각 나라에,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재가 없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경남교육청에서 버리는 교재를 묶어서 교육감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에 있을 때 그랬는데 이걸 사실은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버리는 교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파기합니다. 그걸 가지고 수송비용만 적절히 활용 잘하면 얼마든지 이것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현지에 가 보면 책이 없습니다. 지난번 국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도에 가니까 소위 증권투자 주식에 대한 책이 있더라고요. 그걸 초등학생이 뭘 알겠습니까? 그 정도 수준이다 이거지요. 그것을 좀 직시해서 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복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세종학당이 없는 곳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 부

분을 좀 고려해서 가지고…… 현지에 있는 교사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대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종학당도 마찬가지로요. 세종학당 이사장님이 비상근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朴成浩 委員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100군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38명이에요. 한 곳에 한 명의 교사도 배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물론 예산이 부족하다 하지만 어떻게 한국을 알리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한 많은 투자가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습니다.

○朴成浩 委員 장관님께서, 이것은 우리나라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또 그것이 한국어 보급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 꼭 좀 유념하셔서 한번 꼭 챙겨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朴成浩 委員 사실 특히 양카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한글을 배우게 되면 초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직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이 사람들이 한국어 배우러 옵니다. 그 많은 전문가들이 온다는 것은 한국어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이 수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꼭 좀 유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예산 확보에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朴成浩 委員 예, 같이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成浩 委員 유진룡 장관님, 지난번에 제가 스포츠강사……

이 부분은 교육부하고 똑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스포츠강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2008년부터 잘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교육청하고 문체부하고의 비율 때문에, 대형투자비 때문에 문제가 돼서 교육청마다 사람을 줄여서 올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700명 정도가 옷을 벗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분 그분 개개인도 문제지만 애를 돌봐줄 스포츠강사가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미래 스포츠교육에서 굉장한 마이너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기간도, 임기가 1년인데 10개월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기도 1년을 없애 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결국 겨울방학 동안 애들한테 체력관리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비만 관리도 됩니다.

임금은 최저지만 조금 올랐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朴成浩 委員 그렇지만 임기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 어떻게 간에 부처 간 협조를 해서 이걸 만들어 주셔야만 전체가 다 미래 애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챙겨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잘 아시다시피 2개 부처 예산이 같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朴成浩 委員 저희도 하겠지만 부처에서 그걸 같이 공히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成浩 委員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정 박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박성호 위원님 사진 찍어 오신 거요, 다른 데서 자료화면 받으신 게 아니라 지난 여름에 보좌진들하고 자비를 들어서 다 직접 현장을 다녀오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종학당 지원사업 예산 증액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중에 교육부랑 사업 협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희들에게도 공유할 수 있도록 결과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알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정**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당의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근 위원** 중랑을의 박홍근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교육부장관님, 아까 정부의 공약 특정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것을 ‘기재부가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걸 교육부장관의 능력 문제이고 교육부의 의지 문제 아닌가요?

어느 부처나 다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것을 얼마만큼 반영시킬 수 있는냐는 전적으로 장관의 능력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을 설득하고 우선적으로 배정하게끔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배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부의 책임, 교육부장관의 책임을 먼저 언급을 하셔야지요. 기재부 탓으로 돌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책임, 무능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홍근 위원** 그리고 지난번 제가 전체회의에서, 이번 졸속 심사로 인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수능출제 오류 문제 있지 않습니까? 당시 제가 지적을 했더니 장관께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발표가 있을 거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기억나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홍근 위원** 그런데 그날 당일 발표 내용을 봤더니 평가원에서는 문제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평가원장 얘기를 들어 보니까 마치 이의제기가 1건밖에 없었고 언론에서도 크게 문제를 안 삼았고, 이게 평가원장으로서 해야 될 이야기입니까? 1건이건 100건이건 문제가 있다면 우선 정확히 살펴야 되는 거고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해서 관심사를 놓쳐서야 될 문제입니까, 이게? 정말 상식 이하의 답변을 당시에 내린 겁니다.

최근에 제 트위터를 통해서도 자기가 13년 준비를 해서 채수생인데 시험을 봤다, 그런데 그 3점으로 인해서 자기가 등급 하나가 낮춰졌다, 앞으로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기 인생의 책임을 누가 질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이나 평가원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넘어가니까 지금 집단소송전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을 안 느끼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박홍근 위원** 아니, 유감 정도로 끝낼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한번 여쭙 볼게요.

청와대 쪽에서는 이 평가원장에게 책임을 물어서 교체 이야기가 나왔는데 장관께서 그걸 막았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사실입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지 않습니다.

○**박홍근 위원**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러니까 그런……

○**박홍근 위원** 그런 적 없습니까? 청와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한 적 없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는는 했지만 그런……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오갔냐고요.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원에서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교육부가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최종적으로 처리 방안을 정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홍근 위원** 평가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된 바가 없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평가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뭐라고 거론이 됐습니까? 청와대에서는 뭘 어떻게 요청을 했냐고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돼서 그……

○**박홍근 위원** 그래서 장관은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전부 법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된 이후에 그런 문제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홍근 위원 장관님, 아주 기초지식을 갖고 있는 제가 그 문제를 보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야 위원들 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쭙 봤더니 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평가원에서만 유독……

제가 오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마는 아주 부실하게 이 이의제기에 대해서 심사하는 과정이 있어요, 예산 문제도 인력 문제도. 그것도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회의록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회의록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주 짧은 시간에 그냥 처리했어요.

정말 많은 아이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버스 떠나고 손 흔들어야 무슨 소용 있습니까? 사후에 이 법적 소송 끝나고 나서 애들 이거 구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후에 이 문제를 그렇게 처리하겠다고 이게 가당한 이야기입니까? 국민들이 이거 동의를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는 건데?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도 제기가 되어 있고……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소송 끝나면 이미 버스 떠났다고요. 아이들 대입 문제 이제 다 목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러니까 소송……

○박홍근 위원 그 평가원장에 대해서 사퇴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 문제는 하여튼 이 문제가 마무리된 뒤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답답합니다.

교과서 문제 가지고 하나 더 여쭙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소송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러면 소송이 끝나고 나면 뭔가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지금 현재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수정·보완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박홍근 위원 그 절차에 대해서 서로가 이견이 있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과연 이게 단순한 표현상 잘못이나 또는 객관적인 어떤 오류 시정이 아니라 내용상의, 말 그대로 대법원 판결처럼 재검정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이번에도 수정 명령을 요구한 것

보십시오. 내용을 봤더니 국편이 내고 있는 한국사에도 없는 내용들까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검정은 밑실에서 진행을 하고 또 수정 명령은 과도하게 하고, 그리고 사실 이게 검정교과서 만드는 과정이 아니고 뭐니까? 결국 교육현장에서는 혼란 초래하고……

저는 장관님께서 이 문제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발표를 하신다면, 최종적으로? 하시거나 해서 책임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혼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분이 누가 있어요? 이것도 다 그냥 그동안 심의위원회에만 맡기겠습니까?

이제는 책임지고 장관께서 이 문제, 월요일 날 어떤 발표를 할지 저희는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책임지고 물러나셔야 돼요. 이게 수습책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하여튼 교과서나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검정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은 교육부장관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 나가도록……

○박홍근 위원 책임감을 가질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지시고 물러나셔야 한다면가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쭙 보겠습니다.

최근 이어도 문제 부각되고 있는 거 잘 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홍근 위원 제가 혹시 보도자료 낸 것 보셨습니까?

우리 사회과교과서, 특히 역사교과서에는 35권 중에 이어도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게 하나도 없어요. 좀 심각하지요. 그거 한번 보고를 받아 보시고요.

지금 우리가 동북아역사재단 산하 독도연구소가 있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한데 저는 이걸 좀 포괄적으로 '우리섬 연구소' 이렇게 바꿔서 독도나 이어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명기 오류에 대한 분석, 시정요구 대상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정 박홍근 위원님 수고 많으

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새누리당 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숙 위원** 새누리당 송파갑 박인숙입니다.

오늘 예산 관련 질의하기 전에 너무 급한 사안이 있어서 아까 의사진행발언 하려다가 지금 제가 시간을 좀 쓰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지금 입시가 한창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급하거든요.

서남의대하고 관동의대 문제 잘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인숙 위원** 그런데 서남의대는 지금 법정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인가요? 교육부 입장이 어떤 신지, 폐교를 하기로 하셨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폐교는 아니고요, 지금 임시이사를 보내는 쪽으로……

○**박인숙 위원** 그런데 임시이사에도 지금 임시로 수련을 받고 있는 전주예수병원 의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없애겠다는 얘기인지 구제를 하려는 의도인지 의도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교육부에서 서남의대를 폐교를 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도 의심스러운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서남의대 폐지 문제는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은 거고요, 거기에……

○**박인숙 위원** 지금 수시모집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신청하는지. 관동의대는 받았는데, 지금 학생들 뽑고 있거든요.

이 학교가 계속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폐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폐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폐교할 수가……

○**박인숙 위원** 그러니까 침몰할 배에 학생들이 올라타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다 그렇게 뿐이 생각이 안 되거든요.

또 지금 관동의대 학부모들이 가서 데모를 하려고 하고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문제……

○**박인숙 위원** 관동의대도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학생들이 지금 실습을 제대로 못 받고 떠돌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데모를 하고 있고요. 여기

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조금 더 폐교가 뚜렷한 게,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지요. 거기에 보면 교육에 지장 없이 실습을 하여야 되는데 그것을 어겼을 때에는 1차 위반에 100% 모집을 정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학이 지금 여기에 해당되지요. 지금 제대로 실습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입학생을 뽑으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24명 뽑는데 9 대 1의 경쟁률이 있습니다. 이것도 가만히 계셔야 되나요? 가만히 보고 계실 건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일단은 금년 1월부터 광명성애병원 협력병원으로 옮겨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박인숙 위원** 교육병원이 아니에요. 지금 교육에 지장이 있는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모집정지를 해야 되는 데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이렇게 애매한 태도로 하고 있으니까 다섯 군데에서, 목포 순천 창원 인천 군산에서 의대를 만든다고 지방에서 막 떠들고 있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새 의대를 또 만드실 생각이신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요, 아직은 이 학교에 대한……

○**박인숙 위원** 지역주민들이 서명운동도 하고 있어요. 90년대에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이 의대를 마구잡이로 만들어서 지금 42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한 게, 제가 입법을 한 것도, 의평원, 의학교육평가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민간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게 법적인 그걸로 돼서 이 가이드라인에 맞아야지 의대를 설립을 하고 유지가 되고 평가를 하는데 그게 지금 법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3년 동안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냈는데 충실히 보시고 통과되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정말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의대를 만들어서 지금같이 이렇게 난립상이 된 것은 교육부 잘못입니다. 과거 십몇년 동안 전부 교육부가 저질러 놓은 일이거든요. 이것 수습을 하셔야 돼요.

대학 2개에 이렇게 의사를, 이렇게 키우면 안

되지요. 모든 대학 졸업생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고 졸업할 권리가 있지만 특히 환자의 건강을,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들을 이렇게 양성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대학을 어떻게 하실 건지, 신설 의대를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대답을 해 주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지금 우선 이 두 대학에 대해서 당장 폐교를 한다 만다 결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박인숙 위원** 관동의대는 그 단계가 맞지요. 법적으로 맞지요. 서남의대는 법적으로 걸려 있다고 하지만 관동의대는 지금 법적으로 맞거든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관동대도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으로 지정한 병원을 협력병원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당초에 설립인가를 낼 때의 부대조건을 아직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집인원을 계속 감축하면서 대학이 그 부대조건을 이행하도록 계속 저희가 인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박인숙 위원**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지금 5개, 질문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두고 보겠다는 생각이신가 보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두고 보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로서는 폐교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고요. 하여튼 설립 부대조건을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문화재청장님 대신해서 제가 질의하는데, 풍납토성 잘 아시지요?

○**문화재청장직무대행 박영대** 예.

○**박인숙 위원** 82년이 걸려야 이게 완전히 보상이 된다는 계산도 아시지요, 지금같이 해서는?

○**문화재청장직무대행 박영대** 예, 그렇습니다.

○**박인숙 위원** 지금 예산이 오히려 줄었거든요, 올해. 2435억에서 더 줄었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하려면 올해 최소한 530억의 증액이 필요하거든요.

○**문화재청장직무대행 박영대**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숙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직무대행 박영대** 예.

○**박인숙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께 의료관광, 의료와 관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고 국부 창출, 일자리 창출이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인숙 위원** 그 예산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원스톱 서비스로 모든 병원 가격과 보험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그것을 알려주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클러스터 만들고 해외 마케팅 하는 데 최소한 55억의 증액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박인숙 위원** 또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께 제가 국감 때 그 얘기를 많이 했지요. 장애인 시설에 대한 용역과 40여 군데 경기장에 장애인 시설,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약 42억이 필요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꼭 필요합니다.

○**박인숙 위원** 그리고 교육부장관님께 다시 아주 간단히, 제가 국감 때 그 지도를 여러 번 보여 드렸거든요. 방이중학교, 60여 개의 모텔로 둘러싸인 중학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가 너무나 열악한데 학부모들도 맞벌이하고 그래서 많이 떠들지는 않는데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학교에 특별히 지원이 필요합니다. 급식실도 없고 조리실도 없고 체육관도 없습니다. 거기에 하는 데 한 36억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정말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인숙 위원** 챙겨보시고요.

마지막 한마디만, IVI(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라고 국제백신연구소가 있는데 사실 이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GCF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유일한 국제기구입니다. 작기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계의, 저개발국의 설사라든가 백신을 만드는 곳인데 그것을 어렵게 유치를 해 놓고 지원을 별로 안 해요. 해마다 줄어들어서 지금 굉장히 적자가 많은데 거기에 지원이 필

요합니다. 30억의 지원이 필요한데 이렇게 어려운 국제기구를 갖다 놓고 이제는 알아서 돈 벌어서 하라, 이게 돈 버는 데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정** 박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당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기홍 위원** 질의 전에 제가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수정심의회 위원 구성할 때 약 400개 단체에 공문을 보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 400개 단체 명단 주세요.
그리고 왜 거기에 전교조가 빠졌는지 400개 단체에, 교총은 들어가 있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런데 전교조는 빠졌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유기홍 위원** 왜 전교조는 빠졌는지 그 이유도 설명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조속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바로 하세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 새해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박근혜정부 공약 실현과 관련해서 대단히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육부장관께, 교육 예산이 GDP 대비 몇 %지요, 새해 예산이? 계산해 보셨나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
○**유기홍 위원** 4.9%입니다. 이것 별 차이가 없어요. 이명박 정부 때도 이랬고 작년에도 4.9% 수준이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고 일반회계만 계산하면 50조 3000억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1.1% 증가에 그쳤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이나 여러 가지 고려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교육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진룡 장관님, 2014년 문화부 및 문화재청 예산이 총지출 기준 올해 대비 1820억 원 증액된 4조 9415억 원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유기홍 위원** 정부 총지출로 보면 몇%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1.3%~1.4% 정도 됩니다.

○**유기홍 위원** 1.3%~1.4% 정도인데 문화재정 2%를 하려면 매년 11%씩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좀 더 열심히 올라가야 됩니다.

○**유기홍 위원** 열심히 노력해서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하니까, 매년 11.1%씩 증액시켜야 되는데? 저는 이것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리고 박근혜정부 공약 이행에 우려가 있는데 공약했던 내용 중에서 고교 무상 교육 1년 유보 이것도 공약 후퇴입니다. 학급당 학생수 줄이겠다고 하는 것도 전혀 예산 반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새해 예산이 기본적으로 공약 파기 예산이고, 문화재정 2%도 요원합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그렇게 문제 지적을 말씀드리고, 학교비정규직 장기근무 가산금 증액 관련해서 교육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12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지난 국회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는데 세부계획안 발표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이달 안에 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이달 안에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유기홍 위원** 당·정·청이 7월 30일 날 대책 발표한 데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 많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1년 근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직종이 교육청별로 차이가 나거나 몇 개 직종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제일 큰 것은 사실은 교육감 직고용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요. 지금 교육청별로 9개 교육청인가 해 놨는데 그것도 대단히 제한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결국 노조가 지금 파업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호봉제 쟁취를 위한 그리고 교육공무직만이 해결책이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불을 붙인 것이 장기근무 가산금을 3년차 직원부터 1년마다 1만 원씩 2018년까지는 2만 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 소요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355억……

○**유기홍 위원** 355억 되는데 이것은 확보하셨나
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유기홍 위원** 확보됐어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이것은 시·도 교육청
예산에서 확보 예정에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국감에서
1년에 3만 원씩 정도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
니다. 이게 1252억 정도 되는데, 생각하시기에 어
떻겠어요? 제가 사실 장관님하고 이런 저런 교감
을 하는 과정에서 한 2만 원 정도까지 노력하겠
다는 뜻을 가지고 계셨던 걸로 아는데 후퇴한 이
유가 뭐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잘 아시는 것처럼 당초에
는 그런 수준으로 확대했으면 하는 기대, 희망을
가지고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에 재정
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우선 이 수준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유기홍 위원** 7월 30일 당·정·청 협의 자체
에 대해서도 저희는 절차상의 문제나 야당을 배
제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만 그 내용
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이 좀 기대를 했었던 것이
사실인데 지금 그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
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 2만 원 정도까지는 최대로 좀 방법
을 강구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연 3만 원 정도
씩 올려야 정규직의 70% 정도 수준, 그래도 정
규직의 70%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점
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
드렸기 때문에 더 강한 표현으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교육용 전기요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문위의 신학용 위원장께서도 교육용 전
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본 위원도
19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제
출했는데 산업용 전기요금 단가의 한 70% 수 준
으로 인하하자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유기홍 위원** 그런데 교육부는 대책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교육용 전기요금을 좀 낮
출 필요성에 대해서 관계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
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기요금 인상을 할

때에 교육용 전기요금은……

○**유기홍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피크전력 관리장치, 대기전력 차단장치
통해서 전기요금 낮추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전기요금을 낮추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전기를
더 아껴 쓰라는 정책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서면질의로 다 하
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여야 의원님들이 다 전기
요금 낮추자는 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전체 전
기 사용량의 1.7%에 불과해요, 교육용 전기요금
이. 그래서 이걸 낮추더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한전 적자폭하고 그렇게 큰 관계가 없습니
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이번에 그 법안
이, 여야 의원님들이 낸 교육용 전기요금 낮추는
법안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그 법안 수준으로 전
기요금 부담을 낮춰 줄 수 있도록 학교운영지원
금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전기요금 낮추는 효과
를 미리 좀, 그래야 점통 교실, 냉골 교실 없앨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희정** 유기홍 위원님 수고 많으
셨습니다.

말씀 중에 저희 여당의 당·정·청 말씀이 나
와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장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앞서 고교 무상교육 건
과 같은 내용입니다. 학교비정규직 관련되어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열의를 가지고 정부 예산안
편성하기 직전에 다 얘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못 미치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더욱 관심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
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정**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당 존경하는 배재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정 위원** 배재정 위원입니다.

교육부장관님, 역사교과서 수정심의위원 추천
위해서 10월 25일 날 시민단체 20곳 대상으로 공

문 보내셨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배재정 위원** 존경하는 정진후 위원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시다마는 20곳 중의 13곳이 보수우익 성향 단체였고요. 진보 성향 단체는 6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분석을 해 보니까 보수단체들 중의 4곳은 최근 1년 동안 공식적인 활동조차 없던 곳입니다.

혹시 바른역사교육강화추진 국민연합이라는 단체 들어 보셨습니까, 장관님?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들어 본 것 같습니다. 자세히는 모릅니다.

(김희정 간사, 신학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배재정 위원** 이 단체가 올해 9월 27일 날 생겼어요.

창립선언문 제가 읽어 드릴게요. “다행히 저들이 농단해 오던 역사 및 정신문화 영역을 바로잡으려는 역사학자들이 한국현대사학회를 결성하고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바로잡기 위해 교학사 교과서를 편찬했다. 좌편향 교과서를 옹호하는 세력들은 교학사 교과서가 출판되기도 전 집필 내용도 모르면서 온갖 부정적 내용들을 선전·선동함으로써” 기타 등등 뒤에 “중북 좌파와의 역사 전쟁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확립하고” 이렇게 창립선언문을 내면서 9월 27일 날 생긴 단체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보내셨어요. 이런 단체 있는지는 어떻게 아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고도 전국역사교사모임 같은 전문성, 대표성 있는 단체는 빠졌습니다.

이렇게 위원 구성 과정도 균형 잃었는데 장관께서는 아무것도 자료 안 주시면서 믿어 달라고만 하시고요. 이렇게 추천된 위원들이 어떻게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수정 심의할 수 있다고 국민들께서 믿으시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 단체는 저희가 그 단체 하나하나의 성격을 파악해서 의뢰한 것이 아니고요. 지난 1년 이내에 교과서와 관련된 민원을 제출한 시민단체로 범위를 정해 가지고 전부 보냈습니다.

○**배재정 위원** 민원을 제출한 시민단체에 한해서 하셨다고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교과서에 관련된……

○**배재정 위원** 지금 처음으로 그런 기준을 밝히신 거지요? 저희들한테 필요한 자료 내라고 하실

때는 그런 것 다 숨기시다가 이제 드디어 기준을 말씀하셨네요. 그러면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곳은 아무리 그곳이 역사교육과 관련된 정통한 단체라 하더라도 다 빠지는 겁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시민단체를 저희가 일일이 심사하거나 이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 가지고……

○**배재정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책임지고 믿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역에서 교학사 홍보 유인물 2만 부 배포한 이명희 교수 문제 저희 방에 답을 주신 것을 보면 “검인정 교과용도서 선정 매뉴얼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하거나 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런데 역사편찬위 교과용도서 검정 실시 공고를 보면 유의사항에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검정합격 도서의 발행자·저작자·총판 등이 교과서 선정·채택 관련된 불법·부정행위로 적발 시 해당 도서에 대해서는 1년 범위 안에서 발행 정지, 검정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발행자에게는 일정기간 검정 신청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이런 유의사항까지 있어요.

이명희 교수 저자 아닙니까? 왜 이런 것들 제대로 교육부에서 파악도 하지 않으시고 저희한테 자료로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조사도 하지 않았다’ 이런 자료 보내세요?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위원장 신학용** 예, 배 위원님, 그 자료를 주세요.

○**배재정 위원** 예.

그다음에 미래를 여는 청년포럼 등이 뿌린 유인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공정행위 아니라는 게 교육부 입장인 것 같아요. 명백한 조치 필요하고요. 답변 제출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네요.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일부 말씀드렸는데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와 시간제 일자리 제도 저는 공통점이 3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급조된 정책이고, 학교 현장에서는 갈등과 분열 초래하고 그리고 반쪽짜리 나쁜 일자리 만드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영전강 제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어몰입교육이라면서 도입한 제도 지금 5년째 인데요. 교육부장관님, 솔직하게 답변하십시오. 이 제도 지금 학교에서 필요한 제도입니까, 없어야 될 제도입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학교 중에는 그 제도의 도움을 많이 받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지금 벌써 1기 영전강들이 해고되고 새로 뽑는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제 파악하신다고 그러면 그게 말씀이 됩니까? 올해 계속 이 문제를 저희가 기자회견도 했었고 토론회도 했었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 교육부장관님 답변은 지금 학교 현장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필요한 학교도 분명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배재정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비정규직 2년 지나면 무기계약직 전환해야 되고요. 학교비정규직에 대해서 지난번 여당과 당정 협의하셔서 1년 지나면 전환하겠다고 하셨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런데 영전강들은 시행령으로 4년을 임기로 해 놓고 무기계약직 전환까지 또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해고를 하신 거예요.

국가인권위에서 지난 8월에 영전강에 대해서 교육감 직접고용과 무기계약직 전환 권고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배재정 위원** 이행계획 제출하셨습니까, 인권위에?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영전강을 처음에 4년으로 한 것은 다른 비정규직보다 오히려 좀 더 신분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배재정 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비정규직은 다 무기계약직 전환하는데 영전강들은 왜 해고하세요? 그게 말씀이 되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것은 강사이기 때문에 일반 비정규직법의 적용을 받는 것……

○**배재정 위원** 그래서 제가 시행령 말씀드리는데 그 시행령도 지금 위법하다고 얘기가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더 교육부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학교 현장에서 정규 교사들이랑 영전강들이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끼리 그리고 강사들끼리 싸움 붙여 놓고 교육부에서는 뒷짐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시간제교사 관련도 저는 자료 제출 요청드렸는데 아직 안 주고 계십니다. 이 제도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시행령 개정해서 진행하실 겁니까? 언제부터 도입하실 겁니까?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왜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는 기본적인 원칙이 학생, 학부모도 환영하고 또 선생님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 선생님한테도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원칙으로 지금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확정된 내용은 드릴 수가 없는 단계고요. 그 내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재정 위원** (패널을 들어 보이며)

확정 안 되었는데 지금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이렇게 다 설명회 하시고 토론회 하셨지요? 14년도 신규 채용 인원의 3%를 제외한 인원만큼만 선발한다, 이 말 뭐냐 하면 3%는 시간제교사로 할당한다는 이야기예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게……

○**배재정 위원** 그런데 말씀 좀 더 들어 보세요. 저희 방에는 시·도 교육청하고 이런 토론회나 교육 진행한 적 없다고 거짓말합니다, 교육부가. 그런데 저 이렇게 공문 받았어요. 왜 국회의원실에 거짓말하십니까, 교육부?

○**교육부장관 서남수** 거짓말이 아니고요. 그 내용은……

○**배재정 위원** 거짓말했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 내용은 안행부하고 기재부하고 저희 부하고 처음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도입 방안을 성안하면서 그 기본원칙만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방안을 만드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그 상세한 내용을 드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 드린 겁니다.

○**배재정 위원** 그게 아니고 거짓말하셨어요. 그런 회의 한 적도 없고 이런 자료 배포한 적도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무자가.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 그 내용은 나갔는데 그 내용의 세부적인, 그러니까 지금……

○**배재정 위원** 3% 이야기가 왜 언론에 나오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알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한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장관님, 제대로 파악도 안 하시고 지금 여기서 위증하시는 겁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부처하고 협의할 때 한 내용이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시간 선택제교사 제도를 어떤 의미의 어떤 제도를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내부적으로 계속 제가 직접 주제를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방안이 확정 안 되어서 그래서 대외적으로 설명을 아직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그 방안을 만든 뒤에 교육현장이나 교원단체하고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교육현장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 수렴을 거쳐서 마련할 예정이고요. 확정이 되는 대로 위원님께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지만 일단 이것은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 불러 모아 놓고 교육부가 설명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답변 못 하신 것이고 거짓말하신 거예요. 장관께서 그렇게 자꾸 둘러대시면 안 됩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학용** 배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창식 위원님!

○**박창식 위원** 박창식입니다.

교육부장관께서 계속 답변을 많이 하시니까 좀 쉬시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 농사 추수도 끝나기 전에 내년 농사를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먹고 살 것을 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영화 ‘어벤져스2’라는 것 들어 보신 적 있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창식 위원** 이게 최근에 영화 관객으로 보면 ‘아바타’ ‘타이타닉’ 다음에 ‘어벤져스1’이 3위였지요. 그런데 2를 한국에 와서 촬영한다는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창식 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는가 하니 외국 영상물에 대한 로케이션 인센티브 제도가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도 13년에 쓰지를 못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습니다.

○**박창식 위원** 그런데 올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장관님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뉴질랜드의 ‘반지의 제왕’이나 이런 부분들 영화 한 편이 어마어마한 관광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불용으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어벤져스2’가 싱가포르로 갈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지금 감독과 스텝들이 한 20여 명이 한국에 와서 헌팅을 다 마치고 갔으나 정부에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돌아갔고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보고 서울이 이런 곳이라는 것을 물론 듣긴 했지만 와서 보고 놀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내용도 보면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을 들어 봤을 때 내용 중에 15분~30분을 서울에서 촬영하는데 주요 전투장면을 서울에 와서 찍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누구도 못 고치는 병을 서울에 가면 고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또 의료관광과 연결될 수도 있고 또 한국의 자동차가 등장하고 IT 발달이나 이런 게 들어가고 서울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광고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우리 예산이 로케이션 비용이라든가 지원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맞습니다.

○**박창식 위원** 그래서 내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예산안에 지금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지금 금년에 못 썼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창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작년에

15억이 되어 있다가 지금은 아예 책정도 되어 있지 않은데 영화나 드라마나 대한민국에서 촬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더 추가를 해서, 더 많이 해서 해외 영화를 한국에 와서 찍는 것과 또 다른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한 편이 세계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그게 한류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옳은 말씀입니다.

○박창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굉장히 효과가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게 사업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안 되었는데 반드시 반영되도록 고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창식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역시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콘텐츠진흥원에서 여러 각도로 해서 지원사업을 많이 해 왔지만 지원사업 내역을 보면 초창기 때 예산이 61억이었습니다. 61억이었는데 이게 계속 줄고 줄고 줄어서 지금은 거의 10억 미만의 예산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게임이나 드라마나 캐릭터사업 이런 한 건 한 건들이 해외 시장에 나갔을 때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고 해외에 문화한국이라는 이미지도 보여줄 수 있고, 이게 예를 들면 61억을 투자했을 때가 4, 5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한류가 사실 왕성했을 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류가 자꾸 식어간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뭐겠습니까? 돈을 밑바닥에 깔아 주고 명석을 때로는 정부에서 깔아 줘야 그 위에서 춤을 주고 장구도 두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맞습니다.

○박창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준 부분에 대해서 다시 61억 이상으로 올릴 생각은 없으신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식 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올리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반영을 해주시면……

○박창식 위원 원액으로 다시 가는 것으로 해도 아마 이 금액은 물가상승 요인에 따라서 굉장히 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감사합니다.

○박창식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는 예술의전당 콘텐츠 영상화사업 국고 지원 문제인데 사실 예술의전당의 관객층을 보면 부유층 내지는 가는 분만 계속 가는 겁니다. 눈높이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문턱이 높아서 갈 수 없는 부분이 많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방에 있는 학교 아니면 지방에 있는 공연장 이런 것을 통해서 DVD나 아주 고급스러운 화질 이런 부분은 문예회관 이런 것을 통해서 때로는 동시 중계를 할 수도 있고 전시를 할 수도 있고 또 고품질로 겨울 되면 노인정에 있는 분들 모셔 가지고 그런 것들 관람을 하게 하는, 전국의 네트워크를 문화융성 차원에서 같이 볼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는, 그다음에 시골에 있는 학교에서도 고급스러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창식 위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콘텐츠 영상화사업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갖는데 장관님도 생각이 같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창식 위원 또 하나는 국제 페스티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을 올 8월 달에 아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에 국고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거기 관객도 5만~5만 5000명 정도 왔고 3개 방송사의 코미디 연예인들이 모두 출동해서 아주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영국에 있는 에든버러 페스티벌하고 MOU도 맺었고 아마 내년에는 더 성대하게 이것을 만들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일부분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알겠습니다.

○박창식 위원 그다음에 콘텐츠코리아랩 설립에 대한 20억 원의 증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콘텐츠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창식 위원 이것은 사실은 인큐베이팅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일부 의견은 그렇지 않은 의견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요, 20억 정도 장비구축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이 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창식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학용 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민석 위원 교육부장관님, 이 사진이 뭔지 아세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한번 좀 보세요.

서울의 어느 고등학교 고3, 어제 찍은 거예요. 애들이 책상 위에서 이불 펴놓고 자는 거예요. 여기는 책상 붙여 가지고 드러누워 가지고 핸드폰 쓰고 있고요. 2013년 고3 교실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요, 그렇지요?

이러지는 않더라도 그냥 애들하고 학생들이 멀뚱멀뚱 눈만 껌뻌서로 쳐다보고 그냥 자라고 그러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고3의 교실이에요. 이걸 잘 아시지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니까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안민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 지역구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건 학교에서 아이들을 시립체육관으로 보내서 배드민턴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한 달을 이

렇게 보내도록 학교에서 배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안민석 위원 이런 스포츠 활동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한 달짜리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운영을 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요?

지금 이 한 달은 선생님이나 아이들이나 서로에게 고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학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이거 좀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안 가지고 계신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더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저도 평소에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 좀 더 그 기간을 교육적으로 의미 있게 보내도록 할 필요가……

○안민석 위원 아니, 그런 원론적인 말씀 말고요.

당장 보세요. 지금 이런 학교가 있고, 밖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게 하는 학교가 있고 담요 깔고 자게 하는 학교가 있고 그래요, 이게.

그래도 수능을 11월 달에 봐야 한다 그러면 수능 끝나고 이런 활동을 장려하는 그런 정책을 교육감이나 장관이나 교장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잘 좀 프로그램을 짜 보세요.

그런데 일선 선생님들 말씀은 지금은 성적 처리를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능을 한 달 뒤로 늦춰도 입학사정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의 의견이시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런 문제도 없어지는 거지요.

제가 한 가지 그래서 제안을 드릴게요. 이것을 정책연구를 한번 시켜 보세요.

일단 지금 현 수능 시점에서, 아이들 수능 날짜를 11월 초에 하고 한 달 동안은 어떻게 하면 보낼 수 있는지 좀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고, 아니면 제가 지금 제안드린 수능시험 날짜를 한 달 연기하는 방안, 연기하면 어떤 문제가 혹시 있을지 그것을 한번 정책연구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수능시험을 한 달 늦추든지 아니면 이 한 달 기간 동안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활동을 시킬 수 있도록 하든지 그걸 정책연구를 한번 시켜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발표한 대입제도 발전방안에 수능 시기를 점진적으

로 11월 초에서 11월 하순으로 늦추는 그런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교육적인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점진적이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한다고 그러세요, 별문제가 없으면. 그게 장관님의 의지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것 좀 검토해보십시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연구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다음에 제가 문체부장관님께도 한 가지 연구용역을 제안드리겠는데요.

올림픽 관련해서 98년 나가노올림픽하고 우리 18년 평창올림픽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두 올림픽 모두 국립공원 안에서 경기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문제가 대두되는데, 나가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환경을 올림픽이라 자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국립공원 생태계 복원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어요. 우리 평창도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그런 자료들도 없어요.

그래서 나가노올림픽이 어떻게 해서 환경문제를 올림픽 이후에 극복을 했는지, 우리 평창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연구용역을 지시해서 빨리 좀 시켜 보십시오. 이거 하나 시키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여러 번 지적했는데 평창올림픽 시설 사후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대안이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눈만 멀뚱멀뚱 뜨고 걱정만 하고 있어요. 진짜 문제가 대안이 없다는 게,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이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고 논의가 있고 논쟁이 있고 이게 잘될 수 있을까, 활용 잘될 수 있을까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그림이 없어요. 반쪽짜리 올림픽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올림픽이 성공적인 올림픽을 하고 이후에 올림픽 시설에 대한 레거시(legacy) 보존 활용이 중요한데 후자가 지금 아예 없어요.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맞습니다.

○**안민석 위원** 사실입니다. 이거 빨리 장관님이 신속하게 이 문제를……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내년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이게 사후활용방안까지 되어야 되는데요. 그

래서 이것의 연구용역 두 가지를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 장관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2010년도에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당시 교육부장관하고 문체부장관 두 분이 협약을 맺었어요. 2010년입니다. 내년에 저는 시즌 2,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즌 2……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대통령은 자꾸 이거 잘해 가지고 학교폭력도 해결하고 그러라고 그러는데 그다음 후속적인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내년 초에, 1월이나 2월 개학하기 전에 두 분이 시즌 2를 만드셔서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야당이지만 대통령 말씀을 잘 따르라고 말씀드리는 이런 야당이 좀 이상한 야당이지요. 그걸 좀 하세요.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잘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산도 조금 도와 주시면 내년 2월에 저희 획득하는 데 훨씬……

○**안민석 위원** 어떤 예산요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학교체육 예산을 좀……

○**안민석 위원** 아니, 그걸 왜 저한테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

○**위원장 신학용** 안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徐相箕 委員** 대구 복구를 서상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세 분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부장관님, 어학특기자전형 폐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학부모들로부터 항의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徐相箕 委員** 그런데 이걸 보고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이게 내년 입시까지 9개월 남짓 남은 그런 상황에서 예고도 없이 이런 계획 발표했다 했는데, 믿기지를 않는 게 예고를 안 했을 리가 없을 텐데 과연 정말 예고가 없었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지난번에 대입제도 개선을 할 때 일부에서 특기자전형을 폐지하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교육이나 이런 걸 많이 유발하니까 폐지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걸 갑자기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제도는 유지를 하는 쪽으로 하되 가급적 억제하는 것을 권장하겠다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대학에서 교육부가 특기자전형에 대해서 그렇게 권장을 한다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특기자전형을 하는 일부 대학은 있고요.

○**徐相箕 委員**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徐相箕 委員** 그러니까 그 배경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까지도 교육부에서는 좀 감안을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미 급한 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바로 그냥 하라는 줄 알고 제도를 없애버린단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상을 하시고 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하여튼 예고 없었다는 이야기가 거기에서 나온 거구먼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徐相箕 委員**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그동안 준비해 온 고2 학생들한테 엄청난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 피해학생들이 한 2만 명 정도 된다는 걸 인정하시나요, 숫자가?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徐相箕 委員** 그래서 또 무효청구소송도 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장관 서남수** 소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보고를 받지를 못했구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저희가 만약에 그걸 폐지를 시켰으면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할 텐데 각 개별 대학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서 참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徐相箕 委員**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물론 개별 대학에서 했다고 하지만 첫 시작은 교육부에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또 그리고 교육과 관

련되는 특히 입시와 관련되는 모든 문제는 교육부에서 좀 책임을 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앞장서서 수습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 학부모들이 학교에 가서 항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대학들과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徐相箕 委員** 그래서 그 부분은, 특히 대학들은 아무래도 교육부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고요. 잘 해결되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제화특구사업에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구상했던 교육국제화특구사업 전체 액수가 118억 정도 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徐相箕 委員** 그런데 지금 기재부의 반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徐相箕 委員** 그런데 많은 학부모들이, 특히 지정된 5개 시·군·구에서 하는 얘기들이 다른 어떤 시책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또 현재 예산이 반영 안 됐다고 하니까 불만, 건의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최근에…… 최근보다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반서민, 이것은 무슨 특수한 계층을 위한 것도 아니고 서민들 자체들이 그야말로 수준 높은 영어교육을 공교육에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 제도 말고는 다른 게 없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徐相箕 委員** 이런 제도를 통해서 반드시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어저께 인천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GCF 테이프 커팅하는 것 보셨지요,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徐相箕 委員**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한 기관, GCF하고 월드뱅크사무국만 가지고 국제회의만 연간 120차례 했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徐相箕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외국의 각종 기관들이 거기에, 민간기관도 있고 유엔이나 관련

되는 공공기관도 있을 테고 이렇게 원래 계획대로 입주를 하게 되면 한 기관, 물론 큰 기관입니다만 이 2개 기관에서 국제회의만 연간 120차례를 개최한다고 하니 여기에 관련되는, 이걸 또 뒷받침해야 될 인력들 또 영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력이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할지 사실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인력 수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대비해서라도 좀 미리미리 서민들 자제들이 비싼 과외, 사교육 안 받고도 공교육에서 제대로 된 국제화된 인재를 키울 수 있고 어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은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기재부를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했어야 됐는데 기회를 놓쳤으니까, 물론 국회에서 노력을 하겠습니까마는 교육부에서도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좀 키워 나가고 확대·발전시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공감을 하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하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다만 예산 확보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徐相箕 委員** 이걸 우리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서상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원식 위원** 제가 아까 물어본 ‘누구를 위한 역사전쟁인가’, 그것에 대해서 “일반 국민 대상이 아니고 민간단체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게 인터넷이나 기타 수단을 통해서 특정 검인정 도서를 간접 홍보함으로써 검인정 도서 선정의 공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처리하겠다는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교원단체 등’ 여기만 해당되기 때문에 아니라고 그러는 것이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주로 처음에 염두에

둔 것은 출판사나……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매뉴얼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거 빼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이것을 저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보거든요?

이 교과서를 채택하는데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 그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지요,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런데 대개 공정거래법이 판매자를 상대로 해 가지고 그 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판매를 하는데 잘못된 정보를 주면 그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지요. 공정하지 않은 거니까.

이거 법률적으로 해석을 받아 보셨냐고.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줄 때 ‘일반 국민 대상이 아니므로 민간단체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답변한 게 공정거래법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아 보셨나 이거예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진 않은데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럼 추측한 겁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 그러니까 추측한 것이라기보다도 애초에 교육부에서 그 지침을 만들 때……

○**우원식 위원** 그 지침이 공정거래법에 맞게 돼야 되는 것이지. 제가 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예요, 아니예요? 채택하기 전에 제가 막 교학사 교과서는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절대 채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거 무슨 법으로 처벌할 거예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 문제에 대해선 법적으로 다시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

○**우원식 위원** 지금까지 뭐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장관께서 교학사만 돕느라고 다른 데 정신이 없으신 분 같아.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 전혀 그런 의도가 없고요.

○**우원식 위원** 이거 법률 검토 받아 보세요, 이것이 공정거래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지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정거래법이 중요한 거예요. 법률 검토를 받으시라 이겁니다. 법률이 정하고 있는 바를 매뉴얼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적용 안 되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다시 심층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빨리 변호사들의 법률 검토를 받아서 법률 검토 받은 그 문서를 저한테 보내 주세요.

그리고요 우리가 학교비정규직, 급식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통계청에서 사회조사를 한 게 88년에 했습니다. 그때는 1만 3000~1만 4000불일 때예요. 올해가 2013년 2만 4000불쯤 됐습니다. 1만 불쯤 올랐어요. 그때 통계청에서 사회조사 처음 하니까 ‘나는 하층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한 36% 돼요. 지금 10년이 훨씬, 15년쯤 지나서 조사를 해 보니까 국민소득이 1만 불쯤 올랐는데 ‘나는 하층이다’ 그런 게 46.7%입니다. 그리고 ‘나는 계층 상승이 노력해도 가능성이 낮다’, 57.8%예요. ‘노력하면 가능성이 높다’, 28.2%.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사회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해졌다는 겁니다. 이 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우리 사회의 앞날을 좌우합니다. 750만 비정규직, 600만 영세 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이만큼도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지난 선거 과정에 공약으로 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화하겠다는 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걸 다 정규직, 그것은 법을 또 통과시켜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여기에 장기근무가산금, 이거 1만 원 주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선 안 되잖아요. 최소한 지금 그렇게 해 봐야, 정부의 7·30 대책안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월급 다 해서 평균 2만 5000원이 인상되는데 그렇게 하면 정규직 대비해서 56.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한 70% 올리려면 이거 3만 원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올해 1252억이 더 증액돼야 됩니다. 이거 꼭 그렇게 하십시오, 국회에서 의결할 테니까.

그리고 지금 시·도 교육청별로 1년에 20~40만 원 수준으로 각기 다르게 지급되는 명절상여금, 이것도 노동부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서, 그런 표준안도 있지 않습니까? 100만 원으로 올리세요. 그래서 이게 한 60만 원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하면 846억 올라갑니다. 이것도 국회에서 그렇게 할 테니까 받아서 하세요.

또 학교급식, 이거 그렇게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학교급식이라고 하는 게 가난한 아이, 부자 아이 가르지 말라고 하는 취지도 있고 대부분의 중산층이 이제는 아이들 학교급식 내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걸 줄여 주려면 50% 부담해야 되잖아요. 1조 5000억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교육부가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예결에서 증액할 테니까 그거 받으세요. 어떠시겠어요?

조금만 더……

스포츠강사, 제가 들어 보니까 문화부에서 50% 지원하던 거 있습니다. 초등학교 스포츠 교육이 하도 안 돼서 문화부에서 50% 대고 이렇게 해서 스포츠강사를 2008년에 처음 만들어서 3797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문화부에서 예산 줄이는 덕분에 내년에 800명이 잘리게 생겼습니다. 도대체 무슨 정책이 이렇게 됩니까. 겨우 이제 초등학교에서 스포츠강사들로 해서, 정식교사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비로소 스포츠 교육 이제 좀 시작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예산 얼마나 된다고 그걸 자르세요? 그거에 대해서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위원님……

○**우원식 위원**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신학용** 자, 답변.

○**교육부장관 서남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재원의 한계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재정 당국하고 협의해 가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거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한계를 의식하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능한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원식 위원** 이거요, 이거 이번에 민주당 위원들이 보통 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이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연말에 단단히 하겠다 이야기했는데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이런 요구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잘 전

하시라고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잘 알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교육부도 그냥 예산 범위 안에서 하겠다 이렇게 해선 이게 되질 않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은혜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그 단체가 '민원 제출 단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유은혜 위원** 배재정 위원님이 말씀……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 배재정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의견을 제출한 단체'였습니다. 제가 그 표현을 좀 바로잡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스포츠강사 어떻게 하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스포츠강사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처음에 저희가 50%를 하던 것을 보조율을 바꾸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 학교에 6000명까지 배치를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고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예산 확보를 못 해 갖고 결국에 저희 기금 120억 원이 불용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로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 교육청 예산 등등 관련해 갖고 같이 매칭펀드 하는 데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고요.

○**우원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는 어떻게……

○**교육부장관 서남수** 저희로서도 하여튼 스포츠강사에 대해서는 스포츠 교육을……

○**우원식 위원** 상황을 잘 모르시지요? 장관이 현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교육부장관 서남수** 매칭펀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도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을 받으니까 일부 경기도나 부산 같은 데가 그걸 줄이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속 그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과 계속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확보하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 계속……

○**우원식 위원**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다 다 미루지 말고요, 교육부에서도 좀 감당을 하세요.

○**위원장 신학용** 교육부에서 각 시·도 교육청에다가 예산 배정하라면 할까요? 지금 못 할 거 아니에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문화부 예산은 별개입니까? 똑같은 거지요? 스포츠강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저희는 스포츠강사 부분은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그건 위원님들이 이번에 잘 검토하실 거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저희는 필요한 부분이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듯이 10개월 짜리 계약이기 때문에 나머지 2개월을 마저 채워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문화예술강사도 마찬가지로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잘 알겠고요.

아까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는 한 번 더 검토해 보세요. 여지는 조금 있으니까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법제처라든지 안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직접 한번 의견 조율해 보시고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지금 시간도 얼마 없는데 빨리 하셔야지.

다음은 존경하는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염동열 위원** 염동열 위원입니다.

문화부장관님.

10페이지, 관광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서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염동열 위원** 1788억 7800만 원이 올해 다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맞습니다.

○**염동열 위원** 이게 몇 년 동안 진행된 사업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지금 이게 2004년부터가…… 23년까지 20년 동안 들어가는 거지요.

○**염동열 위원** 이게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광주지구입니다.

○염동열 위원 그 광주지요?
이게 2조 8000억 들어가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총예산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염동열 위원 그렇지요.

저는 또 제 지역 얘기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누차, 작년서부터 속기록을 보시게 되면 제가 단순하게 제 지역에 대한 사업을 챙기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올림픽을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지렛대로 써야 되고 기회로 써야 되고 또 우리나라 기술 상품을 함께 마케팅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써야 되고 또 관광문화를 개발해서 그 개최 도시를 세계 속에 내 놓아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이런 얘기만 한 열 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지금서부터 당장, 급하게 이런 문화관광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서부터 디자인하고 또 타 부처와 타 업무와 융합하고 디자인해 가면서 장기적으로 이 도시가 세계적인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문화관광, 올림픽관광에 대해서 전혀 예산이 서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결산 위원회를 할 때 정말로 우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조직위나 문체부나 개최지에 350명 정도의 인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문제를 다루는 부처가 없으니 조직을 좀 더 확대해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1명 정도가 배정이 되는 걸로 되어 있었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염동열 위원 그런데 인원을 늘려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350명, 3명 가지고…… 가장 중요한 이 두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히려 경제적 재원의 낭비다, 국가의 행사를 통한 소모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좀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리고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마는, 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R&D사업,

저는 개인적으로 개최 도시의 시·군 사업들을 가능한 한 종합적으로 디자인해서 중복되지 않고 또 차별화, 연계화시켜서 정말 커다란 하나의 관광 브랜드를 만들어서 통합 관광도시를 세계 속에 내놓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있는 것 갖고도 그렇게 부족하다고 보진 않습니다마는 여기에 조금만 더 보태 주면, 조금만 더 이렇게 연계할 수 있게끔 해 준다고 한다면 지역적 조건이 바다와 산이 있고 폐광지와 올림픽 개최지가 융합을 하면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욱이 4조 원을 들여서 철도가 건설이 되고 각종 접근 도로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문화관광 인구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 지역의 문제보다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각할 수 있는 그래서 한국 관광이 관광 대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옳은 말씀입니다.

○염동열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R&D 사업 좀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도 단순하게 지역의 민원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우리 국가 원동력의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고요.

또 이 폐광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폐광지가 거의 20년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그 지역을 발전시킬까 하는 이런 정확한 비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월 따로 정선 따로 삼척 따로 태백 따로……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합적으로 하나의 콘셉트로 가져가야 한다, 그러려고 한다면 올림픽 개최가 되니까 이것을 함께 융합하는, 폐광지를 관광 자원화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현재 여기에 2760억 원이 사실은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이것이 효과적으로 좀 투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거는 폐광 지역의 자립 경제 기반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효과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것과 올림픽 개최지를 접목시켜서 연계화, 차별화시켜서 하나의 커다란 관광도시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제때 제 시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장관님이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

○**염동열 위원** 우리 교육부장관님, 강원대병원 지난번에 제가 국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노후 의료 장비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 뭐 제가 지역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저하게 전국에서 꼴찌더라고요. 그걸 좀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EBS 공적 재원 확충을 위해서 교육부가 여러 가지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서 우리 EBS 방송이 우리 학생들에게도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몇 개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정원이 좀 많다고 해서 지적을 당했지요. 또 여기의 기초연구사업에 대해서 좀 깎자고, 삭감하자고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살펴보셔서 원안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장관님, 함께누리어울림 체육시설조성사업이 있죠? 이것도 한번 좀 살펴봐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염동열 위원** 사실 민원인이 의뢰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해 주시고요.

예술공간 융복합 활성화 지원 독자 사업이 또 있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염동열 위원** 이것 조금만 더 증액시켜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를 보니까 균형적으로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관님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저희는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좀……

○**염동열 위원** 그리고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이것이 예산 증액을 좀 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좀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오늘은 사실 여러 가지 예산에 관련된 말씀을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균형 있게 예산이 좀 집행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좋은 말씀입니다.

○**염동열 위원** 장관님, 어쨌든 올림픽 배후 도시에 관한 문화관광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더더욱 관심 가져 주시고요.

우리 교육부장관님도 여러 가지 교육을 위한

인프라 사업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염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유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은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던 초등돌봄교실 확대 운영이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 교육, 이게 다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건데요. 국고에서 편성하지 않으면 이게 다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유은혜 위원** 제가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내년 예산안을 받아서 좀 분석을 해 봤더니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저기 보시면 2014년도의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300억 원 증액됐는데 자치단체 전입금이 1600억 원 감액돼서 거의 동결 수준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세출예산에 보니까 인건비 5000억, 누리과정 1조 2000억, 내년 교육감 선거 비용 1500억 해 가지고 이 세 가지만 계산을 해도 다른 필수 증액 예산 다 빼고라도 1조 9000억 원 정도가 지금 결손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상황이 예비비는 이만큼 감소했지요. 4931억 감액했지요. 그리고 시·도 교육청에서 지방채를 거의 2조 가까이 발행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하더라도 각 시·도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한 사례를 보니까 거의 공약과 관련된 예산들을 미편성한 것들이 대부분이 많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초등돌봄교실 5개월분 운영비 164억이 미편성됐고요. 조리 종사원 인건비 268억 미편성됐고요. 그리고 대구 부산 인천 경기 전남 이 5개 지역은 누리과정 예산이 일부 미편성됐기 때문에 누리과정이 중단될 수도 있는 이런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옆의 사업명이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업인데요. 이 사업별로 17개 시·도 교육청 예산 감소 상황을 살펴봤더니 거의 대부분

분 교육청에서 이것 관련된 예산들이 증액되기는 커녕 다 감액됐고요. 그 밑에 각 시·도 교육청별 교수-학습 관련 예산도 거의 대부분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알고 계시죠, 장관님?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상당히 재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은혜 위원**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워져서 작년부터 저희가 계속 지방교육재정 부족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들, 대안들을 마련하고자 촉구를 해 왔었는데 여전히 올해 같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에서 누리과정 부담 예산으로 지금 3조 2000억 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교육부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거나 이게 어렵다고 하면 어린이집 관련된 누리과정이라도 보건복지부로 넘겨서 국고로 편성을 해야지만 지방교육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이, 지금 계속 저희가 법안도 내고 했습니다만 현행 20.27%에서 최소한 2% 정도라도, 22.27%로 조정해서 증액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 법안까지를 포함해서 교육부장관님 입장을 좀 밝혀 주시고.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서 특별교부금 비율이 지금 현행 4%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2% 가량 줄이면 8259억 원가량의 특별교부금을 보통교부금으로 편성할 수가 있어서 보통교부금으로 편성해서 교부하는 방법까지 해서 제가 제안을 이렇게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학교비정규직, 뭐 그냥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올해 학교비정규직이 한 14만 989명으로 그때 교육부에서 조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가 그 직종별 숫자와 평균 근속연수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1년에 3만 원 근속수당 지급한다고 계산을 해 보니까 현행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기 근무가산금 규모에 비해서 1607억 원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고로 1607억 원을 순증 반영해야 최소한 지금 학교비정규

직 근속수당과 관련된 것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영해서 해 주시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 앞서 염동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에도 지적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간 없어서 짧게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당시 예산 심의 때 부대의견 달아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켜지지 않았고 또 구조조정이나 방만한 운영과 관련해서 지적이 됐는데도 계속 고쳐지지 않고 있어서 관련된 예산들 17억 8200만 원 그리고 9억 원, 12억 9000만 원 이래서 신규 예산과 또 인건비 등 해서 총예산 삭감을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테니까 이것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 관련해서 일단 교육부장관님부터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짧게 해 주십시오.

○**교육부장관 서남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는 지금 저희가 기재부하고 계속 논의를 해도 거기는 아주 완강합니다. 그러면서 내세우는 논리가 금년, 내년이 굉장히 어렵다……

○**유은혜 위원** 누리과정 예산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고에서라도 반영이 돼, 일시적으로라도……

○**유은혜 위원**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에서 반드시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지방교육재정 과탄 납니다. 누리과정 중단됩니다, 그러면.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제 재정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그렇기 때문에 여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처우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제가 문체부장관님께도 말씀드릴게 있어서……

예술강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면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예술강사 강사료 10년 동안 계속 4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맞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유은혜 위원** 그래서 5만 원으로 인상하면 지금 편성한 예산보다 292억 원 증액해야 되거든

요. 이 부분 좀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유은혜 위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경상사업비 지금 17억 원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은혜 위원 안 그래도 적은 예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원래대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장관님, 아까 상지대 자료 언제까지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배재정 위원님 그 단체가 의견 제출 단체라고 하셨나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유은혜 위원 의견을 제출한 단체가 몇 개나 되고 그 제출 현황이나 단체 현황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 서남수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이내에 교과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단체가 한 20여 개 정도 돼서 그 기관에 전부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드리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의견을 주신 단체들 현황을 주시고요.

상지대 자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상지대 자료 중에 세 가지 정도를 요청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는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나는 사실은 아직까지 저도 지금 검토를 못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건 좀 더……

○유은혜 위원 하나가 어떤 건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임시 이사회 소집 승인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도 아직 그걸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유은혜 위원 학교에서 제출했잖아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제출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좀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라서 그건 조금 시간……

○유은혜 위원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 그대로 주십시오.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건 시간 여유를 좀 주십시오. 저 스스로조차도 지금 아직 제대로 검토를 못 해본 상태라서……

○유은혜 위원 아니, 장관님도 보시고요.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 주시면 저도 검토하고 장관님도 검토하고 같이 검토하면 되죠. 그게 어떻게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안 주시는 거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건 조금 시간 여유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좀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은혜 위원 하여튼 바로 좀 주십시오.

교육부장관님 걸러서 걸재받고, 저희가 자료를 다 걸재받고 받아야 되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긴 합니다마는.

○배재정 위원 자료제출 요구 있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질의 다 끝나고 나서 하지.

○배재정 위원 아, 그럴까요?

○위원장 신학용 자, 본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희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부산 연제구 지역구 김희정입니다.

먼저 교육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장관님께서 저희에게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부각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고등교육 부문이시고, 그중에서도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반영된 예산대로라면 이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학교가 몇 개교 정도가 됩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처음에 한 5, 60개 대학 정도를 생각하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상당히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김희정 위원 지금 현재 예산을 다시 계산해 보면 한 40개 학교 정도밖에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죠?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리고 지원 규모도 너무 작게 될 것 같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래서 기왕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여러 학교가 동시에 시스템 개선이 이

루어져야 효과가 있지, 이것은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종류의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액을 좀 해서라도 원래 교육부에서 생각하셨듯이 조금 더 많은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위원님 이 사업은, 사실은 중등교육 정상화는 대학에서 입학정책을 어떻게 하느냐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너무 규제 위주로 갔는데 대학들이 그런 쪽에 기여하는 쪽으로 유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그 예산이 당초 저희가 신청했던 그런 규모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저도 세부사업 내용을 봤더니 대학에 제출하는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 유사도 등에 대한 문제를 검색하고 강화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국정감사 때 사설 컨설팅 같은 것을 줄이기 위해서 더 많은 정보를 대학이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는 게, 그게 고교교육이 정상화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업이 확장되기 위해서라도 이 지원사업에 대한 증액을 요청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감사합니다.

○**김희정 위원**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역시 제가 제출했던 법률안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사실 과거에 비싼 학자금 대출, 높은 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과 몇 년 뒤에 대학을 다녔다는 이유로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 간에는 상당한 차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 교육부가 든든학자금제도를 했기 때문에 과거에 비싼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을 이 전환대출 사업을 통해서 싼 이율로 낼 수 있도록 전환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 책정안을 봤더니 현재 재학생만 수혜 대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재학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출 당시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야지 이게 공평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부 입장이 어떻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한이 되는데, 이것을 확대를 하려면 관련법 개정이

선행이 돼야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김희정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야당 간 사님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산 심사하는 도중이지만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법안 심사를 하기로 했고 이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입법 미비 부분을 보완을 할 테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의지를 가지고 하셔서 현장에서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로 인해서 신용유이자 내지는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알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다음은 문화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김희정 위원** BCM 혹시 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어디요?

○**김희정 위원** BCM, 부산콘텐츠마켓.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아, 예.

○**김희정 위원** 가 보신 적 있으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금년에 부산에서 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희정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가지는 못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희정 위원** 굉장히 수출 실적이, 7년 동안 처음 대비해서 4배로 늘었고요, 참가 규모도 3배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과가 있는 그런 콘텐츠마켓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잘되는 사업을 밀어주지는 못할망정 전년도 예산보다도 감액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계속 유지하기가 현장에서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인데, 방송영상콘텐츠 시장의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서라도 전년도 예산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저는 상임위에서 증액 요청을 할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다음으로 얼마 전에 문화부가 국민건강지식센터와 업무협약 체결한 것 있는데, 혹시 내용 확인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김희정 위원** 건강위기 관련해서 사후치료가 아닌 사전예방적인 접근으로 고령화와 만성질환

에 대비하자라는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하셨던데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지금 저희가 생활체육 그쪽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아직 좀 부족합니다. 그것 좀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김희정 위원 그래서 건강문화 확산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하겠습니다. 부처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감사합니다.

○김희정 위원 그리고 체육 관련된 질의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돼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태릉선수촌의 실내 빙상장에 물이 새고 운무가 발생을 해서, 우리가 평창동계올림픽까지 앞두고 있으면서 더 좋은 시설은 못 할망정 훈련은 고사하고 지금 안전의 문제가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보수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것 10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김희정 위원 적극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업 중에서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부지조성 설계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예산 편성 과정에서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명목으로 5억 원만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부지 설계비하고 부지조성 부담금에 대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요청할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것은 50억 정도 증액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50억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김희정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김희정 위원 문화재청에는 역시 제가 국정감사 때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스토리텔링을 발굴만 해 놓고 확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존에 발굴했던 스토리텔링 사업이 보급될 수 있는 예산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입장이 어떻습니까?

○문화재청장직무대행 박영대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정 위원 자료제출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학용 자료제출 요구해 주세요.

○배재정 위원 교육부장관님께 요청드립니다.

역사교과서 관련 의견을 제출한 단체에 대해서 아까 공문을 보내셨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교육부가 이런 의견을 받으셨는지, 그러니까 파악하고 있는 모든 단체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받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불쑥불쑥 보내오는 의견들을 참조해서 의견을 안 보낸 데는 빼고 받으셨는지 그런 방식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견을 제출한 단체로 범위를 한정해서 공문을 보낸 이유는 무엇인지, 예컨대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한 단체들은 그러면 왜 제외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견을 제출한 단체의 전체 리스트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교조하고 전국역사교사모임은 교육부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않아서 발송 대상에서 제외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을 주시고요.

또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 동안에 말씀드렸는데, 이명희 교수가 홍보물을 2만부 배포한 것과 관련해서 검정실시 공고 유의사항에 분명히 적시돼 있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답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간교사제와 관련해서 시간교사제에 대한 교육부의 방침 그리고 로드맵, 대책을 제출해 주시고, 학교 현장이나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내용도 제출해 주시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분명히 학교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는 지금 원하면 시간선택제도 했다가 정규직도 하게끔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물론 아직 방침이 안 정해지셨다고는 했는데……

그러면 예컨대 모든 정규직 교사가 ‘나, 시간선택제 할래’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고, 거꾸로 모

든 시간선택제 교사들이 ‘나, 지금 정규직 할래’ 그러면 교육부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선택제 선택하시는 분들 적으면 나중에 분명히 쿼터 정해 가지고 약한 고리부터 할당으로 채워 넣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그리고 전면 재검토와 관련한 저의 요구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냥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시간선택제 교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을 하나하나씩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어서…… 뭐 저희는 기본적으로 학부모나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들이 전부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지금 한창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 제출한 단체는 대법원 판례에 학부모 단체나 이런 쪽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다는 그런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교과서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에 의견을 제출한 단체면 대개 교과서 문제에 관심이 있는 단체라고 보고 그렇게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의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학용** 우리 장관께서는 이 법안 준비다 됐습니까? 아직 시간 많이 걸립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어느 법안이요?

○**위원장 신학용** 지금 시간선택 교사제……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요, 아직도 지금 그것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가능성이, 우리 교직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은 제도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리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짚어 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부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거네.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요, 뭐 안 하는 것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시기 같은 것은 조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좋은 제도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알겠습니다.

○**정진후 위원** 위원장님, 그와 관련해서 제안만 하나 간단하게……

○**위원장 신학용** 관련해 가지고?

○**정진후 위원** 예, 시간선택제.

○**위원장 신학용** 모든 자료 다 줄 것 아니에요?

○**정진후 위원** 아니요, 시간선택제 관련해 가지고 자료……

○**위원장 신학용** 예.

○**정진후 위원**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진후 위원** 꼭 필요한 내용 두 가지만 좀 포함을 시켜서 이후에 그 결과를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시간선택 교사제를 채택함으로써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꼭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리자 말고 교사, 선생님들의 의견조사서를 꼭 좀 같이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하여튼 저희가 교원단체하고도……

○**정진후 위원** 아니, 교원단체가 아니라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선생님들의 의견조사를 꼭 좀 해 주셔서 같이 붙여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기초 초안이 아직 안 나온 상태기 때문이에요.

○**정진후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게 나중에 나온 뒤에 또 의견 수렴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정진후 위원** 그래서 그 내용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꼭 좀 전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유은혜 위원님 자료 신청하세

요.

○유은혜 위원 배재정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하고 중복되는데요.

제가 지난 국감 때 이명희 교수의 서울역 앞 20만장 홍보물 배포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장관님께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해 오지 않으셨거든요.

지금 배재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저한테도 관련 자료 함께 보내 주시고요. 아까 의견 제출한 단체라고 하는 그 리스트와 내용도 좀 같이 보내 주시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정책실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도 장관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학용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하실 분들 있으십니까?

○박흥근 위원 짧게 하지요, 짧게.

○정진후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짧게, 왜냐하면 예산 관련 문제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고, 뭐 물어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그러면 쉬지 않고 하겠습니다.

잠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할까요? 안 그러면 금방 끝날 것 같으면……

○염동열 위원 10분 안에 끝내지요.

○위원장 신학용 몇 분 정도 하실 거예요, 몇 분 정도?

추가질의 하실 분?

○배재정 위원 질의하는데 눈치가 보여요.

○도종환 위원 짧게요.

○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그냥 쉬지 않고 3분씩만 드릴게요.

먼저 시작하세요, 우리 도종환 위원님부터.

○도종환 위원 다들 서면질의로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짧게 하겠는데요.

교육부장관님.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도종환 위원 지금 과장이 자료를 갖고 온 것중예요, 교학사 교과서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받으면서 자체 수정을 하겠다고 갖고 온 것들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쌀 ‘수출’ ‘수탈’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반출’로 자체 수정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반출. 반출이라는 것이 영어로 얘기하면 캐리 아웃

(carry out)이예요, 테이크 아웃(take out). 이 반출은 말하자면 물건을 어떤 곳으로 운반해서 옮기는 거거든요. 이왕 자체 수정하겠다고 했으면 ‘수탈’로 하라고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쓰던 용어는 ‘공출’이예요. 공출이라는 말도 썼거든요. 가마니 공출, 쌀 공출, 공출이라고 썼고, 이것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낸 한국사에 보면 공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껏 한다고 하면서 그냥 ‘옮겼다’ 하는 의미보다는 이왕 한다면, 251개에 안 들어 있는 걸 자체 수정하겠다고 했다면, 이왕이면 정확한 용어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요.

또 일본 식민지 자본의 ‘진출’이라고 하지 말고 ‘침략’이라고 해야지 맞다고 제가 주장을 했는데 또 어떤 교과서에는 ‘침탈’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뭐라고 했느냐면 ‘침투’라고 고치겠다고 그랬어요, 자체 수정에. 침투라는 것은 어떤 사상이나 현상 따위가 깊이 스며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 ‘무장공비 침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균 침투’ 일반적으로 쓰는 용례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침투의 어휘·어감이라는 것이 깊이 스며들어 퍼진다 하는 건데, 여기에 적합하지 않거든요. 이왕 자체 수정하겠다고 했으면, 침략은 너무하다라고 만약에 생각된다면—저는 분명히 침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 의견이고—침탈이라는 용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개념, 침투는 적합하지 않은 용어예요. 우리가 그동안 무장공비 침투니 뭐 이런 것 많이 썼잖아요. 그것도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일단 한번 전달은 해 보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전달을 한번 해 주셨으면, 이왕 고친다는 거기 때문에……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런데 자체 수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은……

○도종환 위원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정교과서에, 주장할 수 있지만 강요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왕이면 이런 용어가 훨씬 더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실 수는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흥근 위원님……

○박흥근 위원 아니, 우리 배재정 위원님 먼저.

○위원장 신학용 배재정 위원님부터……

○배재정 위원 3분이라서 너무 짧네요. 1분에 1 건씩 해야 되겠습니다.

문화부장관님, 최근 언론에도 좀 보도가 됐습니다만 언론진흥재단 신임 이사장으로 김병호 전 의원이 유력하다는 말 돌고 있는 것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배재정 위원 제가 뭐 길게 구구절절 설명을 안 드려도…… 국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문가들보다는 산하기관장들께서 소위 낙하산 인사로 많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병호 전 의원께서는 물론 언론인 출신이기는 한데 지방선거 공천현금 받고 의원직 박탈당한 전력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에 신임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될 만큼 사실상 낙하산이라고 해도 누구도 부인 못할 분이실 텐데,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공공기관장으로 낙점되는 것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뭐 도로공사 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보도도 났고 저희가 브리핑도 했었는데요.

문화부장관님께서서는 다른 어떤 장관님들보다 이런 공공기관장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전문성을 중요시하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의히 처리해 주시고, 더 이상 국민들의 우려가 안 나오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산국제영화제 얘기를 좀 제가 하겠습니다.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영화제에 찾아가서 관계자들 만나셔서 ‘영화산업이 문화융성의 핵심이자 창조경제의 원동력’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영화제 지원 예산들이 다 기금으로 전환이 됐지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배재정 위원 그런데 기금에서 지출되다 보니까 예산액 늘리는 데 한계가 있고요. 실제로 또 기금이 뭐 2019년이나 20년 되면 고갈이 예상된다 이렇게들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영화제에, 뭐 국제영화제를 좌파로 몰고 색출하겠다 이러면서 사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의 일환으로 이렇게 기금으로 바꾼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일반회계로 전환하

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시고.

올해도 영화제 예산 지출액을 지난해보다 3억 원 감소시키셨는데, 이렇게 3억 원 깎는다고 영화제 못 열리는 건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삭감해 나가면 영화제들 정말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다시 환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영화제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문제 좀 고민하셔서 저희한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직무수행경비 운영 개선과 관련해서 국감 때 많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직무수행경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부분은 우리 문화부가 제출한 개선 방안에 빠져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부에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다음에 과도하게 책정된 업무추진비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무수행경비를 하향 조정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

○위원장 신학용 그리고 더 할 수 있는 것은 서면으로도 얼마든지 질의하시면 되고요.

○배재정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유은혜 위원님.

○유은혜 위원 문화재청차장님.

○문화재청장직무대행 박영대 예.

○유은혜 위원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관련해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시급하다고 해서 임시처방이라고 카이네틱담 건설하는 것 이번에 보니까 57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던데요. 얼마 전에 반구대 암각화 주변에서 또 공룡 발자국 화석이 새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문화재청장직무대행 박영대 예.

○유은혜 위원 카이네틱담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문화재 전문가들의 의견도 일치하지 않고 있고요. 시급하게 임시 처방적으로 이렇게 57억 원 책정하는 것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셔서 이 57억 예산은 좀 삭감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출자규모 100억 정도로 좀 조정하고 나머지 100억 원은 콘텐츠공제조합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게 아닌가라는 의견입니다.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출자되어 있는 펀드들을 투자처나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점검하셔서 전체적인 조정 방안이나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유은혜 위원 1분 남았으니까……

아까 교육부장관님께 제가, 한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장관님께 지난번 금성출판사 교과서와 관련해서 지금 5년에 걸쳐서 소송이 진행되었고 얼마 전에 판결이 났는데 그때 피고로 참석했던 분이 출석해서 그 사건을 계속 주도해 왔었던 분이 지금 또 그 자리에서 다시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맞지 않다고 지적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지금 잠깐 입장을 좀 밝혀 주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기본적으로 그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철학에 의해서 했던 게 아니고요.

○유은혜 위원 물론 개인적인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리고 그때 판결에서 지적이 된 것은 검정에 준하는 절차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에서 지적한 내용이 그 검정 자체에 대해서는……

○유은혜 위원 그런데 장관님, 지금 실장님께서 피고석에서 계속 그것을 꺾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담당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의 이 모든 교과서 문제의 중심에 지금 실장님이 실무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런데 저는 중심이라기보다는요……

○유은혜 위원 어쨌든 실장님으로서 책임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런데 그 금성교과서 때 문제가 되었던 정황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은혜 위원 장관님,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요청드리는데요. 국민들이 보기에 일반 상식적으로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인사입니다. 학교에 계셨던 분을 다시 그 위치에서 그런 역할을 맡기시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담당해 왔던 그 문제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런데 위원님, 교육정책 실장님이 작년도 3월 달에 저희가 모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때였습니다.

○유은혜 위원 지금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담당을 해 오셨던 분이니까요. 이것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학용 유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진후 위원님.

○정진후 위원 교육부장관님, 얼마 전에 사립학교 개방이사제와 관련해서 헌법소원 판결난 것 아시지요?

지금 대학 중에 연대, 성대, 고대 이 3개 대학에서 헌법소원까지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개방이사제 도입 안 했거든요. 그런데 헌법소원 판결이 났으니까 그때 당시에 주장했던 것 전부 다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정진후 위원 이 개방이사제를 둔 취지의 의미를 살려서 최소한도 연대, 성대, 고대가 2013년 12월 말까지 개방이사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교육부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강구를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진후 위원 아니, 그것은 하셔야지요, 법에 따라야 되니까. 지금 몇 년간을 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저희는 계속 개방이사……

○정진후 위원 그러니까 강력한 조치를 대책을 세워서 가지고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재청.

○문화재청장직무대행 박영대 예.

○정진후 위원 제가 예산 증액을 요청을 할 건데요. 자료를 예산심의할 때 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관련해서 지금 시간강사 1인당 인건비가 7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지요?

○문화재청장직무대행 박영대 예.

○정진후 위원 다른 국공립대 8만 원씩이거든요. 이와 관련된 소요 예산을 좀 뽑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직무대행 박영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후 위원 증액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다음 문화부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정진후 위원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이것 사실상 남북물길 조망지구 사업 이것은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생태평화벨트요?

○정진후 위원 예, 313억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케이블카 아닌데요?

○정진후 위원 로프웨이 설치사업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보시고 예산심의 때 정확한 사업내용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후 위원 마찬가지로 세종학당 관련해서도 제가 예산 증액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종학당이 사실상 부실 운영되지 않고 형식상·명목상 운영되지 않고 충실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시설을 개선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력, 그다음에 재단 사무공간 이런 것들을 이전 경비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책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때 이 부분이 좀 검토될 수 있도록 예산내역을,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최소한도 충실한 운영이 단계적으로 되더라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정진후 위원 그래서 단계적으로 충실한 운영, 알맞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계적 계획 예산을 좀 뽑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알겠습니다.

○정진후 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예산을 증액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감사합니다.

○정진후 위원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동의합니다.

○정진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박홍근 위원 문체부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홍근 위원 스포츠강사 문제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홍근 위원 이것은 교육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세부 추진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 대응투자를 양 부처가 원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응투자에 문체부 비율을 30%에서 20%로 낮추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홍근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줄어들면서 강사들이 길거리로 내쫓길 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홍근 위원 다수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분들을 구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인천·전북·경북 봤더니 예산 확보율이 54%, 45%, 31%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체부가 보다 좀 적극적으로 이 대응투자 비율을 20%로 낮출 것이 아니라 다시 당초대로 30%로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저희는 동의합니다.

○박홍근 위원 그리고 짧게 하나 여쭙볼게요.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백남준의 작품목록화 사업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홍근 위원 이것 중단될 위기에 있습니다. 이걸 뭐 작년에도 기재부에서 이것을 거부했는데 애초에 좀 이것을 정부 예산안으로 올리지 왜 못 올렸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저희한테 그때 정

식으로 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근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은 정말 세계적인 예술가가 고국에서는 홀대받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동의합니다.

○박흥근 위원 또 한 가지, 예술인 총조사 전혀 안 된 것 잘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흥근 위원 지금 고용정보원에서 32만 명~54만 명 이것도 추정되고 있는 것이고 문화부 차원에서는 전혀 규모에 대한 조사를 안 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합니다.

○박흥근 위원 그래서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된 만큼 이 예술인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박흥근 위원 그래서 이것 예산 꼭 좀 반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동의합니다.

○박흥근 위원 그리고 교육부장관님.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흥근 위원 건국기념역사관 아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흥근 위원 어떤 자료가 전시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주 구체적인 것은……

○박흥근 위원 국편 청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게 취지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홍보한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록을 분석해 보니까 총 109개의 사진자료 중에서 이승만 정부 38건, 박정희 정부 25건, 전체의 절반을 넘고요. 일색이 다 미화하고 그다음에 치적 부각하는 내용들입니다, 과오에 대해서 전혀 기재된 게 없고. 반면에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부분은 치적도 제대로 실지 않았고요, 내용도 아주 적게 해 놨어요. 최근의 이명박 대통령보다 전시물이 적습니다.

저는 이 사료 내용 제대로 형평성 있게 이것을 보완하지 않으면 이 기념관 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한번 국편하고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근 위원 반드시 유의 깊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번 예산 과정에서 제가 이것은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박흥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님.

○金世淵 委員 문체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金世淵 委員 문화예술진흥기금에 현재 예산 편성이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서, 650억 원 이상 늘어서 1800억대로 올라왔는데요. 우리와 비교될 수 있는 비슷한 다른 나라의 관련 예산들을 보면 잉글랜드예술위원회가 1조 3000억 원대이고요, 호주예술위가 1700억 원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전액이 문예진흥기금에서 나오면서 앞으로 문예진흥기금의 고갈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500억 원 정도를 국고에서 편성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 부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금에 대한 이자율이 워낙 낮아졌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기금으로 따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국고로 다 확보를 해 가지고 공급을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世淵 委員 그래서 2014년 내에 정부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마련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검토하겠습니다.

○金世淵 委員 지역신문발전기금이 현재 역시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질의 하겠습니다마는 출연금이 1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영화발전기금 부가금 연장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확대가 필요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것은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世淵 委員 그래서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극장업계 등과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소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장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

에 조금 더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감사합니다.

○金世淵 委員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경우에 현재 정보화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경상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7억 원을 신규 편성해서 53억 원이 지원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17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한 데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시십시오.

○金世淵 委員 그리고 최근에 시내에 보면 종묘나 탑골공원 인근에 어르신들께서 낮에 소일거리가 없어서 거기에 많이 와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피카디리 극장이 종로3가에서 예전에 비해서는 명성이 많이 낮아져 있고 활용이 많이 되지 않고 있는데, 노인전용 실버극장으로 개관해서 다음 세대들과 어르신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또 취미를 잘 살리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를 위해서는 실버극장 리모델링 및 운영 지원을 위해서 예산 150억 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필요합니다. 도와주시면 저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世淵 委員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국과 또 호국 과정에서 역할을 하신 어르신들이 좀 더 의미 있는 취미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위원장 신학용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 위원 문화부장관님께는 질의를 못 드려서요. 제가 국감에서 지적했던 3대 문화권 관광기반 조성사업 지금 중간평가 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은 중간평가 한 후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많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김상희 위원 더 삭감해야 되고요. 지금 201억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4대강 강변 문화관광개발 사업, 이 부분도 지금 집행이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대폭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국제영화제와 관련해서요 예산은 삭감이 됐는데 지원 부분은 개방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 자격을 개방을 하면서 예산을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좀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중문화콘텐츠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유독 만화산업 육성사업이 22%나 대폭 삭감이 되고 또 세부편성 내용을 보면 디지털만화기반조성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50%나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은 상당히 근거 없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밀려서 그런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다시 복구시키는데 좀 도와주시면……

○김상희 위원 이거는 좀 복구시켜야 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감사합니다.

○김상희 위원 또 국감에서 지적했던 인조잔디 유해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광특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김상희 위원 그런데 개보수 관련 예산이 한 푼도 배정이 되지 않았어요. 이것을 광특에서 살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별도로 문화부 소관 사업으로 해서 인조잔디 유해성 점검 및 전수조사 사업 명목으로 해서 한 10억 원 정도는 편성을 해서 이 부분을 개보수 예산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감사합니다.

○김상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유감스러운 게 국민생활체육과 관련해서요 저는 좀 놀랐습니다. 지금 정말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이 체육활동이 국민들의 삶의 질에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건강 관련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다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좀 줄었습니다.

○김상희 위원 이것은 다시 복구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좀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감사합니다.

○김상희 위원 노인체육 예산이 지금 좀 증액은 됐으나 전체 생활체육의 5%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노인 인구에 비교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증액하는 데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너무 취약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국감 때 지적한 부분인데요. 스포츠인권익센터 이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한 군데만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김상희 위원 이 부분은 적어도 우선 6개 권역 별로 해서 스포츠인권익센터를 설치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스포츠계의 여러 가지 인권 문제라든가 성폭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적극 동의합니다.

○김상희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정말로 마지막입니다. 박혜자 위원님.

○박혜자 위원 박혜자입니다.

제가 교육부장관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까 잠깐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세계로 프로젝트 사업, 이번에 신규로 세계로 사업이 신청이 됐는데요. 그동안에 2010년부터 추진돼 왔던 GHC 사업—해외산업체 연계교육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이 사업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사업을…… 지금 예정처에서 사실이 사업이 성과가 없다라고 하는 판명이 났었지요. 그래서 사업을 중단하자 바로 내년도 사업에다가 세계로 프로젝트 사업을 추가를 시켰어요.

장관, 이렇게 해도 됩니까? 지금 원래 GHC 사업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 실적이 첫 해를 제하고는 거의 안 됐어요. 그래서 절반밖에 안 찬 그러한 사업인데, 실패로 끝난 사업인데 거의 구분이 안 되는 사업을 바로 내년도부터 새로이 세계로 프로젝트로 넣었는데요. 이 세계로 프로젝트 사업은 저는 전면 재수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성과가 저조한 사업 자체가 문제가 돼서 예산정책처에서 중단을 요구하니까 이것을 중단하면서 이름 바꿔서 새로운 사업처럼 포장해서 내는 것 적절치 못하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요, 포장을 한 게 아니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GHC 사업의 미흡했던 부분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박혜자 위원 미흡했던 부분이 여기에 계속…… 해외산업체 맞춤형 전공교육이라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에게 이 해외산업체 맞춤형 전공교육을 시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외국업체에 일할 외국인 유학생을 그 나라에 가서 가르친다라는 게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특성화 전문대학, 이번에 전문대학 사업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100개교 육성사업 그 계획서를 보니까요 내년도에는 70개교 전문대학을 지원을 해요. 그런데 계획에 따르면 2017년 되면 100개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링크사업은 매년 30개씩 지원하지요? 링크사업 매년 30개 학교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7년에 이르면 지금 교육부의 계획에 따르면 130개의 전문대학이 지원을 받게 돼요. 지금 전문대학이 몇 개냐 하면 139개입니다. 그러면 100개 전문대학을 그렇게 링크사업이라든가 특성화사업으로 지원해 주면 과연 구조조정이 됩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링크사업하고 이 특성화사업은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그리고……

○박혜자 위원 다르지요. 그러나 전문대학에 지원을 하는 숫자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런데 그……

○박혜자 위원 국비 지원이, 말하자면 링크사업에 대해서 연도별로 30개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리고 지금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2017년에 100개교를 지원하신다면서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총 130개가 지원을 받네요, 갖가지 명칭으로?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요, 그 링크사업하고 특성화사업은……

○박혜자 위원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

는 건 제가 인정했어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다르기도 하고……

○**박혜자 위원** 좋습니다. 다른데, 다르더라도 지금 139개의 전문대학 중에서 100개교 지원받는 것, 그러면 전문대학 39개 제외하고는 다 정부 지원…… 차라리 그냥 나눠 주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요, 그러기보다는 이 특성화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대학들은 상당히 강한 구조조정을 하게 될 겁니다.

○**박혜자 위원** 특성화가 되지가 않지요. 139개 중에서 100개교를 지원한다라고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게 맞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대학은 또 링크사업으로 지원하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특성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구조개혁이 동시에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링크사업하고는 완전히……

○**박혜자 위원** 아니, 139개교 중에서 100개교를 지원해 주면서 무슨 특성화를 유도를 합니까, 장관님. 50%도 아니고 거의 모든 대학을 다 나눠서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런데 그 100개교가 그 지원의 조건이 상당히 자기 특성화 방향으로 구조적 개혁을 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박혜자 위원** 아예 139개교 다 주시지요. 39개, 기왕에 마음 쓰시는 김에 좀 더 주시지 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지금 현재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링크사업이 유의한 사업이고요. 4년제 대학사업은 상당히……

○**박혜자 위원** 그러면 액수를 차라리 늘려 주시고요 개수를 줄이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100개교 지원하고 링크사업으로 또 30개교 지원하고. 9개 대학만 빠지는 거예요, 139개 중에서 지원에서 빠지는 대학이?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마도 링크사업을 지원받는 대학의 경우에는 특성화사업을 대개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합해서……

○**박혜자 위원** 그러니까 너무 교육부의 지원 계획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 부실해요. 그렇게

지원해 주면 그냥 나눠 주기 사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오히려 나눠 주기가 아니라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구조개혁을 좀 더 촉진하기 위한 뜻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100개교에 지원해 주시면서도 꼭 그렇게 주장을 하시네요, 정말.

○**위원장 신학용** 그 문제는 나중에 좀 더 한번 토론해 봅시다.

오늘 장관들께서는요 가장 많은 질문 내용에 자료제출 요구, 본 위원장도 강력하게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제출은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성실히 보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요구한 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위원님들의 구두질의에 대해서 서면 답변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언제 답변을 해 올지 걱정되지만 성실히 답변해서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박혜자 위원** 정말 성실하게 답변 좀 해 달라고 해 주세요. 그렇게 허위사실로 답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위원장도 자료제출 요구만 나오면 사회 보기가 아주 겁납니다, 오는 게 없으니까.

하여튼 오늘은 위원장이 강력히 경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야 간사님들과 의논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 보게 하는 오늘 하루였다는 것 장관님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는 모두 스물여덟 분의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님, 김희정 위원님, 현영희 위원님, 이학재 위원님, 안민석 위원님, 김장실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정세균 위원님, 주호영 위원님, 도종환 위원님, 김태년 위원님, 서상기 위원님, 윤관석 위원님, 우원식 위원님, 정진

후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김윤덕 위원님, 박인숙 위원님, 배재정 위원님, 이에리사 위원님, 염동열 위원님, 강은희 위원님, 박창식 위원님, 박혜자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그리고 신학용 위원장으로부터 서면 질의가 있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기간이 촉박한 점을 고려하여서 해당 기관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소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의 의사일정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월요일 날 10시 법안 상정을 위해서 전체회의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17일·18일, 3일간 법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건은 추후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남수 장관님, 유진룡 장관님, 박영대 차장님을 비롯한 부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

○출석 위원(28인)

강은희	김상희	김세연	김윤덕
김장실	김태년	김희정	도종환
박성호	박인숙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서상기	신학용
안민석	염동열	우원식	유기홍
유은혜	윤관석	이에리사	정세균
정진후	주호영	현영희	황우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전문위원	박명수
전문위원	박용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장관	서남수		
기획조정실장	성삼제		
교육정책실장	심은석		
대학지원실장	박백범		

대변인	김문희
감사관	박준모
국제협력관	강영순
학교정책관	김영윤
창의인재정책관	김성기
학생복지안전관	황홍규
대학정책관	박춘란
대학지원관	한석수
학술장학지원관	서유미
지방교육지원국장	정병결
평생직업교육국장	박용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
기획조정실장	최규섭
총무실장	심장용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원선규
국민소통실장	방나중
문화정책국장	김성호
도서관박물관	박영국
기획단장	김종울
미디어정책국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	
문화재청	
청장직무대행	박영대
기획조정관	박영덕
문화재정책국장	최종경
문화재보존국장	강원기
문화재활용국장	김봉건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권영빈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김의석
영화진흥위원장	이성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정정택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